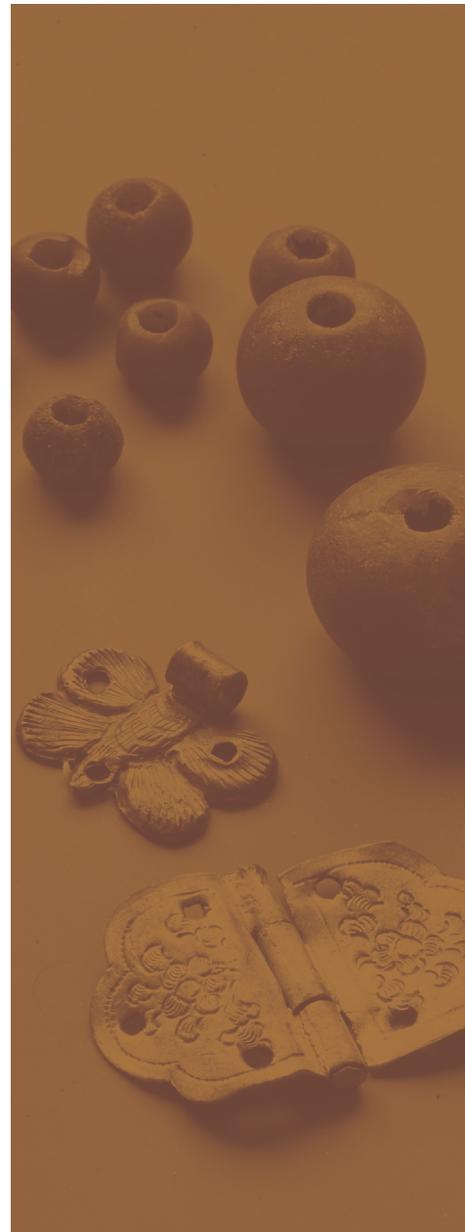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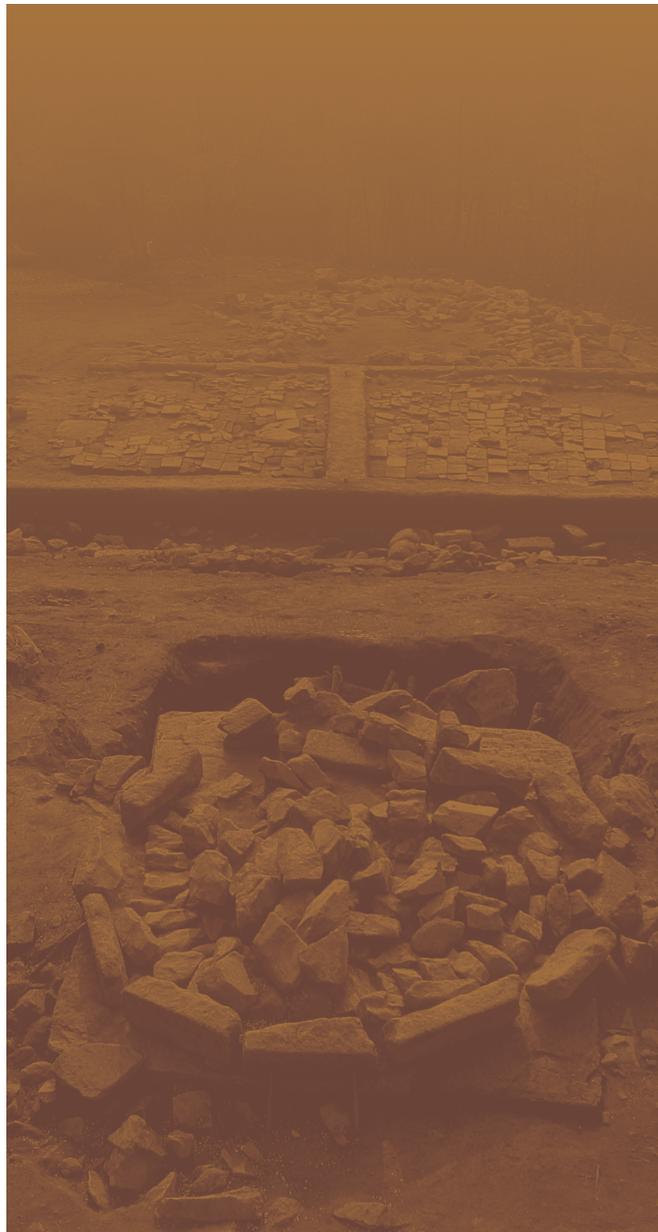


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

Construction and Culture of Goryeo Tombs



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

Construction and Culture of Goryeo Tombs

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

- 일시 : 2019. 12.5.(목) 13:00~18: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행사일정

개 회	
13:00~13:10	개회식
유적사례 발표	
13:10~13:25	1. 강화 석릉 주변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개보 이보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13:25~13:40	2.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III지점 발굴조사 성과 조희진 호남문화재연구원
주제 발표	
13:40~14:10	1. 고려시대 장법과 능묘제도 홍영의 국민대학교
14:10~14:40	2.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 장경희 한서대학교
14:40~15:00	휴 식
15:00~15:30	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 주영민 국립일제강점동원역사관
15:30~16:00	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남진주 중앙문화재연구원
16:00~16:30	5. 고려 분묘 출토 동기에 대한 검토 허선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16:30~16:50	휴 식
16:50~17:50	종합토론 좌 장 : 윤용혁 공주대학교 토론자 : 박진호 명지대학교, 이상준 문화재청, 이희인 인천시립박물관, 성기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맹세환 고령분청사기문화관
폐 회	
17:50~18:00	폐회식

목차

유적사례 발표	8	1. 강화 석릉 주변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개보 이보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4	2.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III지점 발굴조사 성과 조희진 호남문화재연구원
주제 발표	38	1. 고려시대의 장법 <small>葬法</small> 과 능묘 <small>陵墓</small> 제도 홍영의 국민대학교
	58	2.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 장경희 한서대학교
	74	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 주영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04	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남진주 중앙문화재연구원
	120	5.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 허선영 한국문물연구원
토론문	144	1. 「고려시대의 장법 <small>葬法</small> 과 능묘 <small>陵墓</small> 제도」에 대한 토론문 박진훈 명지대학교
	146	2.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상준 문화재청
	148	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희인 인천시립박물관
	150	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성기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152	5.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맹세환 고흥분청사기문화관

유적사례 발표

01 강화 석릉 주변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개요

이보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02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지점 발굴조사 성과

-고려 고분유구를 중심으로-

조희진 호남문화재연구원

강화 석릉 주변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개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이 보 람

I. 조사개요 및 경위

II. 조사 내용

III. 조사성과

I 조사개요 및 경위

강화도는 1232년 고려정부의 천도 이후 1270년 까지 고려의 황도로서 기능했던 곳이다. 황도로서의 기능과 대몽항쟁의 지휘부로서 강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려왕조는 39년간 강도건설에 매진했다. 이 시기 조성된 궁궐과 성곽, 사찰 등은 강화도 전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고려도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간 강화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강도시기 도성의 위치와 운영방식' 즉 고려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치중되어왔다. 하지만 당시 강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의 '죽음의 공간'-왕릉과 분묘-도 조성되어야만 했다. 당시 강도는 중세 물질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며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강화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왕릉과 고분군이다.

지금까지 강화도 내에서 고려시대 고분이 확인된 곳은 29개소이다. 이 가운데 왕릉급 고분은 총 4개소이며, 피장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규모의 능역과 석실을 조성하여 왕릉에 버금가는 고분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피장자가 알려진 귀족묘와 피장자를 알 수 없지만 지배계층의 묘로 추정되는 고분군도 조성되었다. 현재까지 피장자가 알려진 왕릉급 고분은 석릉(희종)과 가릉(순경태후), 곤릉(원덕태후)과 홍릉(고종)으로, 이 가운데 홍릉을 제외한 3개의 고분은 모두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능역의 규모와 구조, 석실의 형태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피장자를 알 수 없는 왕릉급 고분인 능내리석실분도 발굴조사 되어 석실과 축단, 정자각을 갖춘 묘역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였다(도면 1).

하지만 피장자를 알 수 없는 대부분의 고분군은 별도의 지리적 위치나 현황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의 계속된 형질변경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되고 있다. 강화도에 분포하는 고분이 고려시대 강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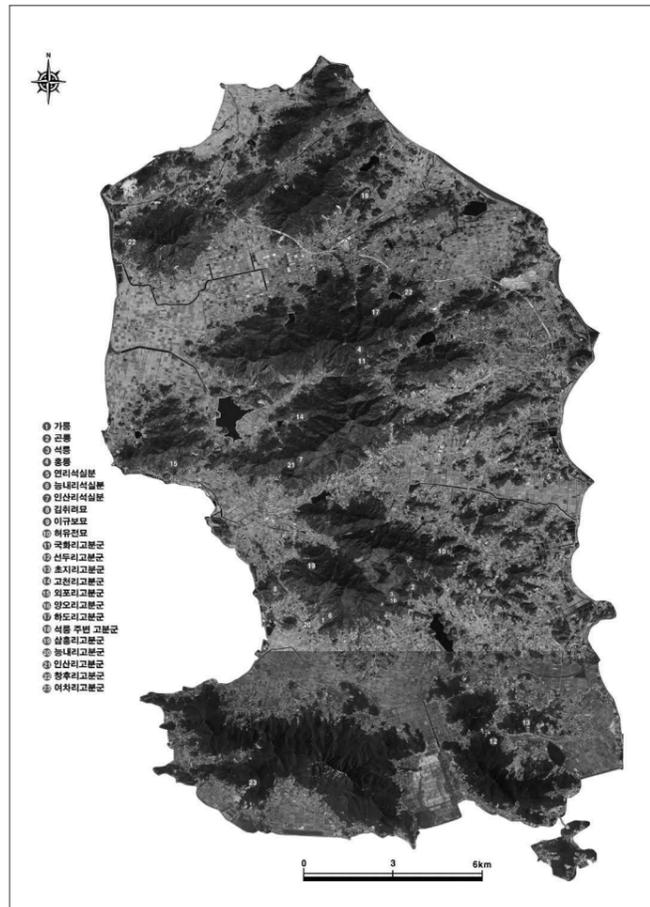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 현황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학술자료인 만큼 이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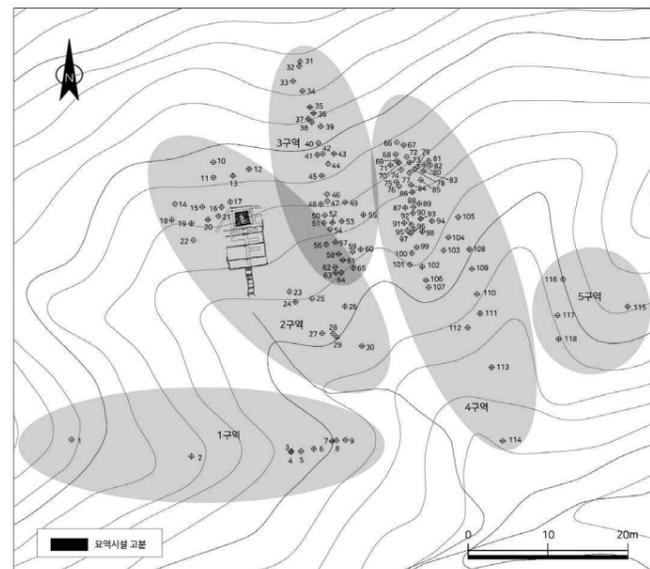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최근 강화도에 산재해 있는 고려시대 고분의 현황과 위치 및 분포범위를 파악하여 고려인의 죽음의 공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강화도에 분포하는 고분은 강화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별립산부터 남쪽의 마니산과 길상산까지 강화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분은 대부분 돌출된 산 능선상에 분포하는데 하나의 능선 또는 여러 개의 능선을 따라 적게는 1기부터 많게는 120기 이상이 밀집 분포한다(도면 2).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고려 고분현황조사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고분군은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으로, 총 118기의 고분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 183번지 일대에 자리한다. 석릉 주변 고분군은 석릉이 위치하는 능선을 포함하여 석릉 동쪽의 세 능선과 서남쪽의 능선 등 5개 능선에 걸쳐 분포한다(도면 3).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은 2000년에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인하대학교 박물관 2000)를 통해 총 112기의 고분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후 강화 석릉 발굴조사시에도 간략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이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려고분 분포현황조사를 통해 석릉 주변에 분포하는 5개의 능선을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능선별로 고분군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각 능선별로 소군집을 이루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도면 2〉 강화지역 고려 고분 분포 현황



〈도면 3〉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분포 현황

II 조사 내용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강도시기 고려고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석릉 주변에 묻힌 피장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2018년 5월~8월(실 조사일수 40일), 2019년 3월~6월(실 조사일수 45일)에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석릉 주변 고분군은 석릉 주변에 뻗어있는 진강산 남사면 일대 5개의 능선 분포하며 각 능선별로 소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2018년 발굴조사는 석릉 가까이에 위치하는 2구역 및 3구역 고분군 중 중심 고분 6기를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조사는 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 묘제 축조방법과 매장방식을 밝히기 위해 석릉 동편에 위치한 3구역 고분 9기를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는 고려시대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표 1). 판석을 다듬어 네 귀퉁이를 맞추고 개석을 덮은 판석조 석곽묘를 비롯하여 할석을 쌓거나 세워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할석조 석곽묘, 토광을 굴착하여 목관을 안치한 후 매장주체부 주변에 곡장을 두른 토광묘 등 다양한 형태와 구조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곡장, 석인상, 석수, 진단구 등 고려 분묘의 조성방식과 매장이레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출토 유물은 도굴로 인해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청자, 도기, 기와, 철제화로, 북송전, 미상 청동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표 1〉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유구 현황

유구명	유형	(잔존)규모(cm)						출토유물
		매장주체부			전체 규모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묘역시설	
10호	할석조	260	100	60	-	-	-	도기병, 소형 유병, 청자발 등
11호	할석조	335	165	100	503	317	-	개원통보, 자기편, 철촉, 관정 등
19호	토광묘	190	80-90	90-120	400	330	곡장·1단	관정
22호	토광묘	260	80-90	40-110	750	390	곡장·2단	판상철기, 청자접시, 목재편 등
23호	판석조	265	160	80	500	410	곡장·1단	자기편 등
33호	할석조	310	110	100-110	700	420	3단	도기접시
40호	할석조	400	250	100	1330	800	곡장·3단·계단시설·석수(석양, 석호)	청자화형접시·순화원보·정화통보·경우원보·송원통보·순화원보·기와
45호	토광묘	320	140	75-105	710	440	곡장·2단	희령원보·개원통보·원풍통보·기와
46호	토광묘	240	60	75-100	460	420	곡장	미상철기·관정·희령원보2·미상동전·청동제품
47호	토광묘	310	130	60-110	-	-	곡장	관정·황송○보
48호	할석조	240	65	55-65	(350)	(170)	1단	도기병·관고리·관정·청동제품
52호	판석조	222	67	75	870	400	곡장·3단·석수·석인상(1구)	도기호·철제수각화로·원우통보
53호	판석조	225	76	80	980	450	곡장·3단	상부통보·석제 바둑알
54호	할석조	145	75	100	490	390	곡장·1단	도기호·관정·미상철기
56호	판석조	230	70	70	470	420	곡장·석인상(2구)	지도원보·개원통보·희령원보·미상동전2

1. 판석조 석곽묘

1) 23호(도면 4)

23호는 석릉에서 남동쪽으로 5m 떨어져 있으며, 2구역에 해당한다. 지표상에서 장방형의 호석과 함께 도굴로 인해 매장주체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매장주체부 주변으로는 곡장을 시설하고 전면 1단으로 구성된 묘역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 장축 방향은 능선의 방향과 직교하는 남동-북서이다.



〈도면 4〉 23호 석곽묘(①전경 ②북단벽 세부 ③교란층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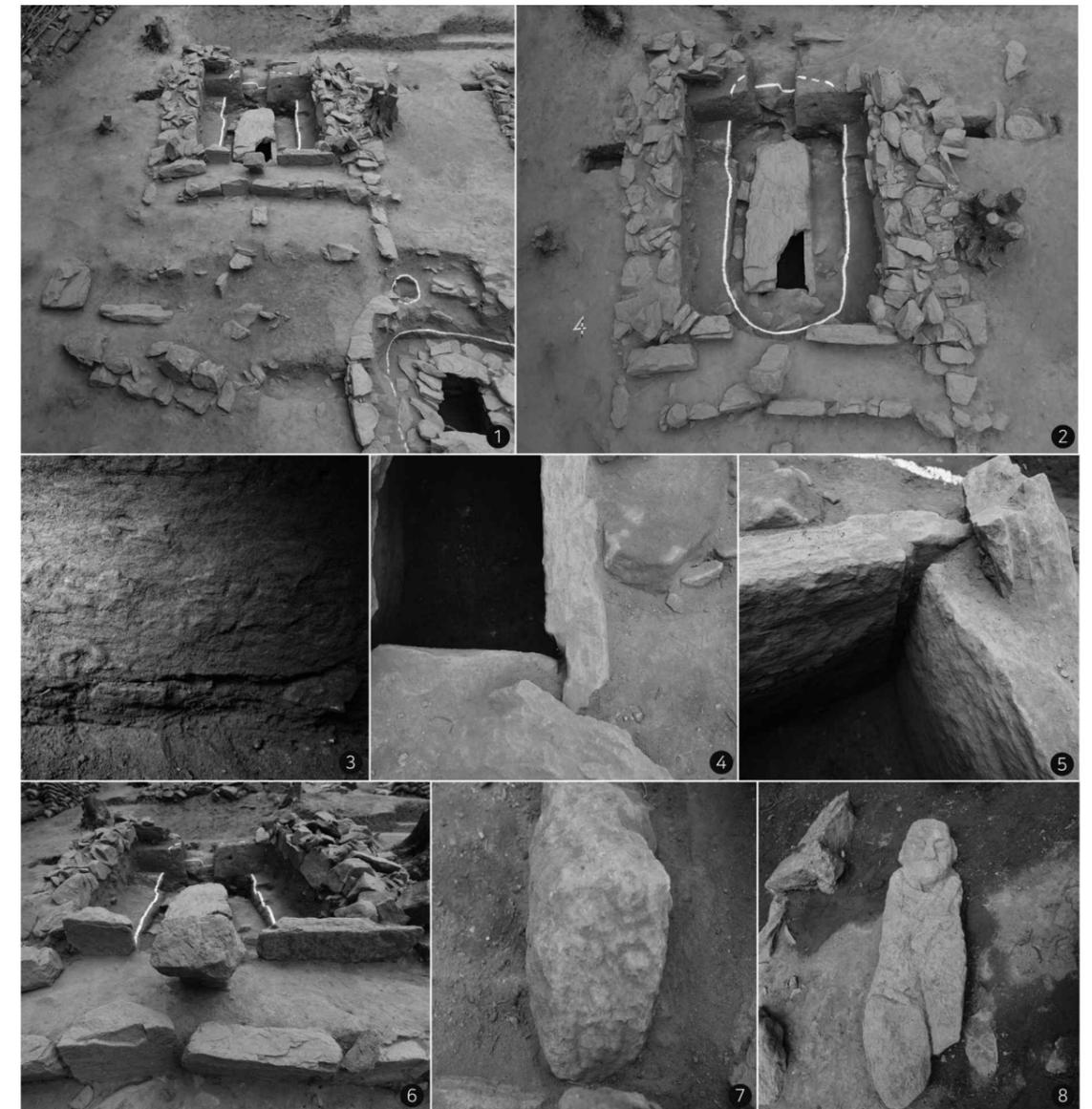
매장주체부는 생토면을 비스듬하게 굴광한 후, 묘광 내에 벽석을 쌓고 생토가 섞인 보강토와 할석을 이용하여 묘광과 벽석 사이를 충진하였다. 굴광의 규모는 길이 265cm, 너비 160cm 깊이 80cm이다. 도굴로 인해 개석과 벽석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로 벽석 최하단부가 잔존해 있다. 비교적 편평한 소형 할석을 고름석으로 놓은 후 판석을 쌓아올려 양 측벽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판석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북단벽은 단면 'ㅁ'자형으로 판석을 다듬어 양 측벽을 결구한 양상이 확인된다.

곡장은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후, 굴광의 최상단면까지 성토하고 성토층 상면에 시설하였다. 곡장은 석재를 2단 이상으로 쌓아 올렸으며 규모는 길이 383cm, 너비 390cm이다. 전면 1단은 장대석 2매를 계체석으로 이용하여 단을 조성하고 대형 판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측면을 쌓아 올렸다.

출토유물은 빈약한 편으로 매장주체부 교란층 내에서 자기편과 청동수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52호(도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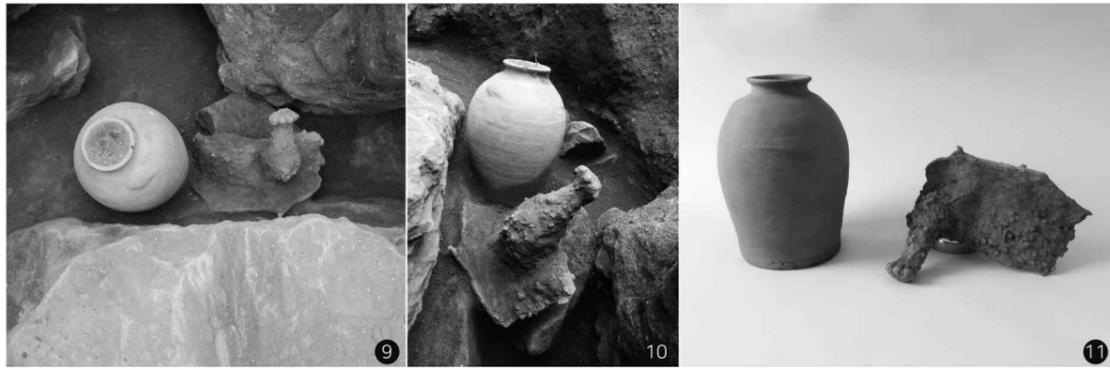
52호는 3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2.9m 떨어진 지점에 동 형식의 53호가, 남동쪽으로 2m 정도 아래에는 52호의 묘역시설 일부를 파괴하고 할석조 석곽묘인 54호가 위치해 있다. 지표상에 할석이 산재해 있어 유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유구 북쪽은 도굴로 인해 심하게 교란된 상태였다. 부토 제거 결과 'ㄱ' 형태의 곡장과 개석이 확인되었는데, 도굴로 인해 남단벽 개석 일부가 결실되어 석곽 내부에 토사가 유입되어 있었다.



〈도면 5〉 52호 석곽묘(①전경 ②매장주체부 세부 ③석곽 장벽 고름석 ④장벽과 단벽 결구 세부 ⑥곡장 전면 막음석 세부 ⑦석호 세부 ⑧석인상)

매장주체부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자연경사면을 'ㄱ'자 형태로 2단 굴광하여 석곽을 조성하였다. 매장주체부 규모는 길이 222cm, 너비 67cm, 높이 75cm이다. 각 벽과 개석은 대형 판석을 다듬어 축조하였다. 동·서장벽은 비교적 편평한 소형 할석을 고름석으로 놓아 바닥 수평을 맞춘 후 대형의 판석을 세워 측벽을 마련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고 적갈색의 사질점토를 3~4cm 깔았다. 동장벽은 남단벽과 결구하기 위해 모서리 단면을 'ㅁ'자로 다듬었다. 벽석과 굴광면 사이에는 할석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충진하였다. 석곽은 북단벽을 가장 먼저 축조한 후, 이에 맞대어 동·서측벽을 결합한 다음 남단벽을 세우고, 마지막에 개석을 덮은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된다.

곡장은 2열로 내·외면을 면맞춤하여 조성하였는데, 현재 1~2단이 잔존해 있다. 곡장의 규모는 길이 380cm, 너비 400cm이다. 암반 위에 흰색 암반부스러기가 섞인 적갈색 사질점토와 소량의 잡석이 포함된 황갈색 사질점토를 성토한 후 곡장을 시설하였다. 동·서쪽 곡장은 석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판석 1매를 시설하였다. 동쪽 곡장과 전면 판석 사이에서 석호 1구가 확인되었다. 곡장 아래로는 3단이 시설되었는데, 1단은 판석을 세워



〈도면 6〉 52호 석곽묘 출토유물(⑨⑩진단구 출토 상황 ⑪도기호 및 철제수각화로)

쌓기하여 축조하였으며 2단은 판석과 할석을 얹혀 쌓아 단을 마련하였다. 3단은 동측면이 54호와 중복되어 일부 유실되었으나, 서쪽에 석인상 1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석인상이 안치되었던 묘역시설로 판단된다. 단의 규모는 길이 490cm, 너비 380~400cm이다.

석곽 내부는 도굴로 인해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묘광 북쪽에서 지진구로 추정되는 도기호와 철제수각화로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석곽 외부 퇴적층에서 원우통보(元祐通寶) 1점이 발견되었다.

3) 56호(도면 7)

56호는 3구역에 해당하며, 북쪽으로 10m 이격되어 52호가 위치한다. 지표상에서 'ㄱ'형태의 곡장이 노출되어 유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매장주체부 장축 방향은 남-북으로 자연경사면을 'ㄱ'자로 굴착하여 판석조 석곽을 시설하였다. 굴광과 측벽 사이는 할석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충진하고, 상면은 굴광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정지하였다.



〈도면 7〉 56호 석곽묘(①전경 ②석곽 내부 ③석곽 장벽 고풍석 ④남단벽 노출 ⑤곡장 전면 막음석 ⑥석인상1 ⑦석인상2 ⑧주변수습유물(복숭전))

석곽의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68cm, 높이 70cm로 바닥은 생토면을 편평하게 다듬어 점토를 7cm 정도 깔아 시상대를 마련하였으며 장벽은 바닥에 고풍석을 괴어 수평을 맞추었다. 남쪽 단벽은 도굴로 인해 바닥에 누혀진 채로 확인되었는데, 양 측벽과 결구하기 위해 단면 'ㄷ'자형으로 다듬었다.

묘역시설은 곡장과 매장주체부 인근에서 석인상 2기가 확인되었다. 전면에 단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면 경사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곡장은 'ㄱ'자 형태로, 측벽을 먼저 축조한 뒤, 후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측벽은 2~4단이 잔존해 있으며, 후벽은 최대 7단이 남아있다. 곡장 전면은 할석을 'ㄱ'형태로 깔아 막음한 양상이 확인된다.

석곽 내부 출토유물은 도굴로 인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단벽 하단에서 지도원보(至道元寶), 희령원보(熙寧元寶) 등 동전 5점과 미상 청동편이 발견되었다. 다만, 고분 인근에 청자편들과 미상 철기편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분 축조 당시에는 다양한 유물이 매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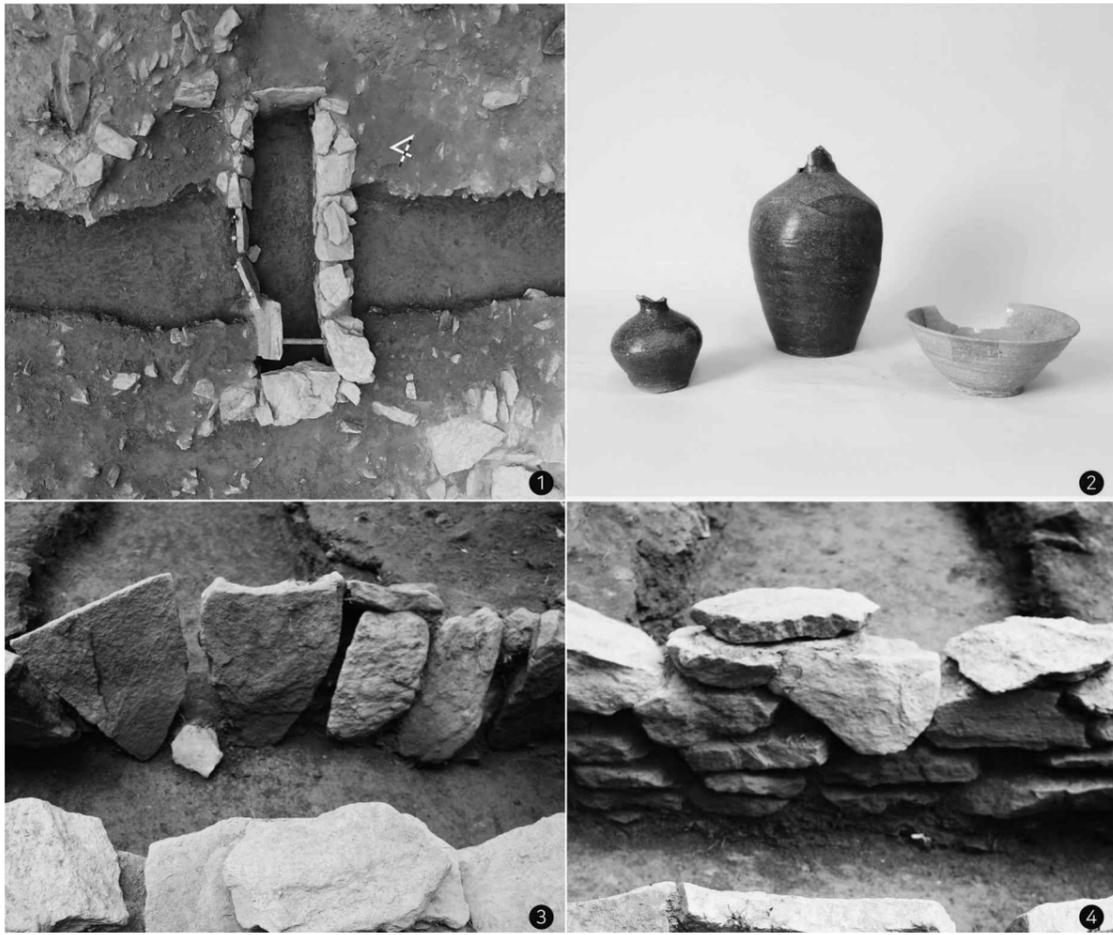
2. 할석조 석곽묘

1) 10호(도면 8)

2구역에 위치하는 10호는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사면에 11호와 10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10호 남동쪽으로 35m 이격되어 석릉이 위치해 있다. 10호 매장주체부의 장축 방향은 정북으로 위치한 석릉과는 달리 능선 방향과 직교하는 남동-북서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100cm, 깊이 60cm이다.

10호는 지표상에 개석 1매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매장주체부 주변에 할석이 집석되어 있어 유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묘역시설은 주변에 집석된 할석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곽묘 개석은 지표상에 노출된 1매만 확인되며, 나머지는 유실된 상태로 3~4매의 개석을 이용하여 덮었던



〈도면 8〉 10호 석곽묘(①전경 ②출토유물 ③서장벽 세부 ④동장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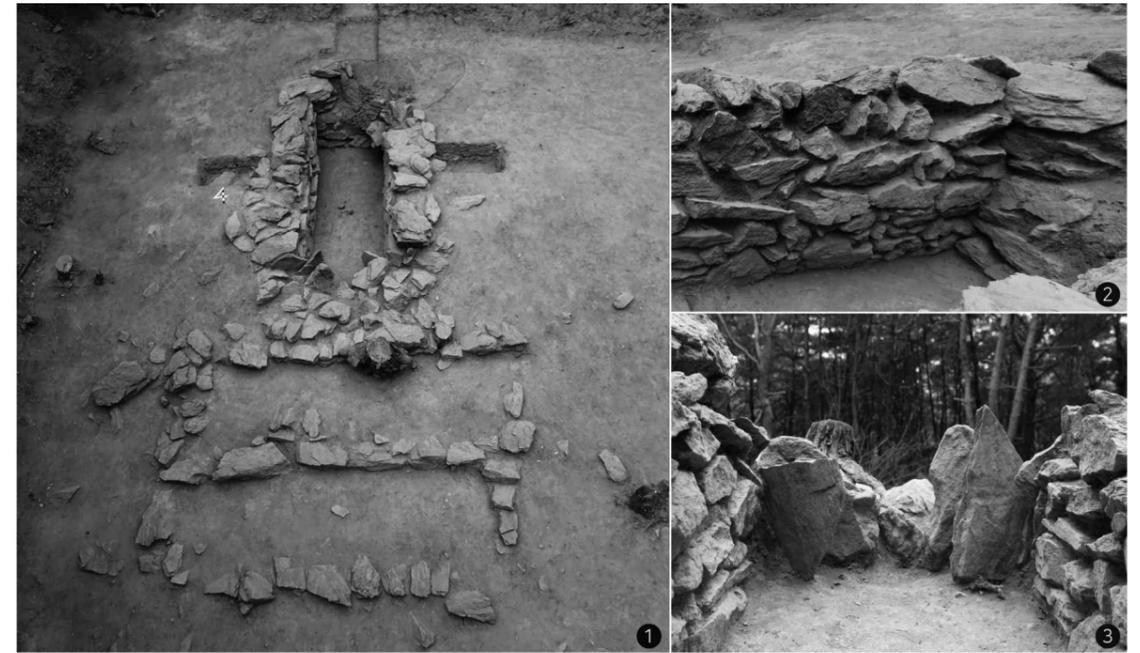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 동장벽은 할석을 5~6매 정도 높혀 쌓았으며, 서장벽은 판석형 할석을 다듬어 세워쌓기하여 양 장벽의 축조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남-북 단벽은 판석 1매를 세웠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10호 내부는 도굴로 인해 교란되었으나, 매장주체부 퇴적토 내에서 도기병, 소형 유병, 청자발, 미상 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바닥면에서 관정 3점이 확인되었다. 청자발은 10~11세기에 요업이 집중되는 시흥 방산동에서 출토되는 기형과 매우 유사하며, 번조받침 또한 일치한다. 유병은 용인 서리 유적 출토품, 병은 김천 모암동 유적에서 출토된 양상과 유사하여,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33호(도면 9)

33호는 3구역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 28m 아래에 40호가 위치한다. 지표상에 할석이 노출되어 있어 유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굴로 인해 석곽의 중앙부 일부가 함몰된 상태였으며 북벽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였다.

33호는 전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곽장은 시설되지 않았다. 장축 방향은 대체로 남-북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매장주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10cm, 너비 110cm, 깊이 100~110cm이다. 석곽 측장벽은 높혀쌓기 한 석재가 최대 8단까지 확인되며, 1단은 북단벽을 먼저 쌓은 후 양 측장벽을 축조하였다. 2단부



〈도면 9〉 33호 석곽묘(①전경 ②장벽 및 단벽 세부 ③남단벽 세부)

터는 북단벽과 측장벽을 교차로 맞물리게 쌓아 올렸는데, 1단과 2단 사이에는 회색 점토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석재를 쌓아올렸다. 남단벽은 2매의 얇은 판석을 2중의 문처럼 세워두고 할석을 이용하여 막음을 하였는데, 북단벽과 동·서 측장벽을 조성한 후 남단벽을 마지막에 시설한 횡구식 석곽묘이다. 석곽의 양측장벽이 1단과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석곽을 시설한 후, 자연경사면을 따라 3단의 묘역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의 규모는 길이 390cm, 너비 410~420cm이며, 각 단의 간격은 110~130cm이다. 출토유물은 석곽 내 교란층에서 여러 점의 도기과편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에서 유약이 박리된 청자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접시의 제작방법과 형태는 인천 경서동 청자요지, 해남 진사리 청자요지에서 제작된 청자접시와 유사하다.

3) 40호(도면 10·11)

40호는 3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33호와 28m 이격되어 있다. 지표에 'U'형태의 곽장 일부가 드러나 있었으며 도굴로 인해 매장주체부의 개석이 기울어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40호는 전면 3단과 후면 곽장을 갖추었으며 매장주체부의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자연경사면을 'L'자 형태로 2단 굴착하여 매장주체부와 곽장을 시설하였다.

남동쪽 곽장과 매장주체부의 동·서 측장벽은 도굴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으나 매장주체부의 내부조사 결과 축조 당시 결구된 면이 확인되어 북단벽→측장벽→남단벽 순으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단벽은 할석으로 막음시설을 한 후 석재를 동-서방향으로 일렬로 배치하여 곽장과 맞닿을 수 있게 시설하였다. 개석은 두터운 판석을 다듬어 올렸으며 개석 내부에 췌기흔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 막음시설 아래쪽에는 장방형의 면석을 세워 1단을 조성하였다. 2단은 면석 남쪽으로 150cm 간격을 두고 할석을 쌓아올려 조성하였으며 중앙부에 계단을 시설하였다. 3단 길이는 340cm, 너비 800cm로 할석



〈도면 10〉 40호 석곽묘(①전경 ②매장주체부 근경 ③개석 내부 뼈기흔 ④석양(서) ⑤석호(동))



〈도면 11〉 40호 주변 수습유물

을 면맞춤하여 쌓아 올려 조성하였으며 내부에 편평한 석재 2매가 깔려있어 배전터일 가능성이 있으나 상부가 유실되어 초석이나 적심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매장주체부의 북서, 북동쪽에는 석양과 석호를 각각 1구씩 세워두었으며 석곽 바깥을 향하고 있다. 매장주체부 출토유물은 석곽 외부 퇴적층에서 동전과 청자화형접시, 청자접시편이 수습되었는데, 유사한 형태가 13세기 전반에 조성된 회중 석릉과 강화 옥림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곡장 내·외부, 3단의 배전터 외부에서 토수

기와 및 무문의 미구기와 등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기와들이 다량 확인된다.

4) 54호(도면 12)

54호는 조사구역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북동쪽에 위치한 52호와 53호의 묘역시설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지표상에서 도굴로 인해 개석 일부가 노출되어 유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원형호석과 1단의 묘역을 갖춘 할석조 석곽묘로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자연경사면을 굴착하여 석곽을 시설하였으며, 상부에는 4매의 개석을 올렸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145cm, 너비 75cm이다. 동서장벽과 북단벽의 높이는 약 100cm로 최대 9단으로 조성되었다. 1단의 경우 북단벽을 먼저 축조한 뒤 동서장벽과 남단벽을 잇대어 쌓아 올렸다. 2단부터는 석재를 교차로 쌓아 올렸으



〈도면 12〉 54호 석곽묘 (①주변 석곽묘 분포현황 ②석곽 전경 ③남단벽 세부(외) ④남단벽 세부(내) ⑤석곽 내 요강 ⑥요강 세부 ⑦지진구 출토 세부 ⑧출토유물)

며 상부로 올라올수록 측벽이 좁아드는 형태이다. 남단벽의 높이는 약 70cm로, 할석을 이용해 최대 6단으로 조성하였다. 남단벽과 호석 사이에는 측장벽을 연장하여 조성하였으며, 상부에는 긴 마감석을 얹어 마무리하였다.

석곽의 전면부는 남단벽의 상부에 올려진 막음석을 비롯하여 2매의 대형 판석을 측장벽 사이에 설치하여 2중으로 막음하였다. 석곽의 바닥 중앙에서는 지름 45cm의 요갱이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두 개의 귀가 달린 호와 뚜껑이 발견되었다.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호석은 자연경사면 상부에 1~3단의 할석을 올려 시설하였으며, 전면부에 시설된 단은 일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북서쪽 호석 내부에서 지진구로 추정되는 도기호와 미상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곽 내부 교란층에서 관정이 수습되었다. 도기호의 경우 고려 중·후기 분묘인 오산 관동 5지점 12호 토광묘, 부여 염창리 v-1호 토광묘 등에서 출토된 호와 유사하다.

3. 토광묘

1) 22호(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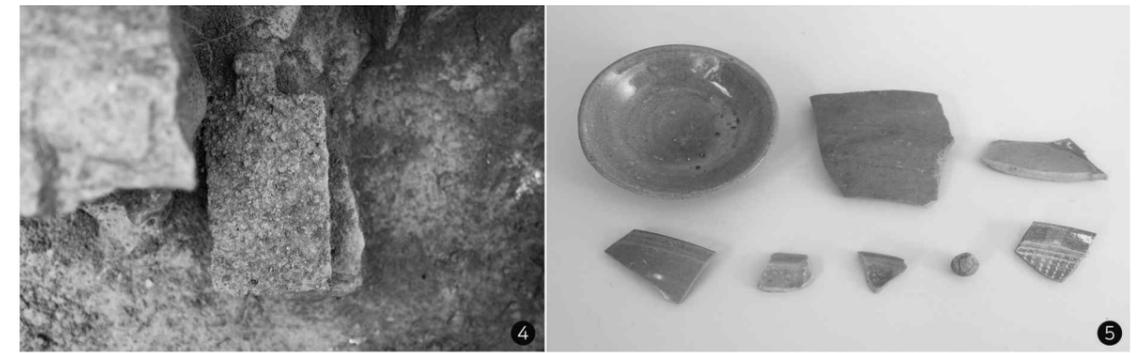
22호분은 2구역에 해당하며, 석릉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져 있다. 22호 북쪽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19호(동 형식의 토광묘)가 위치한다. 지표상에서 곡장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도굴로 인해 중앙부 일부가 함몰되었다.

묘광의 장축은 능선 방향과 직교하며 방향은 남-북이다. 평면 형태는 남단벽이 살짝 좁은 장방형이다. 묘광은 북쪽이 약간 높은 자연경사면을 굴착하였으며 북단벽이 남단벽보다 60cm 정도 높다. 토광묘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80~90cm, 깊이 40~110cm이다.

22호는 매장주체부를 마련하고 성토한 후 성토층 상면으로 곡장을 시설하였다. 묘역시설은 곡장과 전면 2단이 설치되었다. 곡장은 석재를 1~3단으로 내외면 모두 면맞출하여 정연하게 쌓아 올렸으며 규모는 길이 460~480cm, 너비 390cm이다. 전면에 시설된 2단은 대형의 석재를 계체석으로 이용하여 1~2단을 쌓아올린 형태이다.



〈도면 14〉 45호 토광묘(①전경 ②·③곡장 전면 대형석재(빗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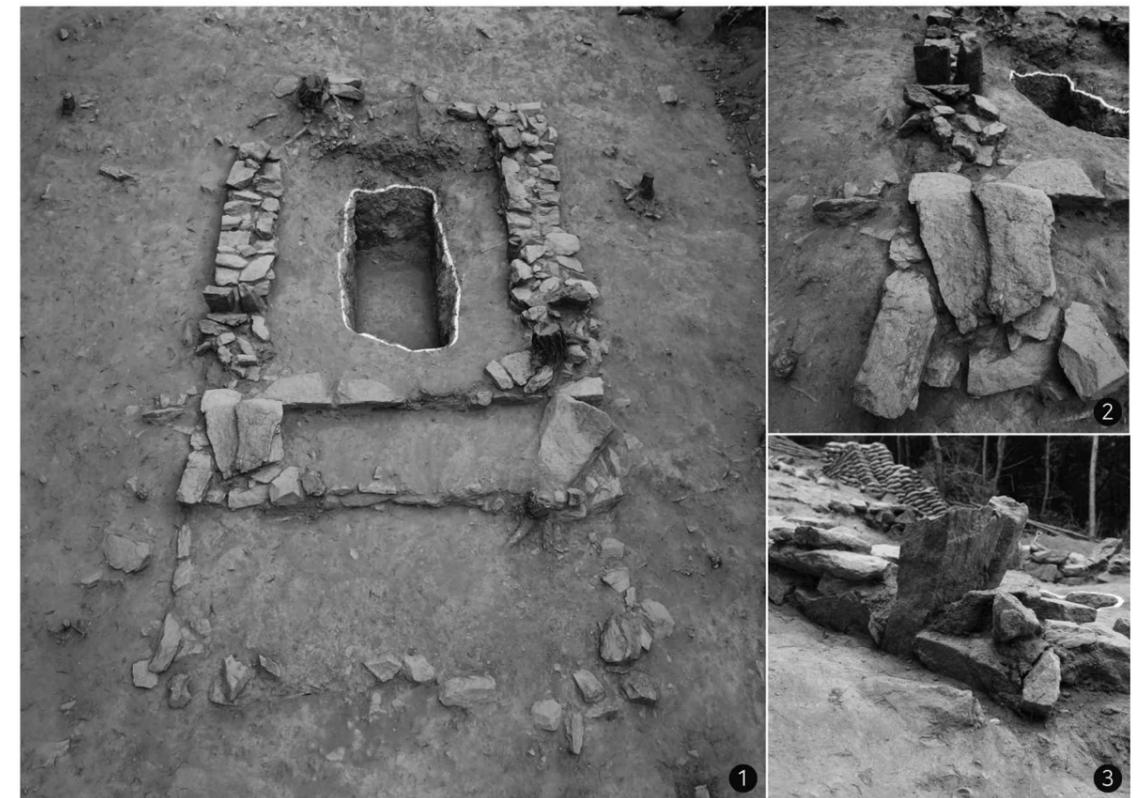


〈도면 13〉 22호 토광묘(①전경 ②·③전면 단 세부 ④판상철기 출토 상황 ⑤주변 수습유물)

출토유물은 도굴로 인해 빈약하다. 매장주체부 바닥에서 가공된 목재편이 4점 확인되었으며, 전면 1단과 2단 사이에 판상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곡장 주변 퇴적층 내에서 청자 접시 1점을 비롯하여 청자편이 수점 출토되었다.

2) 45호(도면 14)

45호는 3구역으로 40호에서 남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 10m 정도 내려가면 46호가 위치해 있다. 조사 결과 곡장이 시설된 토광묘로 확인되었으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매장주체부는 북쪽이 높은 자연경사면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140cm, 깊이 75~105cm이다. 매장주체부



〈도면 14〉 45호 토광묘(①전경 ②·③곡장 전면 대형석재(빗장들))

전면에는 2단이 시설되었는데, 전체 묘역의 규모는 710cm이다. 단의 너비는 430cm이며, 각 단의 간격은 100cm, 170cm이다.

곡장은 매장주체부와 약 80cm의 간격을 두고 2~3단의 할석을 내외면 면맞춤하여 쌓아 올렸다. 곡장 전체 규모는 길이 460cm, 너비 50~70cm이다. 곡장 동서 석렬의 남쪽 끝에는 1~2매의 석재(빗장돌)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1단 동서 석렬에는 대형 석재를 시설하였는데 이는 경사면에 시설된 곡장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교란층에서 도기파편이 확인되었다.

Ⅲ 조사성과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은 고려시대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된 유적으로 단위면적당 밀집도가 무척 높게 나타난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석릉 주변 고분군의 피장자를 밝혀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보존, 정비를 위해 2018년부터 연차적인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에서는 총 15기의 판석조 석곽묘, 할석조 석곽묘, 곡장을 갖춘 토광묘 등 고려시대의 다양한 묘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석릉 주변 고분군은 다양한 형태의 묘제가 시차를 가지고 축조된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 고분문화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가지 지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는 40호, 52호 등과 같이 3단으로 이루어진 정형화된 묘역구조가 나타난다. 특히 40호에서는 계단시설, 석수, 배전으로 추정되는 단 시설 등이 부가되어 고려 왕릉에 필적하는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다.

2. 52호, 53호 등에서는 석곽 장벽의 고름석, 단벽 및 장벽의 결구방식을 통해 석곽묘 축조방법을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주로 수혈식 매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식 매장 방식은 2종의 판석 남단벽과 전면 막음시설을 한 이루어진 33호가 유일하다.

3. 52호, 54호에서는 지진구와 요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지진구 봉안방식과 장례문화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굴로 인해 수량이 많지 않지만 출토 정황이 명확한 10호 출토 도기, 40호 출토 기와 등을 대략 11~12세기로 편년된다. 뿐만 아니라 10호, 33호, 40호 분포 정황을 고려하면 강도시기 이전, 즉 석릉 축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III지점 발굴조사 성과

-고려 고분유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 조희진

- I. 조사개요
- II. 조사내용
- III. 조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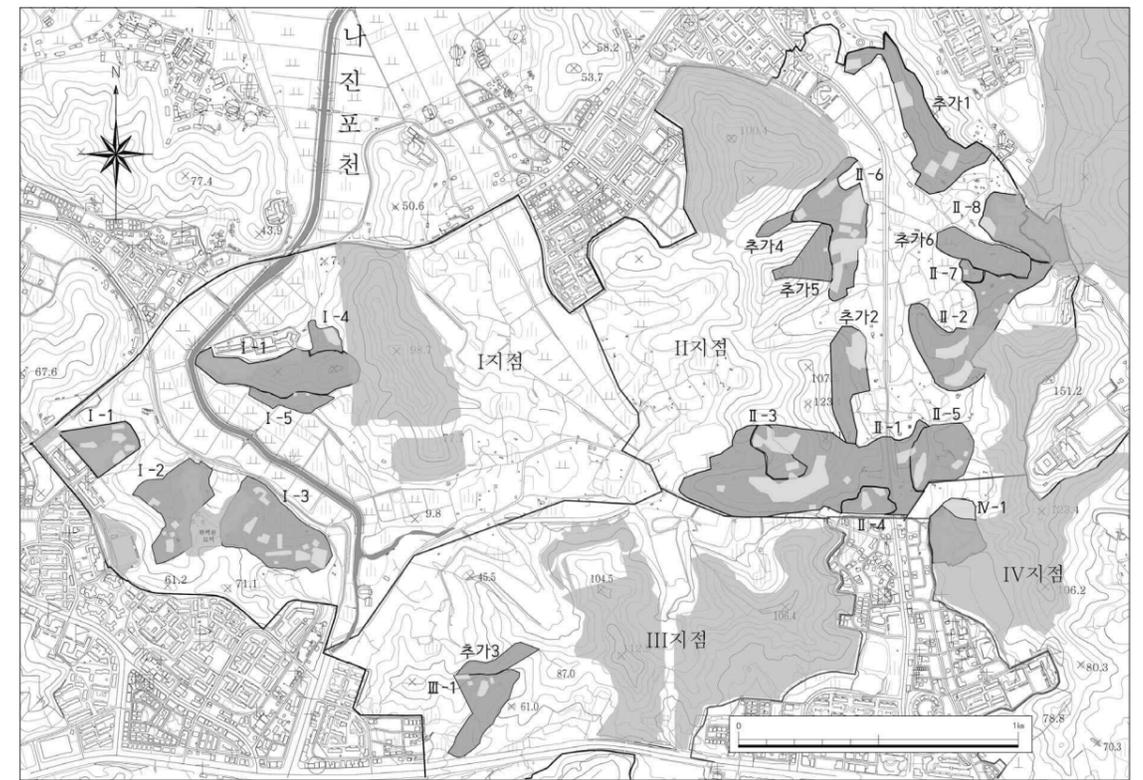
I 조사개요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2007~2008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유물산포지 31개소와 확인조사지역 12개소가 보고되었다. 이에 지점별로 나누어 5개의 기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 추가조사가 요구되어 총 6개의 기관에 의해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본원은 I~III지점에서 확인된 12개소의 시굴조사지역과 3개소의 확인(표본)조사지역에 대하여 2015년 12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제2015-1325호)를 승인 받은 후, 2015년 12월 22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시굴 4개소, 확인(표본)조사 4개소가 추가되어 총 시굴조사 16개소, 확인(표본)조사 7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시굴조사와 확인(표본)조사를 통하여 유구가 확인된 19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전기장방형주거지·지석묘·수혈·구, 원삼국~삼국시대 분구묘·목관묘·수혈, 통일신라시대 주거지·가마·석곽묘, 고려시대 건물지·석곽묘·가마·수혈·구, 조선시대 건물지·가마·수혈·토광묘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II 조사내용

조사지역인 I~III지점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원당동 일원으로 인천광역시의 북쪽



〈도면 1〉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III지점 현황도

에 해당하며 동쪽으로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4km 거리에는 한강 하류가 서류하며, 한강의 지류인 나진포천이 I지점의 곡간지 사이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는 해발 100m 내외의 산지성 구릉이 발달하였고, 나진포천 주변으로 곡간지가 드넓게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구릉의 능선부와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으로 공장지대와 주거지대, 경작지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형 훼손이 심한편이다.

〈표1〉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III지점 발굴조사 현황(□: 고려시대 고분 확인 유적)

연번	유적명	면적(㎡)	시대	조사내용	비고
1	I-1지점	4,603	고려-조선	가마, 구, 건물지, 토광묘	
2	I-2지점	2,388	고려-조선	건물지, 구	
3	I-3지점	10,846	신석기, 고려-조선	주거지, 건물지, 수혈, 구, 가마, 소성유구, 토광묘, 회묘	
4	I-4지점	2,546	고려-조선	건물지, 수혈, 구	
5	I-5지점	290	고려-조선	건물지, 유물포함층	
6	II-1지점	29,789	청동기, 삼국-조선	주거지, 지석묘, 수혈, 목관묘, 석곽묘, 토광묘, 회묘	원당동 고인돌
7	II-2지점	11,178	청동기, 고려-조선	주거지, 수혈, 석곽묘, 건물지, 토광묘, 회묘	
8	II-3지점	7,651	청동기, 고려-조선	석곽묘, 토광묘, 건물지, 수혈, 가마	
9	II-4지점	3,049	고려-조선	건물지, 우물	
10	II-5지점	5,270	청동기-조선	주거지, 분구묘, 건물지, 수혈, 토광묘, 구	
11	II-6지점	25,162	청동기-조선	주거지, 수혈, 목관묘, 석곽묘, 가마, 토광묘, 건물지, 석열, 배수시설, 축대, 담장, 고래	
12	II-7지점	235	청동기	지석묘	불로동 고인돌
13	II-8지점	2,447	청동기, 고려-조선	주거지, 석곽묘, 토광묘	
14	III-1지점	2,669	고려-조선	석곽묘, 매납유구, 토광묘, 회묘	
15	추가1지점	10,721	청동기, 고려-조선	구, 석곽묘, 수혈, 석열, 토광묘	II지점
16	추가2지점	7,272	청동기, 고려-조선	주거지, 석곽묘, 건물지, 구, 토광묘	II지점
17	추가3지점	1,383	청동기, 원삼국	주거지, 분구묘	III지점
18	추가4지점	2,491	삼국, 고려-조선	석곽묘, 건물지, 축대, 배수시설	II지점
19	추가5지점	170	고려-조선	매납유구, 토광묘	II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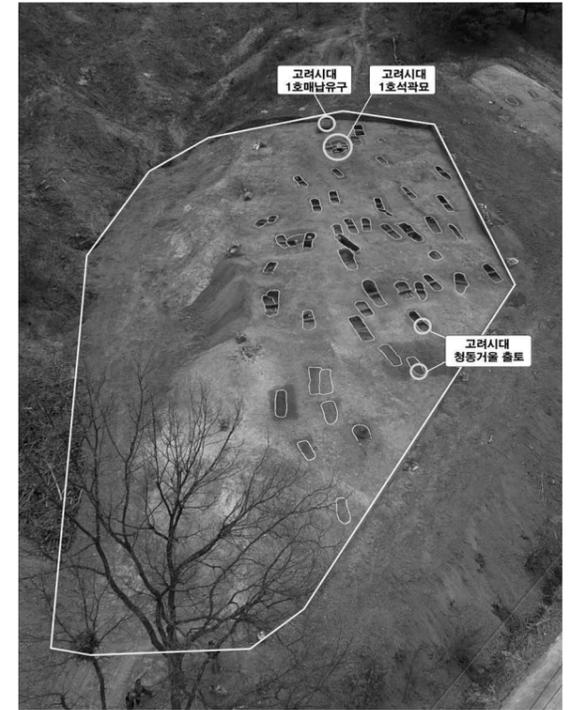
고려시대 유구는 건물지와 수혈, 구를 비롯하여 가마, 석곽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유구들은 구릉 정상부에서 하단부까지 고르게 분포하며, 구릉에서는 주로 석곽묘와 토광묘인 분묘유구가, 하단부에서는 건물지와 같은 생활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구역을 달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고분은 주로 석곽묘와 토광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판석조석곽묘(III-1)와 방형분(II-5), 석곽옹관묘(II-1)가 각각 1기씩 조사되었으며, 매납유구(III-1, 추가5)에서 총 3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고분들은 단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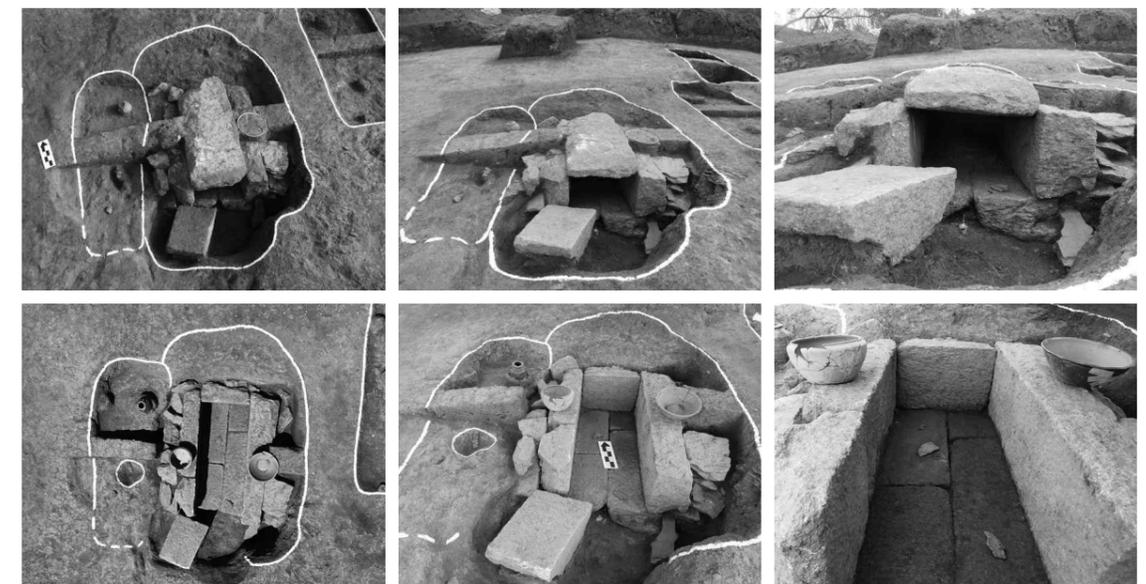
조사된 경우와 동일한 구릉내에 여러 기가 확인된 경우로 구분되며, 군집된 경우 다른 시기의 고분(통일신라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토광묘) 또는 동시기의 여러 종류의 고분이 동일한 묘역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III-1지점의 경우 고려시대 분묘군이 군집된 양상을 보이는데 구릉 정상부 쪽으로 판석조석곽묘와 매납유구가 1기씩 위치하며 그 하단부로 토광묘군이 50여기 분포하고 있다.

1. 판석조 석곽묘

III-1지점에서 확인된 판석조석곽묘는 토광묘에 의해 일부 훼손되었으나 덮개돌까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다. 말각장방형의 묘광에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바닥에 4매의 장대석을 나란하게 놓고 그 위로 각각 1매씩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세워 놓은 후 가장 큰 크기의 장대석 1매를 덮개돌로 덮고 판석형 장대석으로 막음하였다. 막음석은 조사당시 이미 훼손되어 있었으며, 묘광과 벽석사이에는 흙과 함께 작은 판석을 보강하여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양 벽석 장대석과 굴광 사이에 각각 청자호와 도기호 각 1점씩을 부장하였으며, 석곽 내부에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입구 쪽에서 철기 1점과 인골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막음석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물은 부장되었으나 도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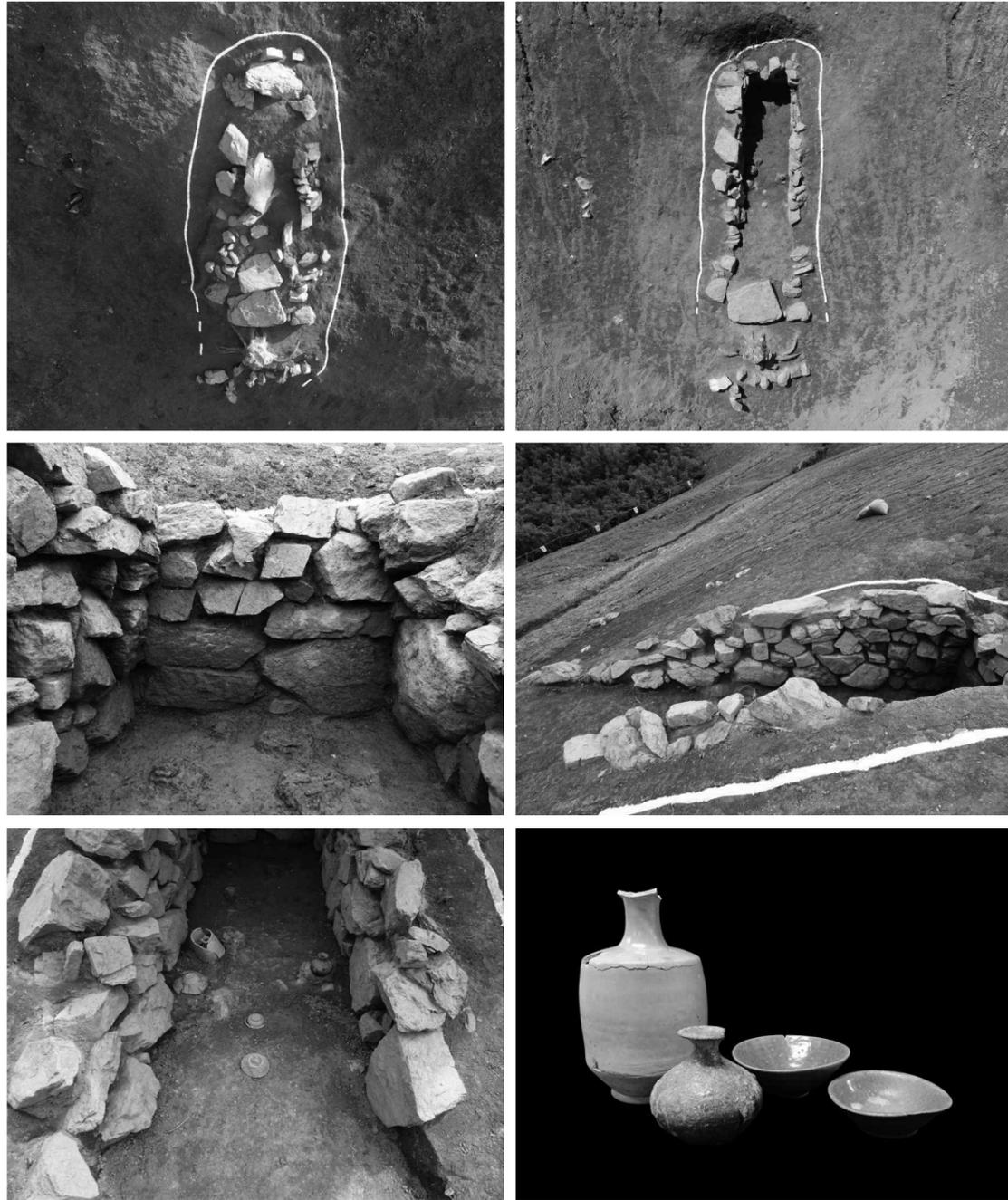
〈사진 1〉 고려시대 고분군 전경(III-1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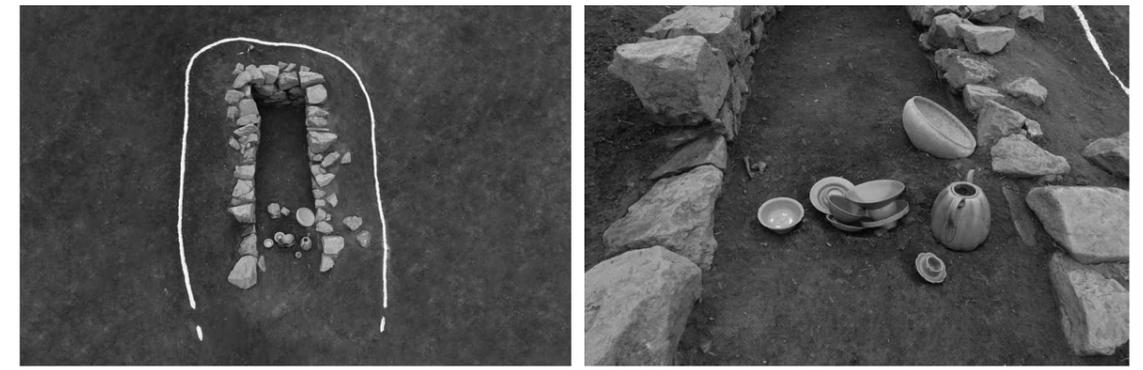
〈사진 2〉 고려시대 판석조석곽묘(III-1지점)

2.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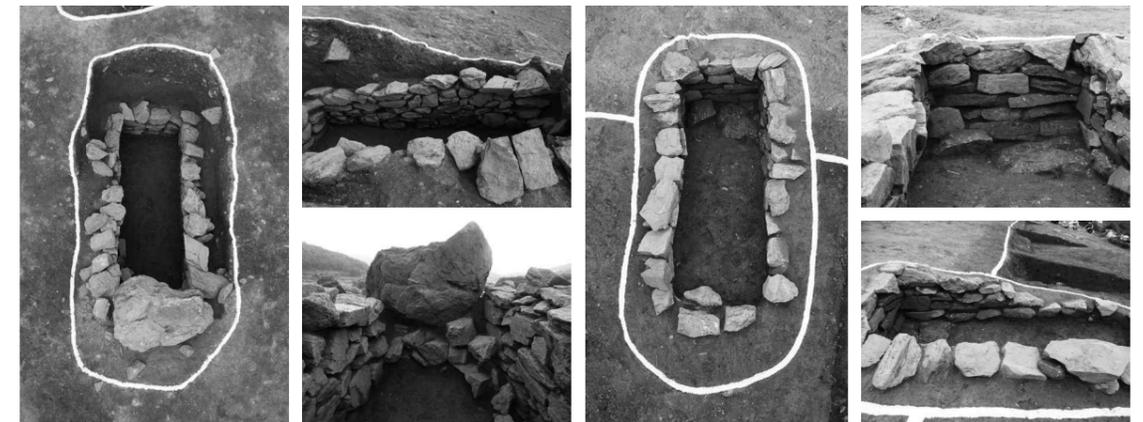
석곽묘는 Ⅱ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석곽묘(Ⅱ-1·6지점) 또는 고려시대 토광묘(Ⅱ-1·3·6지점)와 함께 확인 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횡구식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사면을 따라 하단부의 유실이 심한편이다. 기반층을 굴광하여 묘광을 조성하고 납작한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놓혀 쌓아 여러 단의 벽석을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대부분 기반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일부 판석제의 뚜껑돌이 남아있기도 하나 상부는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다.



Ⅱ-3지점 3호
〈사진 3〉 고려시대 석곽묘



Ⅱ-1지점 29호



Ⅱ-6지점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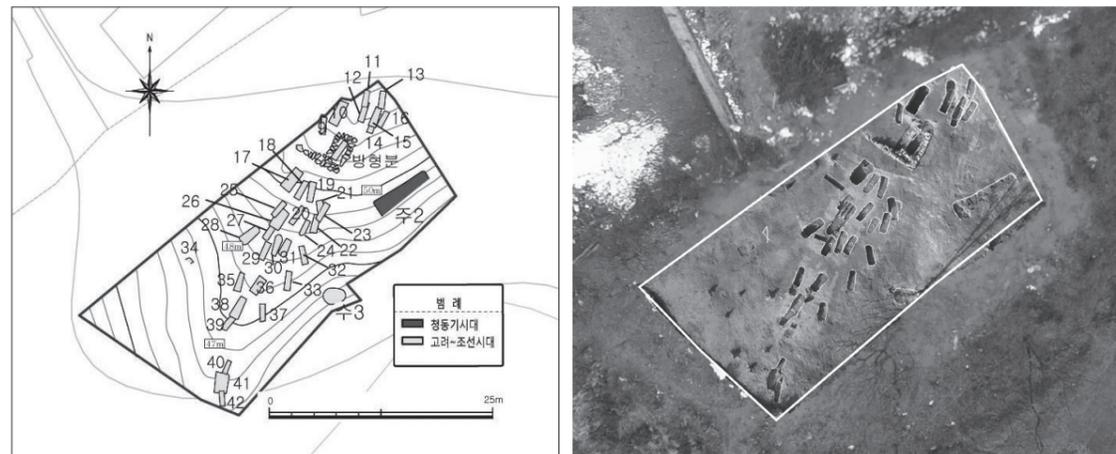
Ⅱ-2지점 1호

〈사진 4〉 고려시대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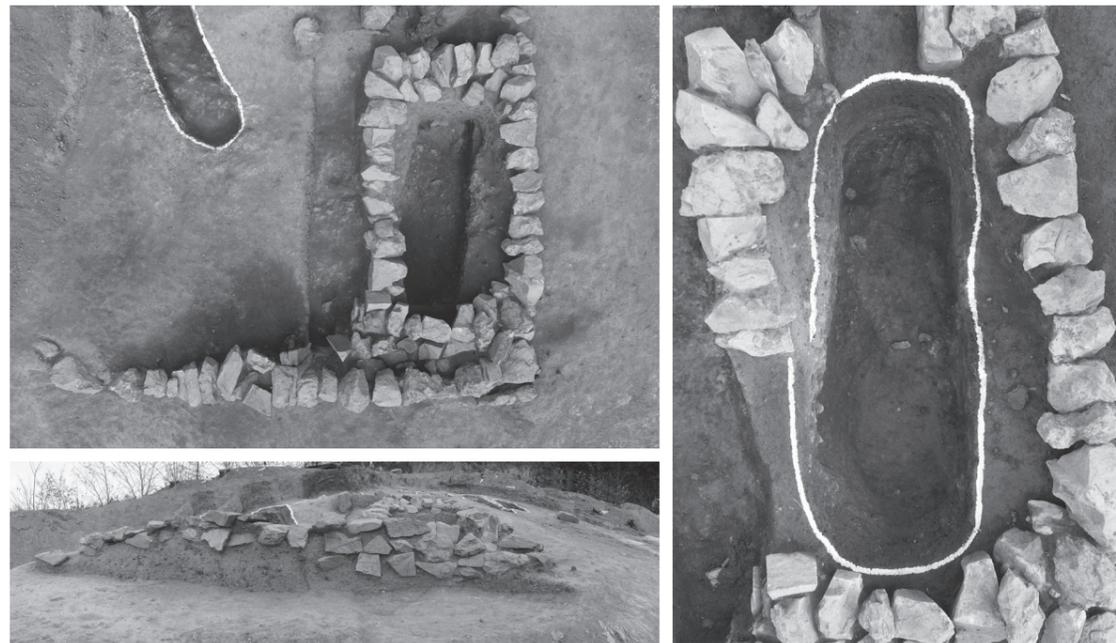
유물은 일부의 석곽묘에서 확인되는데 청자잔, 청자병, 청자호, 청자접시, 청자잔탁, 도기병, 동경, 등잔, 동곳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Ⅱ-1지점 29호 석곽묘에서는 과형주자를 비롯하여 청자잔과 접시, 잔탁, 대발 등 다기가 일괄로 출토되었다.

3. 방형분

또한 II-5지점에서는 토광묘 상부에 방형으로 할석을 쌓아 묘역을 시설한 방형분이 1기 확인되었다. 묘광은 길이 230cm, 너비 67cm로 길이가 긴 편이며, 평면형태는 세장한 형태이다. 묘광 위에 봉토 퇴적층이 확인되며, 석열은 소형의 할석을 놓혀 시설하였다. 석열은 할석의 단축면을 바깥으로 축조하였으나 면이 정교하지 않다. 북쪽 중앙부분에는 40cm 간격으로 양쪽에 할석을 세워서 시설하였고, 남쪽은 2열 구조이다. 남쪽 석열은 토광묘보다 길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합장묘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쪽 부분에서는 토광이 확인되지 않고 기반토가 노출되어, 묘역 조성 후 매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광 내부에서 철기편과 관정, 청동순가락 병부편이 출토되었다.



II-5지점 동쪽 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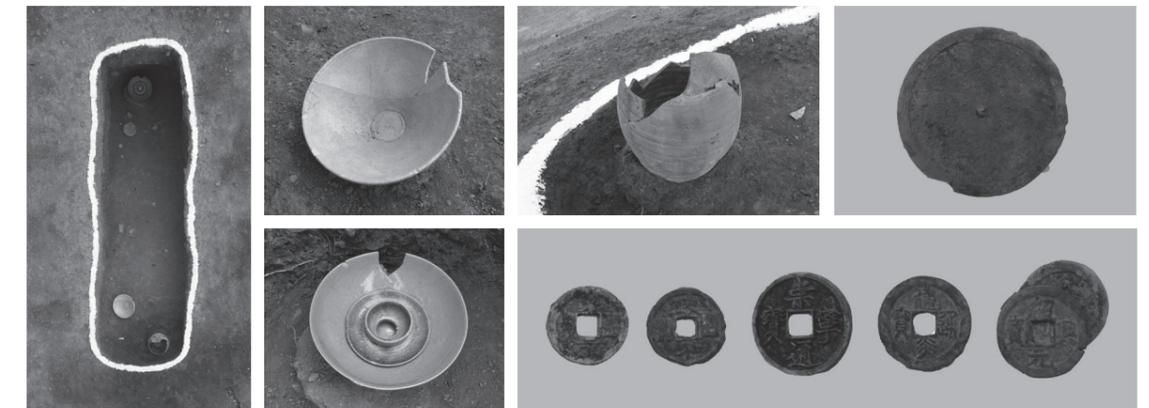
II-5지점 방형분

〈사진 5〉 고려시대 방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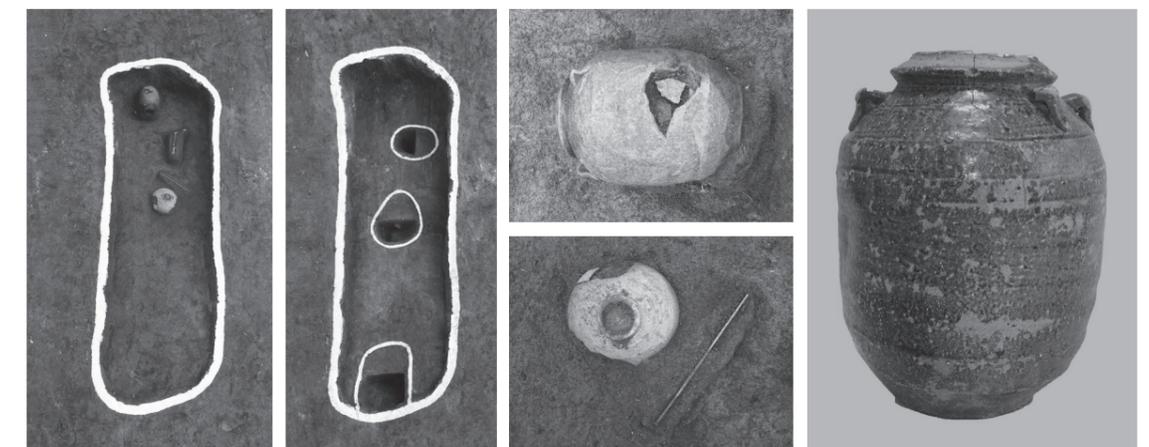
4. 토광묘

토광묘는 단독으로 조사된 예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기의 다른 무덤(석곽묘, 매납유구)과 분포하거나(II-1·3, III-1), 한 지점 내에서 여러 시기(고려~조선시대)가 이어지는 양상(II-5)이 확인되었다. 특히 III-1지점에서는 구릉을 따라 51기의 토광묘가 구릉사면의 경사를 따라 일정한 범위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첩되지 않고 소군집과 열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고려시대 토광묘는 대부분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은 잘 확인되지 않으나 관뭇이 출토되고 'U'자형의 퇴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1단 굴광으로 내부시설은 바닥에 요갱이 굴착된 경우가 일부에서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출토위치에 따라 시신의 머리쪽, 가슴쪽, 발치쪽과 묘광의 중앙부와 측벽 등으로 세분된다.

유물은 도기류(병·호), 청자류, 동경, 동전, 청동수저, 청동합, 철기류, 옥환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II-1지점과 III-1지점에서는 중국동전이 300여개로 다수가 출토되었는데 황송통보(皇宋通寶 1039년), 가우원보(嘉祐元寶 1056~1063년), 대관통보(大觀通寶 1107~1110년)를 비롯하여 북송의 승녕통보(崇寧通寶 1103년)를 비롯하여 남송의 건염통보(建炎通寶 1127년), 소흥원보(紹興元寶 1131년)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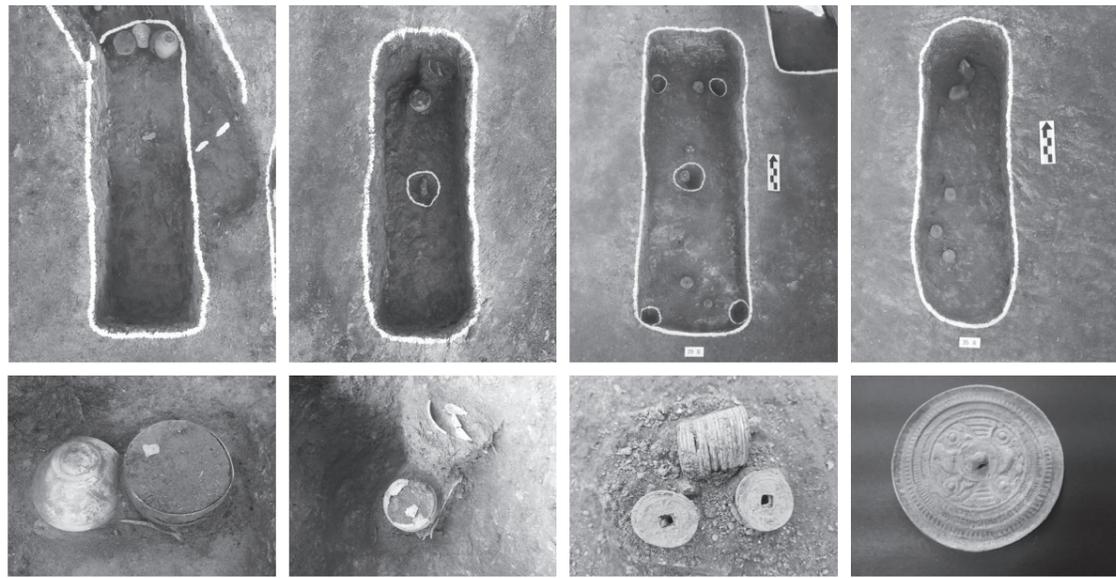


II-1지점 6호 토광묘



II-2지점 15호

〈사진 6〉 고려시대 토광묘



II-5지점 11호

II-5지점 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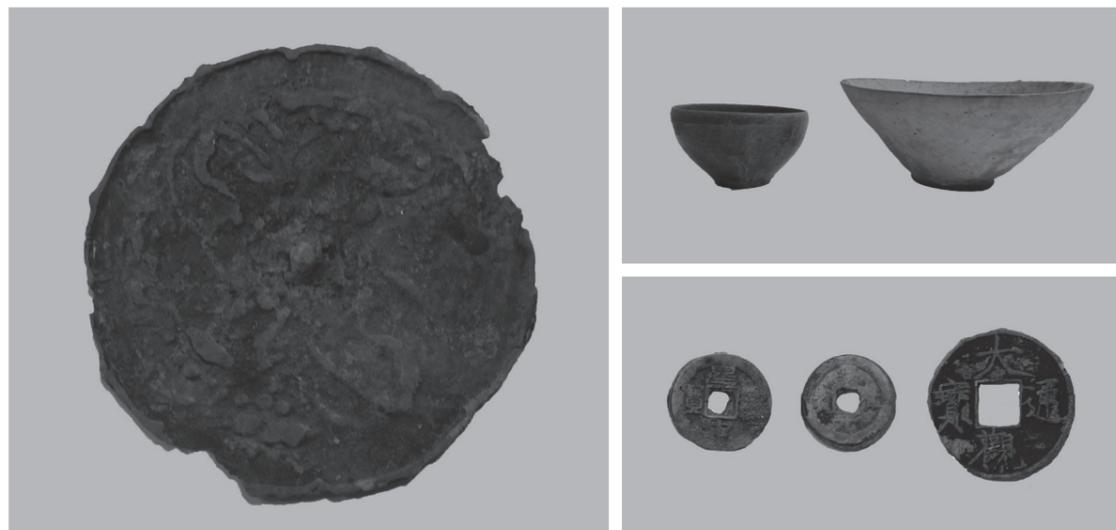
III-1지점 29호

III-1지점 35호



II-5지점

II-1지점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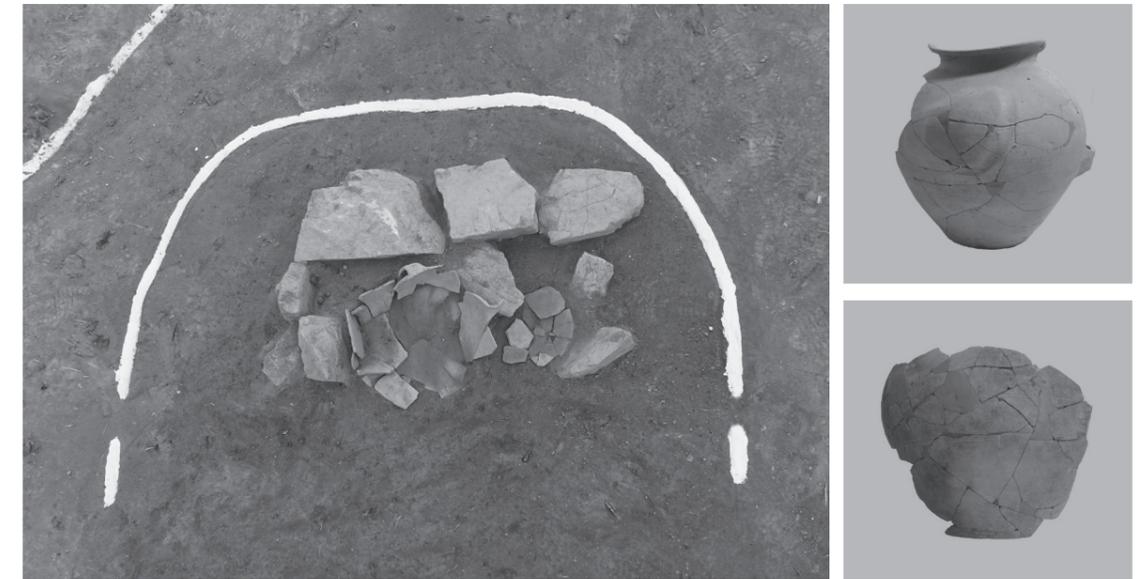


II-1지점 8호

〈사진 7〉 토광묘 및 출토유물

5. 석곽옹관묘

석곽옹관묘는 II-1지점에서 확인된 것으로 구릉 상부에서 2기의 석곽묘와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굴광선과 함께 벽석이 남아있으며, 벽석에 인접하여 2개체의 토기가 횡치되었다. 확인된 토기는 비교적 큰 기형의 파수부호와 자배기로 추정되며 매장된 형태로 보아 합구식 옹관묘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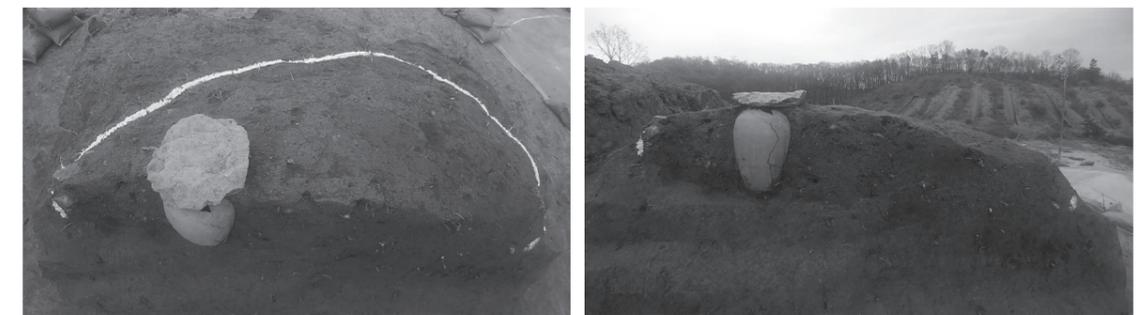


2-1지점 3호 석곽묘

〈사진 8〉 고려시대 석곽옹관묘

6. 매납유구

매납유구는 고려시대 분묘군 유적인 III-1지점과 추가5지점에서 총 3기가 확인되었다. III-1지점의 1호 매납유구는 굴광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나 타원형을 띠며, 굴광 안에 1점의 청자병을 직립하여 세운 후 병의 구연부를 판판한 석재로 덮은 형태이다. 추가5지점에서 확인된 것은 황화산 정상부(127m)에 입지하여 나란히 연결하여 2기가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기반토를 굴광한 다음 호형토기를 각각 직치하여 매납하였다.



3-1지점 1호 매납유구

〈사진 9〉 고려시대 매납유구

Ⅲ 조사성과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Ⅲ지점 문화재 발굴조사는 총 19개소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130,160㎡이다.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생활유구를 비롯하여 생산·분묘유구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 중 고려시대 고분을 중심으로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I~Ⅲ지점은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구역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지형은 해발 100m 이내의 구릉이 발달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곡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I구역 중앙으로 한강의 지류인 나진포천이 곡류하고 있다. 확인된 유적은 구릉의 능선과 사면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생활유적이 대단위 주거군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유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릉 하단부로 내려와 고려~조선시대에는 평탄지를 중심으로 건물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생활유적이 구릉 하단부로 내려올 때 구릉 사면부쪽에는 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하는 분묘유구가 주로 확인되고 있어,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구역을 달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시대 분묘는 판석조석곽묘를 비롯하여 석곽묘, 방형분, 토광묘, 석곽옹관묘, 매납유구까지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부장된 유물 또한 다양하게 출토되어, 고려시대 고분연구에 있어 형태 및 계층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석곽묘는 대부분 횡구식으로 납작한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얹혀 쌓아 벽석을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기반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서는 도기병을 비롯하여 청자류, 청동제품이 출토되었는데, 조사구역의 북사면에 위치하는 II-1지점 27호와 29호, II-3지점 3호에서는 병, 잔, 잔탁, 주자, 접시, 대발 등 다양한 청자류가 세트로 출토되었다. 그 중 II-1지점 29호에서는 다도와 관련된 과형주자, 잔과 잔탁, 접시, 대발이 일괄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29호 석곽묘 출토 청자류는 철분 함량이 거의 없는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내저원각이 작고, 내화토 받침을 이용하고 있어 12세기 전반 경에 강진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4.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토광묘는 II-3·5지점과 II-1확인조사지역, III-1지점에서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 토광묘는 중복이 많지 않고 일부 소군집 양상을 띠며, 청자와 동경, 동전 등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었다. 이 중 III-1지점에서 확인된 토광묘 군은 12~13세기대에 조성된 고려시대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이는 II-5지점이나 인천 원당동유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유적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무덤이 공존하고 있는 반면, 이번 III-1지점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토광묘로 분류할 수 있는 예가 거의 없고 고려시대 판석조석곽묘, 토광묘, 매납유구 등이 동일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 발표

-
- 01 **고려시대의 장법 葬法과 능묘 陵墓제도**
홍영의 국민대학교
- 02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
장경희 한서대학교
- 0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
주영민 국립일제강점동원역사관
- 0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남진주 중앙문화재연구원
- 05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
허선영 한국문화연구원
-

고려시대의 장법 葬法과 능묘 陵墓제도

국민대학교 홍영의

I. 머리말

II. 고려시대 장례 방식

III. 고려시대 능묘 제도

IV. 맺음말

I 머리말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죽음은 곧 현세의 생활을 마감하고, 저 세상 삶의 시작이다. 인간이 죽어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외형적 안식처는 무덤이다. 무덤은 그 주인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이며 증거이다. 사자(死者)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장례 의식과 안식처인 무덤을 만드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여 '장례문화(葬禮文化)'라 한다.

장례 의식은 외형이 남아 있지 않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며, 무덤은 인간이 후세에 남기고자 한 의도에서 만든 기념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따라서 장례 문화는 그 시대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

무덤은 사람의 사체를 매장한 시설물로, 사람만이 주검을 매장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추모의 여지를 남겨 주는 기념 형상물로서 보편화되었다. 봉분이 무덤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망자(亡者)의 생전의 권위와 가세(家勢)를 자랑하는 후장(厚葬)의 한 표식으로도 작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분구묘(墳丘墓)의 출현 이래 망자의 신분에 따라 부장품과 제사의 품격이 달라지는가 하면 묘역의 너비와 봉분의 규모 및 무덤 위에 심는 수목의 그루 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차별화된 분묘의 조성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덤은 신분과 계층의 위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상징화되어 갔다. 흔히 고분(古墳), 분묘(墳墓), 무덤 등으로 불리는 고고 물질자료는 단순히 사자(死者)를 매장하는 공간 이상으로 그것을 조성한 시기의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묘가 다른 고고학적 자료보다 변화에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 묘제의 변화는 곧 당대의 정치,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고려 사회의 내재적(생활문화) 변화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통칭 '고분', '분묘'란 글자 그대로 '옛 무덤', '무덤'을 뜻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개념적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특정 시기의 무덤 양식을 지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고분이란 과거 사회에서 죽은 이를 위해 수행된 매장례의 행위가 물질적인 증거로 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분의 구조는 크게 외형적으로는 봉분(封墳)과 묘역시설(墓域施設), 내부의 매장시설(埋葬施設)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동안 고려시대 장례와 능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고고학적 접근과 미술사적 입장, 그리고 풍수지리와 관련되어 주목되었다. 특히 능묘의 축조 방식과 유형을 통하여 시대적 편년을 구하거나, 능묘의 변화상을 통해 지방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려 했으며,¹ 출토 유물을 이용하여 청자와 도기의 제작 편년을 찾는 도자사 연구와² 석물과 석상에 대한 조각 수법 등 미술사적 관심에서³ 주로 다루었다. 최근에는 능묘에서 출토된 금속제인 청동 수저와 동전을 통하여 고려시대 경제와 생활상의 일면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⁴

또한 고려 능묘는 내부의 구조에 의해서 조성 형태상 대체로 석실분, 석곽분(판석, 할석), 토광묘 등으로 분류되며, 피장자의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묘제가 채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왕족(왕릉)을 비롯한 상층계급은 판석으로 만든 석실분, 중류층은 할석으로 만든 석실분, 일반 서민과 하층계급은 토광묘를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다.⁵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내부의 축조방법이나 부장된 청자의 편년을 중심으로 묘제의 변천 과정만을 주목하고 있어 능묘 자체의 기본적인 속성(전형성과 외형 축조방식)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또한 특정 유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능묘제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봉분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원형 봉분이 아니라 고려전기 귀화 관리인 채인범(蔡仁範) 묘지명 속의 ‘마렵분(馬羸墳)’을 주목하여 고려시대 유행하였던 방형 형태의 봉분이 마렵분이며, 관리의 분묘로 16세기까지 유행하였음을 논증한 글도 있다.⁶

1 강인구, 1975, 「부여지방의 고려고분과 출토유물」, 『호남문화연구』 7 : 1980, 「무주 유동리의 고려고분과 출토유물」, 『미술자료』 26 : 1980, 「진산 읍내리 고려 석곽묘와 출토유물」, 『고고미술』 146 · 147 ; 고성영, 2003, 「고려 석곽묘와 토광묘 연구-혼재분포유적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현수, 2004, 「남한지역 고려 고분의 부장품 매장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장근, 1996, 「군산 미룡동 고려고분 수습조사 결과보고」, 『호남고고학보』 3 ; 김병수, 2004, 「장흥 하방촌 분묘유적에 대한 분석」, 『박물관연보』 13 : 2005, 「진안 수천리 고려분묘에 대한 분석」, 『박물관연보』 14, 목포대학교박물관 ; 김원룡, 1964, 「晉州平居洞紀年高麗古墳群」, 『미술자료』 9, 국립박물관 ; 都文善, 2009, 「淸州地域 高麗時代 土墳墓 受容背景과 造營勢力」, 『中央考古研究』 5 ;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봉근, 1997, 「南海平山里 方形墓」, 『石堂論叢』 25 ; 신천식, 2002,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연구」 경인문화사 ; 양미옥, 2007,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考古와 民俗』 10 ; 양익룡, 1961, 「철원군 내문리 고려돌상자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5 ; 엄익성, 1998,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좌향리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용인문화원 ; 李修鼎, 2009, 「忠北地域 高麗古墳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동주, 2011, 「밀양 고법리 벽화묘에 대한 연구」, 『文物研究』 19 ; 이수정, 2012, 「충북지역 고려 전기 분묘의 부장양상과 정치적 동향」, 『겨레문화연구』 창간호 ; 이재철, 2013, 「경상도지역 고려시대 토광묘의 공간배치 변화에 대한 연구」, 『아외고고학』 17 ; 이희인, 2004,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韓國上古史學報』 45 : 2007,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고학 6-1호』 ; 조재경, 2001, 「충북지방의 고려묘」 4회, 『호서지방의 중세고고학』 자료집 ;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 9~16世紀 墓域施設墳墓를 中心으로 -」, 『지역과 역사』 7 :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 2014, 「진주 평거동 고려 분묘군 재검토」, 『경남연구』 10 : 2017, 「경남지방 묘역시설분묘의 현황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64 ; 秦弘燮, 1974, 「고려시대 고분의 방형호석형식」, 『우간 정충원박사 還曆紀念論文集』 ; 황순녀, 2004, 「경북 북부지역 고려분묘의 형식과 편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黃恩景, 2010, 「고려시대 양광도지역 분묘 연구」,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황정욱, 2001,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득, 2014, 「조선시대 墓制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2 권두규, 1998, 「안동 정상동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유물」, 안동문화연구회 월례발표회 발표요지 ; 남진주, 2000 「尙州 靑里 古분 출토 청자 편년 연구」, 『美術史學研究』 225 · 226호 ; 2007,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강진 청자박물관 ; 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40 ; 주영민, 2004, 「고려시대 분묘 연구-도기편년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5, 「고려 분묘출토 녹청자의 편년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2005, 「嶺南地域高麗墓出土靑磁에 대한 編年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 출토 청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 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연구」, 『역사와 담론』46 ; 강진청자박물관 편, 2007,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 강진청자문화제 및 강진청자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 한혜선, 2016, 「고려전기 분묘 출토 자기해무리굽완의 확산과 소비양태」, 『한국중세사연구』 47 : 2016, 「고려후기 분묘 출토 陶器의 지역적 차이와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5, 한국중세사학회.

3 임영애, 2001, 「開城恭愍王陵石人像研究」, 『강좌 미술사』 17 ; 황정연, 2016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논총』 46.

4 정의도, 2007, 「韓國古代靑銅匙著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 38 : 2009, 「宋·遼·金·元墓 匙箸 및 鐵狹 出土傾向-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 『문물연구』 15 ; 김연수, 2007, 「高麗 墳墓 出土 金屬工藝 分析 試考」, 『고고학』 6-1 ; 전익환·이재성·박장식, 2013, 「고려 말 청동용기에 적용된 제작기술의 다양성 연구: 고양 더부골 고분군 출토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문화재』 46 ; 崔孟植, 1992, 「高麗 銅錢의 效用性에 대하여: 遺蹟출토유물을 中心으로」, 『중재장충식박사회갑기념논총 역사학편』 ; 정용범, 1997, 「高麗時代 中國錢 流通과 鑄錢策 -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 이승일, 2006, 「고려시대 출토 中國錢의 用途에 대한 연구」, 『石堂論叢』 37 ; 신은제·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銅器)의 유행과 그 의미: 고려시대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51.

5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석곽묘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화장에 사용된 묘제로, 주로 관인층과 승려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석관의 경우, 화장 후 유골 넣어 묘의 내부에 안치하는 것이므로 내부 시설물로 보아야지, 내부 구조에 따라 구분하는 조성방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6 홍영의, 2017, 「고려시대 장묘제(葬墓制)와 봉분(封墳)의 형태」, 『韓國中世考古學』 2.

고려시대 문헌사 연구자는 주로 기존 사료와 현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관인 묘지명(墓誌銘)을⁷ 통해 관인의 삶과 장례방식 등 사회사적 관심과 접근이 이루어졌다. 최재석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사망 장소와 빈소, 화장장소 및 화장기간, 불사(佛寺)에서의 권안(權安) 및 그 기간, 매골(埋骨) 및 상제(喪祭)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⁸ 김용선은 고려시대 묘지명을 통해 매장장소의 분포와 변천을 통해 고려후기 가족묘의 발달에 대해 주목하였다.⁹ 정길자도 고려시대 화장을 중심으로 화장의 역사적 연원부터 그 성쇠의 추이까지, 그리고 고려 화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¹⁰ 안병우와 나희라는 고려 말 권준(權準) 묘지명을 중심으로 윤회적 사생관(死生觀)을 살펴보고,¹¹ 화장과 복제(服制)에 대해 정종수의 간단한 논급이 있다.¹² 한편, 이우석은 여말선초 여묘제(廬墓制)로의 전환 및 그 발전의 양상에 대해 논술했었다.¹³ 박진훈은 사료와 묘지명을 통해 관인층의 장례와 화장 문제를 다루었다.¹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고려사람들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밝혀졌다.

우선, 고려에서는 불교식 장례로서의 화장을 비롯하여 토장(土葬), 풍장(風葬) 및 초분(草墳)과 같은 장례가 사용되었으며, 장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장(複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빈소나 화장장소의 위치, 장례 기간 동안 불교식 의례가 행해졌으며, 이러한 고려의 장례 모습은 고려 법제(法制)와는 다른 것이었음이 논증되었다.

그동안 고고학에서의 고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대상이 주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의 고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고려시대의 왕릉과¹⁵ 분묘에 대한¹⁶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었다. 고려시대가 장제(葬制)와 능묘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시기이지만, 연구 성과는 통일신라와 그 이전시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고려시대가 고고학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한 시대의 능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배층의 무덤이 대부분 개성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자료를 직접 접하

7 墓誌는 중국 삼국시대 魏에서 비롯되었다. 魏에서는 경제 등의 이유로 石室, 石獸, 碑銘 등을 일체 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陵墓 앞에 세우는 碑銘대신 蓋石과 底石의 두 장의 板石에 死者의 生卒, 家系, 官歷, 業績, 妻子女, 銘辭 등을 새겨서 墓壙앞에 묻게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墓誌다운 체계를 갖춘 것은 고려시대에서 비롯된다. 승려가 아닌 일반인의 묘지로서 最古는 靖宗 5년(1039년) 사망한 劉志誠이 6년 만인 靖宗 11년(1045년) 후손들에 의하여 개장되면서 남긴 것이 있다. 이후 묘지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상류층에서 매우 유행하였다.

8 崔在錫, 1984, 「高麗時代의 喪祭」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9 金龍善, 1989,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東亞研究』 17.

10 鄭吉子, 1983,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 7 ; 1985 「高麗貴族의 組立式石棺과 그 線刻畫 研究」, 『歷史學報』 108.

11 안병우, 2003, 「고려말 어느 관료의 輪廻의 死生觀」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출판부. 나희라, 2013,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사관」 『진단학보』 117.

12 정종수, 2005, 「상장례의 역사와 죽음관」,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13 李友石, 1996, 「麗末鮮初의 廬墓制」, 建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4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 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35 : 2015 「고려전기 국왕 殯殿의 설치와 의례」, 『한국중세사연구』 43 : 2015, 「고려시대 官人層의 임종 장소와 그 변화사에 대한 고찰」, 『東方學志』 172 : 2016, 「고려시대 관인층의 빈소 설치장소와 그 변화상」 『韓國史學報』 62 : 2016,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229 : 2016, 「고려시대 관인층의 장례기간 분석 - 묘지명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教育論集』 59.

15 왕릉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권두규, 2017, 「高麗時代 陵號 記載 樣式과 授與 基準」, 『한국중세고고학』 1 : 2019, 「고려 왕릉의 봉분 형태」, 『한국중세고고학』 5 ; 이상준, 2012, 「고려왕릉의 구조 및 능주(陵主) 검토」, 『문화재』 45-2 : 2017,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 『중앙고고연구』 23, 중앙문화재연구원 ; 이희인, 2015,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仁川文化研究』 12 ; 정해득, 2018, 「강화 고려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韓國中世考古學』 4 ; 한나래, 2008,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연구」, 『문화재』 41-1 ; 홍영의, 2019, 「조선시대 고려 왕릉의 현황과 보존 관리 실태-『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謄錄)을 중심으로』, 『韓國中世考古學』 5.

16 고려시대 지방 분묘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 이희인, 2004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韓國上古史學報』 45 : 2007,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고학 6-1호』 :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장제와 능묘제 연구는 묘지명을 통하여 문벌귀족의 특성을 살펴거나, 관인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사적 관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분묘의 발굴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통해 그 특성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려·조선초 지배층의 매장문화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능묘의 유형과 축조방식 그리고 시대 편년을 찾을 수는 있어도 한 개인이나 가문을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 묘지명을 통해 개인의 신분과 가문의 위상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능묘가 지나는 시대상을 읽어낼 수가 없다.

특히 고려와 조선은 개경이라는 수도에서 통일하고 건국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지배세력의 지역적 이동 변화는 능묘의 조성 경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개경(성) 지역에서 점차 경기 지역, 나아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입향조(入鄕祖)와 세거지(世居地)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여기에 능묘의 주인공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일 경우 능묘의 조성 경위와 매장지는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능묘가 다른 고고학적 자료보다 변화에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 묘제의 변화는 곧 당대의 정치,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고려 사회의 내재적(생활문화) 변화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¹⁷

따라서 이 글은 고려시대 장법과 능묘제도를 통해 고려시대 장례 방식과 매장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Ⅲ 고려시대 장례 방식

장례(葬禮)는 상례(喪禮)의 한 절차로서 시체의 처리방법, 즉 매장(埋葬)에 관련되는 예절로서 ‘장의(葬儀)’ 또는 ‘상의(喪儀)’라고 하여 상례와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 고려시대의 장법은 대체로 통일신라 때부터 이어져온 것들로 무덤 유구나 유물로 전해지는 것이 많은 편이다. 시신을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동안 안치(安置) 또는 매장하였다가, 유골(遺骨)을 수습하여 정식으로 안장(安葬)하는 방식이 선호되었겠지만, 고려시대의 장법은 시체를 바로펴묻기(伸展葬), 화장(火葬), 풍장(風葬) 등이 기록에 나타난다. 그 중 일반적인 것이 신전장과 화장이다. 풍장은 일부 서인층과 하층민이 사용한 장법으로 유행병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에 간혹 시신을 사실상 들에 내다버리는 유기장(遺棄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왕과 왕비는 매장이 원칙이었다. 장례의식은 일차적으로 국왕의 시신을 묻는 매장의식으로 일단락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망 후 5개월 만에 장례를 지내며, 이 절차는 『국조오례의』 흉례 치장(治葬) 편에 있다. 여기에는 왕릉 터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후 그곳에서의 제례, 왕릉 형식, 장례 후의 관리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고려왕조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였을 것이다.¹⁸

고려 시대 왕들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목종(997~1009)만이 화장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목종의 화장 배경에는 당시 왕위 쟁탈전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목종이 폐위되고 충주로 내려가자, 뒤따라 내려간 강조(康

兆)의 부하가 목종을 시해한 뒤 한 달을 넘겨 적성현의 남쪽에서 시신을 화장되었다.¹⁹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지배층들은 화장을 선호하였다. 여러 기록에는 화장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불로 태운다는 뜻의 ‘화장(火葬)’이나 ‘소장(燒葬)’으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화장이 불교식 예법에 의한 장례라는 점에서 ‘다비(荼毗)’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불역다비지법(佛域荼毗之法)’이나 ‘축법다비(竺法荼毗)’ 또는 ‘불제화장(佛制火葬)’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²⁰

고려의 불교식 화장법은 사망 → 불사(佛寺) 부근에서의 화장 → 습골(拾骨) → 권안(權安, 權殯이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절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 → 매장(埋骨)의 과정을 거친다.²¹

장례 기간도 고려는 조선과 달리 일반적으로 1백일이었으나 삼일장을 하기도 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공후(公侯) 이하는 3일 만에 장사한다”라고²² 하였으며, 1395년(태조 4) 6월 헌사(憲司)에서 올린 내용에서도 “모든 전·현직 관원은 삼년상을 지내고, 삼일장과 화장을 금지하며 신분에 따라 삼월장과 유월장(踰月葬)을 시행하도록 한다”라고²³ 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장례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왕실은 중국 한나라 이후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사용되던 역월제(易月制), 즉 하루를 한 달로 바꾸어 행하는 단상제(短喪制)를 시행하였다. 한의 문제(文帝)의 유조에 의해 비롯된 역월제를 기초로 한 단상제는 사실상 고려왕조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승려와 관인층에서 유행한 화장은 사찰 근처의 산기슭(山麓)이나 산등성이[崗] 등에서 화장이 거행되었는데, 대체로 자신과 인연이 깊은 절에서 그 절 스님의 집례로 불교 격식에 따라 엄숙하게 거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절 주변이라고 하였지만 대개는 절에 부속되어 있는 상설 화장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장이 끝난 유골을 절에 임시로 안치하고 제를 올리는 것을 권안(權安)이라고 한다. 절을 권안지(權安地)로 택한 것은, 스님의 독경 속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아침저녁으로 기원하는 불교의 공양의식을 행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절에 유골을 모셔두고는 오랫동안 매장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 장례의 조문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빠르게는 4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1달을 넘기는 경우와 무려 6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화장 날짜가 제각각인 것은, 장례와 관련된 망자(亡者)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또한 길일(吉日)을 점쳐 화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⁴

그 실례로 “여러 해를 지나 장례를 제때 치르지 않는 자를 벌주라”라고 하거나,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관청에서 장례비를 지급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고²⁵ 조치할 정도였다.

고려 시대에도 화장을 한 후에 뼈 가루를 산이나 강물에 뿌리는 산골 풍습이 있었다. 1389년(공양왕 원) 사

¹⁹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12년 2월

²⁰ 박진훈, 2016,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229, 3-4쪽 참조.

²¹ 崔在錫, 1984, 「高麗時代의 喪祭」,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²² 『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五服制

²³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6월 28일 庚寅 “憲司上言 自今勿論時散 許終三年之喪 申明家廟之制 禁三日葬及火葬 一依三月踰月之制 下使司擬議以聞”

²⁴ 박진훈, 2016,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229, 5쪽 참조.

²⁵ 『高麗史』 권16 세가16 仁宗 11년 6월 “庚戌 三零 制曰 近來 世道漸降 風俗澆薄 不孝不友 或棄孤幼 去妻妾 或居憂遊蕩 父母骸骨 權擯寺宇 至有累年不葬者 宜令有司 檢察治罪 如有貧不能襄事者 官給葬費”

¹⁷ 이희인,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문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청간호, 32쪽 참조.

¹⁸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 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282-283쪽 참조.

헌부 상소를 보면, 전형적인 산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즘 불교의 화장법이 성행하여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뜨거운 불꽃 속에 넣어 장사를 지냅니다. 모발을 태우고 피부를 익혀 뼈만 남기는데, 심한 자는 뼈를 태워 그 재를 날려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보시합니다.”²⁶

고려 시대의 절에는 장례를 치르는 장소와 함께 화장하는 자리도 따로 있었다. 문제는 화장할 때 혹여 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화장하는 곳에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시설(건물)을 마련하면 간단히 해결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절터에서 ‘화옥(火屋)’이라고 불린 화장장(火葬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찰(古刹)에서는 그런 유적을 찾지 못하였다.

화장이 끝난 후 최종 안장(安葬)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안장지는 죽은 자의 안식처였고 또한 조상의 무덤이 자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길지를 찾아 매장하는 풍습이 강하기 때문에 길지가 선정되면 석실(石室)이나 석곽(石槨)으로 분묘가 조성되었는데, 분묘의 크기는 6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²⁷ 더불어 석관(石棺)과 묘지(墓誌)가 제작되었다. 가족들은 죽은 자의 행적을 정리하여 적당한 인물에게 묘지명을 부탁하였으며, 동시에 글씨를 쓸 사람과 묘지명을 쓸 돌을 구하는 것과 전각(篆刻)하는 일을 주관할 사람을 선정하였다. 묘지명에는 일반적으로 관력(官歷)을 비롯하여 후세에 전할 만한 행적, 가계(家系), 가족 사항, 장례에 관한 일이나 추모의 말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많은 경제적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묘지가 제작되거나 나무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⁸

모든 준비가 끝나면 길일을 택하여 죽은 자의 유골은 안장되었다. 안장지까지의 운구와 안장도 일정한 절차와 예식을 거쳤는데, 운구와 예식은 죽은 자나 그가 속한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²⁹ 관인의 경우, 안장 이후 마렵분(馬鬣墳)의 방형 형태의 봉분이 조성되었으며,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뜻하는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묘지 주변에 조성되었다.³⁰

고려에서 화장이 성행한 시기는 대체로 11세기의 문종 때부터 12세기 말엽의 의종 때까지 200여 년 간이었다. 무인집권기 이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크게 감소하고 있던 관인층의 화장 풍조가 몽골과의 오랜 전쟁과 비용 문제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후 원간섭기인 충렬왕(1275~1308) 때 주자학과 『주자가례』의 보급과 주자학을 받아들인 성리학자들이 불교와 화장이 효도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매장이 완전히 정착되어 고려말에는 매장이 관인층의 일반적인 장례 풍습이 되었고, 관인층은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장을 하는 관인층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공민왕(1352~1374) 14년에 왕비 노국대장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³¹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신진유신 세력들은 권문세족과 연결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화장을 불인(不仁)’이라고까지 하였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조선 왕조를 세운 후에는 화장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도 간간히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인층의 장례에서 매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성리학의 전래와 보급, 급진과 신흥사대부의 불교 및 화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성리학을 이념적 토대로 하는 조선왕조의 성립은 그나마 남은 극히 일부 관인층의 화장 풍조마저 금지시키고자 하였다.³² 그런데 조선 왕조를 주도한 세력들이 상장례를 유교화하는 데 있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화장을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불교식 장법의 핵심은 승려의 주도로 시신을 화장하는 것과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추천제(追薦祭)로 볼 수 있다.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은 절에서 그것도 승려의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화장 금지에 대한 논의는 1389년(공양왕 1)에 시작되었다. 즉,

“恭讓王 원년(1389) 憲司에서 상소하기를, “장사지낸다는 것은 감춘다[藏]는 것이니 해골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래에 불교[浮屠氏]의 荼毗法이 성행하여,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들어서 세찬 화염 속에 장사지내어 머리털은 태우고 살은 녹여 단지 그 해골만 남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를 태워 재로 만들어 흩뿌려 물고기와 새에게 먹이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다음에야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다. 가히 西方의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략)… 聖人께서 4치[寸]의 棺과 3치의 槨을 제정하고서도 오히려 그것이 빨리 썩을까 두려워하였으며, 斂衣를 수십 겹을 입어도 오히려 그것이 혹시 앓을까를 두려워하였으며, 곡식을 관 속에 넣어두면서도 땅강아지와 개미가 혹시 침범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 보내는 의례가 이와 같은 것인데, 도리어 변방 오랑캐의 아버지조차 물러보는 가르침을 사용하니, 어찌 어질다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 일체 강력하게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³³

위의 내용에서 당시 헌사(憲司)는 화장을 ‘아비 없는 오랑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며, ‘불인(不仁)’하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390년(공양왕 2)에는 대부(大夫)를 비롯한 사족들이 사당을 세우도록 하고 제사를 『주자가례』에 맞춰 지내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³⁴ 이러한 고려 말 장법의 변화와 『주자가례』의 정착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다.

“尹龜生은 贊成事를 지낸 尹澤의 아들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判典農寺事까지 올랐다가 은퇴하여 錦州에 살면서, 조상의 사당을 지어 초하루와 보름 및 四仲과 俗節에는 3대를 제사하고, 동지에는 시조에게 제사하였으며 입춘에는 先祖에게 제사하면서 모두 朱文公家禮를 따랐다.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는 墓石을 세워 그 기일을 적어 두었으며, 부친묘에는 묘비를 세우고 묘

26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27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景宗元年二月 및 『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3월 29일 庚午

28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 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35, 166쪽 참조.

29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 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35.

30 홍영의, 2017, 「고려시대 장묘제(葬墓制)와 봉분(封墳)의 형태」 『韓國中世考古學』 2.

31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 恭愍王 后妃 徽懿魯國大長公主 “王惑浮屠說 欲火葬 侍中柳灌不可 乃止”

32 박진훈, 2016,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9

33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34 『高麗史』 권63 志117 禮5 吉禮小祀 大夫 · 士 · 庶人 祭禮 恭讓王 2년 八月庚申朔

의 남쪽에 齋室을 지었다. 高祖와 肅祖 이하의 기일도 돌에 새겨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였다.”³⁵

『고려사』 효우전(孝友傳)에 입전(入傳)된 윤구생(尹龜生)은 공민왕에게 『상서(尙書)』의 무일편(無逸篇),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 등을 강의한 윤택(尹澤)의 아들로 『주자가례』에 따라 사당과 묘석, 묘비, 제실(齋室)를 세운 첫 사례이다.³⁶ 그의 아버지 윤택 역시 부도법(浮屠法)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⁷ 또 공양왕 3년에는 복제(服制)를 고쳐 명나라의 대명률복제식(大明律服制式)을 따르도록 하고, 3년상이 천하의 보편적인 상제임을 분명하게 하였다.³⁸

조선 건국 이후에도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양왕 3년의 법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명의 「대명률」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태조 4년(1395)에도 화장의 금지가 논의되었다.³⁹ 그러나 근 500년동안 유지되어 오던 화장이 근절될 수는 없었다.

1410년(태종 10)에 사간원에서 올린 시무관련 상소를 보면, 시체 유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지어 도성 안에서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 버리거나, 구항(溝巷)에 두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성부에서 오부(五部)로 하여금 수시로 묻어서 왕도(王都)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육전(六典)』에 실어 두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오로지 그 일을 맡게 하고 성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유기된 시체의 가족을 찾아 장사토록 하거나, 찾지 못할 경우 주변 열 집의 사람을 내어 그 시체를 매장하게 하였다. 만약 집안이 가난하여 사람이 죽어도 매장하지 못하는 자는 진고(陳告)를 허락하여 묻어 주어서 풍속을 후하게 하고 왕도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였다.⁴⁰

이러한 구휼적 장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불교식 화장법과 시체 유기는 세종대에도 지속되었다. 유교식 장례를 치르는 자가 겨우 10명중 3~4명에 불과하다고 탄식하는 기록이 있으며, 시체 유기에 대한 기록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⁴¹ 이어 1420년(세종 2)에 사헌부에서 올린 다음의 건의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p>“홍무 21년 사헌부의 受判인데, 장사(葬)한다는 것은 사람 시체를 갈무리[藏] 준다는 것이니, 그 해골을 감추어 밖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어늘, 요즈음에 불교도의 화장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 뜨거운 불속에 넣어서 모발이 타 고 살이 타 녹아 없어지게 하고 다만 해골만 남게 한다. 심한 자는 해골도 태워서 그 재를 뿌려 물고기나 날짐승에게 주고 말하</p>

35 『高麗史』 권121 열전34 孝友 尹龜生 “尹龜生 贊成事澤之子 累官判典農寺事 退居錦州 立祠宇 以朔望四仲俗節祭三代 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一用朱文公家禮 考妣祖考妣墓 立石誌其忌日 又於考墓立碑 墓南作齋室 刻高曾以下忌日子石 俾後世不忘”

36 『高麗史』 권121 列傳34 孝友 尹龜生

37 『尹澤墓誌銘』 “甲辰公年七十六 疾作乞歸錦州 以山水自娛者 七年而憂君之心 未嘗 食息忘 庚戌八月丙子 前子孫而訓之曰 吾正獻興寒地以清白忠直 名一時 吾先君 不幸早世 吾夙夜不克繼志 是懼誤 爲上知寵祿過望 年逾八旬 此皆先世潛德正獻清白之所遺也 若等其守之 母墜 我且死葬母 拘忌用浮屠”.

38 『高麗史』 권64 지18 禮6 凶禮 五服制

39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6월 28일 庚寅 “憲司上言 自今勿論時散 許終三年之喪 申明家廟之制 禁三日葬及火葬 一依三月踰月之制 下使司擬議以聞”

40 『太祖實錄』 권19 태종 10년 4월 8일 甲辰 “司諫院條陳時務八事, 下議政府擬議以聞…其五日 城中之死人 或棄之街路 或置之溝巷 誠不可忍見也 漢城府令五部陜卽埋置 肅清王都 六典所載盛朝之良法 今徒爲文具 可謂痛心 願別立一官 名之曰埋置院 專掌其事 周行城中 如有死而棄者 限相距十家 推其所從 得之則徵主家錢 以供埋置之資 不得則出十家人 以埋其屍 或家貧人死 不能葬者 許令陳告而埋之 以厚風俗 以清王都 議得 依六典施行 其中不用心考察 則憲司糾理何如?”

41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3월 5일 甲子 “通國喪制 令設水陸 其餘節目 一依家禮 蓋將漸次除治 必欲并其根抵而拔之也 士大夫上體聖意 喪制不用浮屠者 什已三四 而漸成風俗 我朝闢佛之化 超軼前古 奚啻萬萬而已哉 今之未盡剷除者 誠以消長有漸 不可猝變 然臣等竊念千五百年之弊俗 去之雖難 必世而仁之訓 著在聖經 苟不當其可去之機 拔本塞源 則又安知涓涓不絕 成他日之江河者哉”

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西方淨土에 갈 수 있다.’ 한다. 이 말이 한 번 일어나게 되

면서 士大夫의 고명하다는 사람도 모두 거기에 혹하여 땅에 장사하지 아니한 자가 많게 되었다. 아아, 참 심히 어질지 못한 일이다. . . . (중략) . . . 성인께서 세 치[寸]의棺에 다섯 치 槨으로 마련하면서도 오히려 속히 썩을까 염려하며, 斂衣는 수십 벌이면서도 그래도 박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였으며, 또 관속에 곡식을 넣으면 혹시 벌레나 개미가 침입할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送終하는 예절이 이와 같거늘, 도리어 변방 되놈의 아비 없는 가르침을 사용하려는 것이 仁한 일이라 이르겠는가. 원컨대, 지금부터는 일체 화장을 금하고 이 법을 범한 자는 죄를 주게 하고, 지방의 인민들은 부모의 장삿날에 이웃 마을 사람과 香徒 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 불러 조금도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예로서 풍속을 이룩하는데 뿔가 되는 것이 말할 수 없으니, 역시 모두 엄금하라 하였다.”⁴²

위의 내용은 왕명과 「대명률」의 강력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화장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으며, 부모를 화장하여 3년 동안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과 뼈를 태워 몰래 장사 지낸 사람, 장삿날에 이웃 마을 사람과 향도(香徒)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행위 등을 엄금한다는 것이다. 화장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자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이 시기에도 화장이 지속적으로 널리 행해졌다는 반증인 셈이다. 한편 승려의 다비나 먼 곳에 운구하기 어려워서 하는 화장, 버려진 시체나 전쟁에서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화장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 받았다.

이러한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이 줄어들지 않자, 1474년(성종 5)에는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되었다. 즉, 사헌부나 지방의 감사와 수령이 좀 더 엄하게 단속을 할 것과, 친족이나 가까운 향리로서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중죄를 주라는 것이었다.⁴³ 이로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자 화장이 줄어들게 되었다. 1492년(성종 23년)에는 “상례를 행하는 집에서 부도를 쓰는 자가 드물다”라는⁴⁴ 내용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15세기 말경에는 화장이 거의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14세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고려 관인(官人)의 화장은 15세기 후반에 들어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성리학과 더불어 『주자가례』의 정착을 의미한다. 때문에 조선 초기의 관인들은 부도(浮屠)에 의한 장법(葬法)보다는 시신(屍身)의 온전한 신전장(伸展葬)을 선호하였고, 이후 실록의 졸기(卒記)에도 부도법(浮屠法)을 쓰지 않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특히 고려때 대신(大臣)의 예장(禮葬)에 석실(石室)을 쓰던 것을 금지하고 『주자가례』에 따라 회격(灰隔)만 쓰게 한 1406년(태종 6)의 조처는 화장에 대신한 신전장을 시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⁵ 이러한 변화가 회곽묘(灰槨墓)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태조에서부터 문종까지의 능의 지하구조를 회격으로 사용하

42 『世宗實錄』 권10 세종 2년 11월 7일 辛未

43 『成宗實錄』 권41 성종 5년 4월 25일 己卯 “禮曹啓 今承傳敎 輪對者有言 近來愚民 或爲妖僧誑誘 或愛惜葬需 忍以親屍投火燒之 甚者身有疾病 乃以死者爲祟 至發(家)塚) 燒屍 傷風敗教 一至於此 廟痛禁之 其中申明科禁 以絕其風 臣等據此參詳 大明律 喪葬條 其從尊長遺言 將屍燒火者 杖一百 發塚條 若毀棄總麻以上尊長死屍者子孫毀棄祖父母父母死屍者斬 今也無識之徒 或怵於邪說 或愛惜其財 投諸火焰 以致親屍 人所不忍爲也 今後如有犯者 請依律論斷 其誑誘者與同罪 不能檢舉官吏及管領 里正切隣亦重論 從之”

44 『成宗實錄』 권271 성종 23년 11월 23일 庚寅 “士大夫家喪制 一從 朱文公家禮 罕用浮屠之法 其視高麗之俗 大相遠也”

45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윤7월 28일 乙酉 “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生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

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회곽묘라는 새로운 묘제가 사용된 것은 세조가 승하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시작되었다.⁴⁶ 1467년 조영된 세조의 광릉(光陵)이 석실 대신 광을 파고 상하 또는 네 면 모두 삼물회(三物灰)로 단단히 쌓는 회격으로 전환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장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체로 관도 없이 구덩이에 그냥 시신을 매장하는 토광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뿐 아니라 시신을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인적이 없는 곳에 방치해두는 풍장도 일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종 때 중국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다녀간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장사 지내는 기구가 없으면 들 가운데 버려두어 봉분도 하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으며 개미나 까마귀나 솔개가 파먹는 대로 놓아두되, 모두 이를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라고⁴⁷ 하여 당시 유기장(遺棄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무덤을 축조하고 꺼묻거리를 넣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신을 처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각 호(戶)의 노비들이 혹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도로에 버리며, 죽으면 또한 매장하지 않고 도리어 끌어다가 버려 육신은 못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니 진실로 불쌍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한 법률로 논한다”라고⁴⁸ 하여 법률에 따라 시신의 매장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1036년(정종 2)과 1101년(숙종 6), 1131년(인종 9)의 기사에 '완전히 썩어 백골이 된 뼈를 가리고, 아직 부패가 덜 된 시체를 묻어주었다[掩骼埋髒]는'⁴⁹ 내용에서도 흉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유기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반인과 전쟁 중에 죽은 주변국 군인의 경우도 국가에서 왕실의 재물을 내어 매장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장을 해 주도록 하였다.⁵⁰ 또한 매장에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주고, 5일에 배 1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⁵¹

무인집권기의 인물인 허공(許珙, 1233~1291)은 젊었을 때에는 항상 중 1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의 뼈와 시체를 파묻어주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서 내버린 시체를 보면 스스로 업어다가 묻어 주었다고 한다.⁵² 원래 이 일은 동서대비원이나 조선시대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 소속된 매골승(埋骨僧)이⁵³ 담당하였다. 즉, 내외(內外)의 길가에 해골이 드러나 있으면 개경(開京) 안에서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방외

	
46 『睿宗實錄』권1 睿宗 1년 1월 3일 戊午 “禮曹啓 世祖大王以園陵石室有害無益 遺命勿用石室及莎臺石 今於光陵已遵遺教 請於英陵亦依光陵制度 從之”	
47 『高麗圖經』권27 雜俗1 雜俗1 “至死 殮不拊棺 雖王與貴胄 亦然 若貧人 無葬具 則露置中野 不封不植 委蠮螋烏鳶食之 衆不以爲非”	
48 『高麗史』권85 志39 刑法2 禁令 “(忠肅王)後八年五月 監察司 勝示禁令…(중략)…各戶奴婢 役之甚苦 在所矜恤 或有病 不肯醫治 棄諸道路 死又不埋 轉相曳棄 肉餒群狗 誠爲可憐 今後 以重法論”	
49 『高麗史』권6 世家6 靖宗 2년 5월, 및 권11 世家11 肅宗 6년 4월 갑인, 권16 世家16 仁宗 9년 3월 癸亥	
50 『高麗史』권133 列傳46 禔王 3년 6월 “禔謂宰相曰 倭雖賊 其屍亦當瘞之 况我江華·西海之民 死於賊 暴露甚衆 豈可忍視 其出內帑錢布 以資掩埋”	
51 『高麗史』권40 世家40 恭愍王 12년 3월 乙巳 “命收瘞暴骸 廩埋者 日三食 五日給布一匹”	
52 『高麗史』권105 列傳18 諸臣 許珙 “珙性恭儉 不事產業 雖至達官 食不過一器 布被蒲薦 處之怡然 群居慎口 燕處不倚坐 如見大賓 少也 常率一僕 掩骼埋髒 殆無虛日 見弃屍 自負瘞之”	
53 『世宗實錄』권37 세종 9년 9월 1일 丙戌, “禮曹與漢城府同議啓埋骨僧勸勵事曰: “一 前定僧十名數少 今加定六名 屬東西活人院各八人 分掌五部及城底十里 給朔料鹽醬 春秋兩等 各給絁布一匹 一 令活人院官 考其勤慢 其中掩埋最多者 每年一人授職 一 掩埋勤慢及院官檢舉能否 令司憲府漢城府檢覈” 從之” 및 『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6월 22일 壬戌	

(方外)에서는 각 계수관(界首官)이 조사하여 수습하고 매장하도록 하였다.⁵⁴ 고려말 신문(辛旽)도 이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III. 고려시대 능묘제도

분묘는 봉분을 뜻하는 분(墳, 무덤 분)과 무덤을 뜻하는 묘(墓) 자가 합쳐진 명칭이다. 즉, 평장(平葬)을 의미하는 묘와 흙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봉긋하게 솟아난 무덤을 뜻한다. 따라서

분묘의 구조는 크게 외형적으로는 묘역시설(墓域施設), 봉분(封墳), 내부의 매장시설(埋葬施設)과 부장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능묘제도에 대한 자료는 경종과 문종 때 문무 관리의 묘의 규모와 도장(盜葬, 偷葬)과 벌목(伐木) 금지 규정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왕실의 상장례와 능묘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해 추측하고 있다.

	
54 “병오 병이 더욱 심해지자 왕은 神德殿에 거동하여 學士 金岳에게 명하여 遺詔를 起草하게 하였다.…(중략)…말을 마친 후 잠시 뒤에 훗서하였다. 왕위에 있는 지 26년이며 나이는 67세였다. 遺命에는 내외의 모든 관료가 모두 태자의 처분을 듣도록 하며, 장례와 무덤의 제도는 漢文帝와 魏 문제의 故事에 기대어 모두 儉約을 좇으라고 하였다.” ⁵⁶	

고려는 건국 초기만 해도 국상(國喪)에 대한 의식이 제정되지 않았다. 왕실에 흉사(凶事)가 있으면 임시로 옛날 중국의 예법서(禮法書)를 참고하고 또 통일신라 등의 예를 참작하여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태조 왕건이 943년(태조 26) 5월 29일 별세하면서 유조(遺詔)를 내려 ‘장례와 무덤의 제도는 한(漢) 문제(文帝)와 위(魏) 문제의 고사(故事)에 기대어 모두 검약(儉約)을 좇으라라 한 것을 고려 왕릉 묘제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사실 한나라 무제(武帝)가 즉위 후 이듬해부터 자신의 능원(陵園)을 장안성(長安城) 80리 밖 괴리현(槐里縣) 무향(茂鄉)에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5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경사(京師)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보언(主父偃)의 건의에 따라 각지의 호걸(豪傑) 300만 명 이상을 이주시켰다. 완공된 후에는 그곳 이름을 무릉(茂陵)이라고 개칭하였다.⁵⁷ 위나라 초대 황제 문제(文帝)는 즉위 3년에 자신의 능묘를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고금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파헤쳐지지 않은 무덤이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 안에는 값비싼 금은보화를 절대로 넣지 마라. 무덤이 파헤쳐지고 재물이 털리고 해골이 불태워진다면

	
54 『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文宗)十一年 下旨 內外街路 曝露骸骨 京內 東西大悲院 外方 各領界官 考察收拾埋瘞 又新羅·高麗·百濟先王塚廟 及古賢聖廟近處 禁耕稼侵毀”	
55 『霽亭集』권1 詩 辛旽 二首 “旽初爲埋骨僧 玄陵朝 濫受領都僉議 時人以老狐目之”	
56 『高麗史』권2 世家2 太祖 26년 5월 “丙午 疾大漸 御神德殿 命學士金岳草遺詔 …(중략)…言訖 有頃而薨 在位二十六年 壽六十七 遺命內外僚僚 並聽東宮處分 喪葬園陵制度 依漢魏二文故事”	
57 『漢書』권12 武帝 권6 劉徹, “夏 募民徙朔方十萬口 又徙郡國豪傑及嘗三百萬以上于茂陵” 列傳 권70 권65上 嚴朱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 34上, “僂說上曰：古者諸侯地不過百里 疆弱之形易制 今諸侯或連城數十 地方千里 緩則驕奢易爲淫亂 急則阻其疆而合從以逆京師 今以法割削 則逆節萌起 前日朝錯是也 今諸侯子弟或十數 而適嗣代立 餘雖骨肉 無尺地之封 則仁孝之道不宜 願陛下令諸侯得推恩分子弟 以地侯之 彼人人喜得所願 上以德施 實分其國 必稍自銷弱矣 於是上從其計 又說上曰：「茂陵 初立 天下豪桀兼并之家 亂衆民 皆可徙 茂陵 內實京師 外銷姦猾 此所謂不誅而害除 上又從之”	

	
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	
49	

이 어찌 두 번 죽는 고통이 아니겠는가?”라며⁵⁸ “과거와 현재에 도구를 면한 무덤이 없다”란 인식 속에 박장(薄葬)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려 왕실의 초기 상장례와 능묘제도는 사치스런 한의 능묘제도를 배제하고 위나라의 제도를 따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나라와 요나라의 제도도 참작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의 진전은 없다. 결국 고려의 왕실 능묘제는 통일신라와 고구려의 유제(遺制)와 함께 주변 중국의 영향 하에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려에서는 묘지에 대한 규제가 행해졌다. 그러나 『고려사』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문무반 품계별로 묘지의 면적과 봉토의 높이에 관한 것뿐이다. 976년(경종 1)과 1083년(문종 37)에 정해진 묘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⁵⁹

- ① “景宗 원년(976) 2월 文武兩班의 墓地를 정하였다. 1품은 사방 90步, 2품은 〈사방〉 80보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모두 1丈 6尺으로 하였다. 3품은 〈사방〉 70보에 〈봉분의〉 높이는 1장으로 하며, 4품은 〈사방〉 60보, 5품은 〈사방〉 50보, 6품 이하는 모두 〈사방〉 30보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8척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⁶⁰

- ② “禮曹에 명하여 각 品과 庶人의 墳墓에 대한 禁하는 바 限界의 步數를 詳定하였다. "1품의 묘지는 90步 平方에, 四面이 각 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평방이고, 서인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보수는 모두 周尺(약 21cm)을 사용한다. 四標 안에서 耕作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前朝 文王[문종]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⁶¹

즉, 고려는 경종 원년(976)과 문종 37년(1083년) 신분에 따라 무덤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①은 왕실의 능제의 규모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976년(경종 원)에 규정된 문무양반의 묘지의 면적은 1품은 방(方) 90보(步), 2품은 80보로 높이는 모두 1장(丈) 6척(尺)이며 3품은 70보에 1장, 4품은 60보, 5품은 50보 등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6품 이하는 모두 30보에 8척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는 1404년(태종 4)에 규정된 것이지만, 1083년(문종 37, 순종 1)에 규정된 묘지의 면적이다. 1품의 묘지는 90보 평방(平方)에, 사면(四面)이 각각 45보,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서인은 5보 평이었다. 높이의 규정은 976년의 내용과는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묘지에 대한 규정은 송나라 1품의 규모와 같지만 봉분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송나

-
- 58** 『三國志』魏書 권2 武帝紀 25年 春正月, “二十五年春正月…(중략)…庚子 王崩于洛陽 年六十六 遺令曰 ‘天下尚未安定 未得遵古也 葬畢 皆除服 其將兵屯戍者 皆不得離屯部 有司各率乃職 斂以時服 無藏金玉珍寶’ 諡曰武王 二月丁卯 葬高陵”
 - 59** 김광철은 『高麗史』 「刑法志」 禁令조의 내용은 唐律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첨삭하여 조문화 한 것으로 보았다. 즉, 「당률」에는 본래 盜耕人墓田에 대한 규정부터 나오고 있는데, 고려율에서는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축약했다고 지적하였다. 김광철, 2017, 『한국 중세고고학 연구와 문헌사료의 활용』, 『한국중세고고학』 2.
 - 60**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 方九十步 二品 八十步 墳高 並一丈六尺 三品 七十步 高一丈 四品 六十步 五品 五十步 六品以下 並三十步 高不過八尺”.
 - 61** 『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3월 29일 庚午 “命禮曹詳定各品及庶人墳墓禁限步數 一品墓地方九十步 四面各四十五步 二品方八十步 三品方七十步 四品方六十步 五品方五十步 六品方四十步 七品至九品方三十步 庶人方五步 已上步數 並用周尺 標內田柴火焚 一皆禁止 用前朝文王三十七年定制也”

라 1품에 비해 약간 낮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²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구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이하
976년(경종 원)	사방 면적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30보
	봉토 높이	1장 6척		1장			8척
1083년(문종 37)	사방면적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40보

일반민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6품 이하의 규모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종 때는 6품 이하 관인들을 6품과 7~9품으로 세분하고 새롭게 서인을 추가했다. 성종 9년(990) 효(孝)를 강조하면서 효자(孝子)와 효손(孝孫) 등을 표창했는데 이 중 부모의 묘를 조성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드는 자에게 관직과 품계를 내려 효도를 선양(宣揚)하도록 하였다.⁶³ 이는 일반 서민이 이때까지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서인들에게 분묘 조성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경종과 문종 때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매장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고려 전기부터 서인들에게도 무덤을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인들에게 무덤 축조를 허용한 것은 관리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품관의 마지막 단계인 7품~9품까지는 30보인데 서인은 5보로 규모가 매우 작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려는 일반 관인의 묘제의 규모와 크기의 제한과 함께 묘지 영역에 도장(盜葬, 偷葬),⁶⁴ 경작(耕作)의 금지가 엄격하였으며,⁶⁵ 이장(移葬)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반드시 마을의 이정(里正)에게 신고하도록 했다.⁶⁶ 또한 친족을 포함한 타인의 묘지 영역내에서 나무를 벌목할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운영하였다.⁶⁷ 그리고 무덤 주위에는 산이 둘러싸고 울창한 나무에 의해 비바람이 가려지는 곳을 선호하였다. 만약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었는데,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었다.⁶⁸ 여러 묘지명에서 묘소 주변에 울창하게 자라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의미한다.⁶⁹

- 이렇게 마련된 분묘의 관리 규제를 통하여 서경성(西京城) 안팎의 사원(寺院)과 사묘(祠墓)를 살펴 훼손된

-
- 62** 정해득, 2014, 『조선시대 墓制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 63**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9年 9월 丙子 “敎曰 凡理國家 必先務本 務本莫過於孝有全州求禮縣民孫順興 其母病死 畫像奉祀 三日一詣墳墓 饗之如生”
 - 64** 『高麗史』 권85 志39 형법2 禁令 “盜葬他人田 笞五十 墓田 杖六十 告里正移埋 不告而移 笞三十 盜耕人墓田 杖一百 傷墳者 徒一年”
 - 65**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斫伐他人墓塋內樹木者 一尺 杖六十 一匹 七十 二匹 九十 四匹 一百 五匹 徒一年 十匹 一年半 十五匹 二年 二十匹 二年半 二十五匹 三年 三十匹 流二千里 三十五匹 二千五百里 四十匹 三千 伐親屬墓內樹者 亦同”
 - 66** 『高麗史』 권85 志39 형법2 禁令. 김광철은 盜葬者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若不識盜葬者’ 즉 도장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본래 토지나 묘전의 주인에 대한 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불법적으로 묘를 쓴 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인을 위해 이장은 허락해야 하는데 지주가 이장할 때 먼저 이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당률에서는 지주가 이장할만한 곳이 없을 경우 지주의 口分田에 이장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와 같은 구분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율을 당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할 수 없었지만, 주인없는 불법 점거 분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광철, 2017, 『한국 중세고고학 연구와 문헌사료의 활용』, 『한국중세고고학』 2.
 - 67** 『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禁令
 - 68** “蔡諱仁範墓誌銘, “以其先塋之處 松楸則拂漢磨霄 雖云拱矣”
 - 69** 일반적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松楸]는 무덤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나무가 무덤 주변에 심어졌기 때문인데, 『詩經』 〈小雅〉 小弁에 “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하여 가래나무는 부모의 은혜를 공경함을 가리키며, 조상을 추모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

것들을 모두 수리하게 하거나,⁷⁰ 역대 공신의 분묘(墳墓)에서 나무를 하거나 가축을 놓아키르는 것을 금지하고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⁷¹ 이외에도 국가에서는 삼국시대 왕의 능묘를 각 주현(州縣) 소재에서 관리하고 초채(樵採)를 금지였으며, 하마(下馬)토록 하였다.⁷² 또한 관리 및 군인과 기인(其人)에게 부모의 묘소를 개장(改葬)할 일이 생기면 30일의 휴가를 주고 왕복 도정(途程)과 관청의 거리를 참작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⁷³

이와 같은 고려의 묘지 면적에 대한 규제 조치의 내용은 조선에서도 1404년(태종 4)에 그대로 준용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종친과 신하를 구분하여 종친을 우위에 두었다.⁷⁴ 즉, 종친 1품관을 100보로 정하였는데, 이는 송나라의 사후 봉군된 공신과 1372년 개정된 명나라의 제도와 같은 규모로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⁵

『경국대전』에 따르면, 종친에 비해 문·무관은 10보씩 줄어나갔는데, 7품이하의 관인과 생원 진사, 유음자제(有蔭子弟)는 6품과 같은 면적이며, 여자는 부직(夫職)을 따랐다. 관원이 되면 최하 40보까지의 묘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조선의 묘지 제한이 명나라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허용한 것이었다. 서인은 묘역의 주위가 9보인데, 천심(穿心, 관이 놓이는 자리)으로 계산하면 18보이다. 이와 같이 조선은 명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의 독자적인 묘제를 시행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묘지의 설치장소를 한양의 경우 성밖으로 10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인가(人家)가 있는 경우 100보 이내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⁷⁶

이러한 규정은 묘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묘지의 면적과 관련해서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송나라 진원정(陳元靚)의 『사림광기(事林廣記)』를 인용하여 “귀한 이는 친한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나, 친한 이는 비록 부자라도 귀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며, 멀리까지 생각하는 자는 규정보다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⁷⁷ 이는 법제적인 규정은 최대한의 면적으로 정한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규정보다 적은 면적에 묘소를 만들 것을 권장한 것이었다.⁷⁸

한편, 고려 왕실의 왕릉 관리는 제릉서(諸陵署)를 설치하여 관리와 이속(吏屬)을 두어 관리하도록 했다.⁷⁹ 제릉서는 목종(穆宗)이 처음 설치하여 산릉(山陵)의 수호를 맡아 보게 하였는데, 영(令)·승(丞)을 두었고, 문종(文宗)이 영 1인, 승 2인으로 정하였다. 신종(神宗)이 영을 참상질(參上秩)로 올렸는데, 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전의시(典儀寺)의 관할로 하였다. 전의시가 침원(寢園)과 조종(祖宗)의 분묘 가운데 훼손된 것은 담당하고 그 구조물을 새롭게 신축하고 분묘들은 다시 완전히 보수하며, 관리와 지키는 간수인호(看守人戶)를 설치하여 초채(樵

70	『高麗史』 권16 世家16 仁宗 14年 3월 “己巳 西京內外 老疾幼弱 不能自存者 量給米粥恤 又按行城內外寺院祠墓 曾經破毀者 並令修葺”
71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2년 1월 “甲申 宥二罪以下 又下旨曰 先祖苗裔 許初入仕 歷代功臣墳墓 禁樵牧 致祭祀”
72	『高麗史節要』 권3 顯宗 8년 12월 “敎 高句麗新羅百濟王陵墓 並令所在州縣修治 禁樵採 過者 下馬”
73	『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五服制 “靖宗三年正月 制…(중략)…又官吏及軍 · 其人等 有父母墳墓改葬者 給暇三十日 來往程途 其官遠近 參酌施行”
74	『大典會通』 禮典 喪葬
75	정해득, 2014, 「조선시대 墓制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76	『經國大典』 禮典 喪葬, “墳墓 定限禁耕牧 宗親則一品四面各限一百步 二品九十步 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 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文 · 武官 則遞減一十步 七品以下及生員 · 進士 · 有蔭子弟同六品 女從夫職 ○耕墾在葬前者 勿禁 ○京城底十里及人家百步內 勿葬”
77	『沙溪全書』 권29 家禮輯覽 喪禮, 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78	정해득, 2014, 「조선시대 墓制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79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陵署 “諸陵署掌守護山陵 穆宗朝 有諸陵署令 · 丞 文宗定 令一人秩從五品 丞二人從七品 神宗五年 陞令爲叅秩 忠烈王三十四年 忠宣爲典儀寺所轄 恭愍王五年 只置丞 仍從七品 十一年 復置令從五品 丞仍舊 吏屬 文宗置史六人 記官二人”

採)와 방화(放火)를 방지하도록 하였다.⁸⁰ 공민왕 때는 승만 두었는데, 뒤에 다시 영을 두고, 승은 그대로 하였다. 또 여러릉직(陵直)을 설치하여 잡권무(雜權務)로 하였다. 이속은 사(史) 6인, 기관(記官) 2인을 두어⁸¹ 왕릉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려사』 병지 위숙군(圍宿軍) 조에서 보이듯이, 59기의 왕릉에 위숙군을 두어 수위(守衛)하였다.⁸²

고려 역시 산릉제도(山陵制度)를 마련하여 왕릉의 조영을 담당하였을 것이나,⁸³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공민왕비인 노국공주의 장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80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2월 갑진 휘의공주(徽懿公主)가 홍서하자,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백관은 검은 관과 소복을 착용하였다. 빈전도감(殯殿都監) · 국장도감(國葬都監) · 조묘도감(造墓都監) 및 산소영반색(山所靈飯色) · 법위의색(法威儀色) · 상유색(喪帷色) · 이거색(轎車色) · 제기색(祭器色) · 상복색(喪服色) · 반흔색(返魂色) · 복완색(服玩色) · 소조색(小造色) · 관곽색(棺槨色) · 묘실색(墓室色) · 포진색(鋪陳色) · 진영색(眞影色) 등 13개의 부서를 두어 상사(喪事)에 관련된 일을 돕도록 하였고, 또 모든 관사에 제물을 차렸다.” ⁸⁴
81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2월 갑진 휘의공주(徽懿公主)가 홍서하자,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백관은 검은 관과 소복을 착용하였다. 빈전도감(殯殿都監) · 국장도감(國葬都監) · 조묘도감(造墓都監) 및 산소영반색(山所靈飯色) · 법위의색(法威儀色) · 상유색(喪帷色) · 이거색(轎車色) · 제기색(祭器色) · 상복색(喪服色) · 반흔색(返魂色) · 복완색(服玩色) · 소조색(小造色) · 관곽색(棺槨色) · 묘실색(墓室色) · 포진색(鋪陳色) · 진영색(眞影色) 등 13개의 부서를 두어 상사(喪事)에 관련된 일을 돕도록 하였고, 또 모든 관사에 제물을 차렸다.” ⁸⁴
82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2월 갑진 휘의공주(徽懿公主)가 홍서하자,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백관은 검은 관과 소복을 착용하였다. 빈전도감(殯殿都監) · 국장도감(國葬都監) · 조묘도감(造墓都監) 및 산소영반색(山所靈飯色) · 법위의색(法威儀色) · 상유색(喪帷色) · 이거색(轎車色) · 제기색(祭器色) · 상복색(喪服色) · 반흔색(返魂色) · 복완색(服玩色) · 소조색(小造色) · 관곽색(棺槨色) · 묘실색(墓室色) · 포진색(鋪陳色) · 진영색(眞影色) 등 13개의 부서를 두어 상사(喪事)에 관련된 일을 돕도록 하였고, 또 모든 관사에 제물을 차렸다.” ⁸⁴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장례와 관련된 13개 부서 가운데 산릉제도와 관련된 부서는 조묘도감(造墓都監)과 묘실색(墓室色)으로 보인다. 조묘도감은 릉을 전체 주관하는 관서일 것이고, 묘실색은 능의 내부인 묘실을 조영하는 임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83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4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5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6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7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8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89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0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1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2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3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4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5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6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7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8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99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100	“李茂芳을 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나라의 제도에 山陵의 묘도[隧]는 반드시 臺臣으로 하여금 서명하고 봉하게 하였는데, 세상에서 封墓官은 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대개 모두 피하고 꺼렸다. 이무방은 掌令으로서 正陵을 봉하였으니, 왕이 그를 가상하게 여기어 마침내 크게 임용하기에 이르렀다.” ⁸⁵

한편, 현재 우리는 고려시대 능과 분묘의 봉분 형태는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

80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復位年 11월 “辛未 王在金文衍家 百官會梨峴新宮 王下敎曰 … 一, 寢園及祖宗墳墓 務在敬崇 邇來有司怠慢 至有傾窺毀者 今特設典儀寺 全爲斯任 其寢園 一新營構 諸墳墓 更加完補 置看守人戶 禁樵採放火”
81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陵署
82	『高麗史』 권83 志37 兵3 圍宿軍
83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12年 5월 丁酉
84	『高麗史』 권64 志18 禮6 凶禮 國恤
85	『高麗史節要』 권29 恭愍王 23년 2월 “以李茂芳爲政堂文學 國制 山陵之隧 必使臺臣署名封之 世謂封墓官多不達 率皆避忌 茂芳以掌令封正陵 王嘉之 遂至大用”
86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諸陵直조

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	53
----------	------------------------	-----------

葬), 비바람을 맞아 부패되게 하여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풍장(風葬), 물속에 가라앉힘으로써 물고기에게 처리를 맡기는 수장(水葬), 사체가 급속히 부패하는 열대 지방의 화장(火葬)이 있다. 또한 땅을 파고 묻어 버리는 매장(埋葬)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생적이고 또 짐승들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 장법은 시신을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동안 안치(安置) 또는 매장하였다가, 유골(遺骨)을 수습하여 정식으로 안장(安葬)하는 방식이 선호되었겠지만, 고려시대의 장법은 시체를 바로펴묻기(伸展葬), 화장(火葬), 풍장(風葬) 등이 기록에 나타난다. 그 중 일반적인 것이 신진장과 화장이다. 풍장은 일부 서인층과 하층민이 사용한 방법으로 유행병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에 간혹 시신을 사실상 들에 내다버리는 유기장(遺棄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능묘는 구조에 따라 석실분과 석곽묘, 토광묘 3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무덤이 더 이상 중앙과 지방, 지배층 내 우열관계와 보다 확대된 사회 계층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물질 자료로의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말여초기에 등장한 새로운 묘제의 흐름 속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렵분(馬鬣墳)은 조선 중기까지 큰 틀에서 이어진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까지 지속되는 방형의 마렵분은 중세 분묘 문화 특성의 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사료의 부족과 함께 ‘중세 분묘 문화’를 이해 내지 규명하기 위한 몇 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중세 묘제의 외형(형태)의 문제이다. 봉분의 원형과 방형의 차이와 전형성이 어떤가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고고발굴 과정에서 묘제의 영역과 규모가 사전에 조사 적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묘제의 내부 구조의 변화와 기술적 문제(석실분-왕릉, 석곽분-상류 지배 및 고위 관인층, 석관(화장)의 유행 시기-묘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세 분묘 연구는 당대의 사생관과 아울러 피장자의 신분, 분묘 조성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의 고려·조선초 능묘에 대한 연구는 현존 분묘가 어느 곳에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묘가 언제 어떻게 조성되고 천장(遷葬, 移葬)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아마도 분묘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덜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끝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원형을 지닌 분묘의 실태 파악과 발굴조사 성과 집성을 통해 한국중세 분묘제 연구가 진전될 수 있는 기초작업도 필요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高麗史』·『高麗圖經』·『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成宗實錄』·『經國大典』
『龜亭先生遺稿』·『三灘集』·『沙溪全書』·『同春堂先生別集』·『澤堂先生別集』·『華西先生文集』

- 권두규, 2017, 「高麗時代 陵號 記載 樣式과 授與 基準」 『한국중세고고학』 1.
_____, 2019, 「고려 왕릉의 봉분 형태」 『한국중세고고학』 5.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정중수, 2005, 「상장례의 역사와 죽음관」,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金龍善, 1989,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東亞研究』 17.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 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35.
_____, 2015, 「고려시대 官人層의 임종 장소와 그 변화사에 대한 고찰」, 『東方學志』 172.
_____, 2015, 「고려전기 국왕 殯殿의 설치와 의례」, 『한국중세사연구』 43.
_____, 2016, 「고려시대 관인층의 빈소 설치장소와 그 변화상」, 『韓國史學報』 62.
_____, 2016, 「고려시대 관인층의 장례기간 분석 - 묘지명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教育論集』 59.
_____, 2016,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229.
안병우, 2003, 「고려말 어느 관료의 輪廻의 死生觀」,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출판부.
이상준, 2017,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 『중앙고고연구』 23, 중앙문화재단연구원.
_____, 2012, 「고려왕릉의 구조 및 능주(陵主) 검토」, 『문화재』 45-2.
이희인, 2004,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形과 階層」, 『韓國上古史學報』 45.
_____, 2007, 「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 『고고학』 6-1호.
_____, 2015,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仁川文化研究』 12.
_____,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鄭吉子, 1983,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 7.
정길자, 1985, 「高麗貴族의 組立式石棺과 그 線刻畫 研究」, 『歷史學報』 108.
정혜득, 2014, 「조선시대 墓制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_____, 2018, 「강화 고려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韓國中世考古學』 4.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 9~16世紀 墓域施設墳墓를 中心으로 -」, 『지역과 역사』 7.
_____, 2014, 「진주 평거동 고려 분묘군 재검토」, 『경남연구』 10.
_____, 2017, 「경남지방 묘역시설분묘의 현황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64.
崔在錫, 1984, 「高麗時代의 喪祭」,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한나래, 2008,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연구」, 『문화재』 41-1, 국립문화재연구소.
홍영의, 2017, 「고려시대 장묘제(葬墓制)와 봉분(封墳)의 형태」, 『韓國中世考古學』 2.
_____, 2019, 「조선시대 고려 왕릉의 현황과 보존 관리 실태-『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謄錄)』을 중심으로」, 『韓國中世考古學』 5.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

한서대학교 장 경 희

I. 머리말

II. 고려 국왕의 묘호와 왕릉의 능호

III.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IV. 고려왕릉 석물의 시기별 양식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5년간 존속하며 제1대 태조부터 제34대 공양왕까지 34명의 국왕이 다스렸다. 고려 국왕의 사후 왕릉을 조성할 때에는 전대인 신라나 발해의 토대 위에 같은 시기 중국 황제릉의 요소를 일부 수용하여 고려만의 독자성이 반영된 독특한 왕릉제도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왕으로 칭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로 자칭하는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체제를 추구하였던 고려는 황제국에 준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국왕의 묘호와 왕릉의 능호를 사용하였던 것에서 확인된다. 풍수사상에 의해 왕릉을 산기슭에 택정하였던 고려 왕릉의 여러 요소들은 고려가 멸망한 이후 조선왕릉에 대부분 수용되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왕릉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일제시대에 비롯되었으나 그때에 이미 도굴되거나 파괴되었다.¹ 해방 이후 1980년대 말 북한에서 고려왕릉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² 2000년대 들어 비로소 고려왕릉의 유형 분석이 본격화되었다.³ 남한에서도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도 2001년 이후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뤄졌다.⁴ 이를 토대로 고려왕릉의 내부 석실 구조에 관심을 갖고 능주를 비정하거나 현존 고려왕릉의 시기를 구분하는 연구까지 나아갔다.⁵

한편 고려왕릉의 석인상에 대해서는 2001년 임영애의 연구가 선구적이다.⁶ 이와 함께 강화도에 소재하고 있는 석물조각에 대한 양식 분석이 함께 이뤄졌다.⁷ 이후 북한 학계와 조사하여 『고려 왕릉』이란 책자를 펴내었다.⁸ 한편 고려왕릉과 비교되는 같은 시기 중국 송요금원의 황제릉을 현장 조사하여 석인상과 석수상의 양식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왕릉만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왕릉과 왕후릉에 붙인 능호에 대해 살펴보고, 현존하는 고려왕릉에 배치된 석물의 종별을 알아보고, 석수상과 석인상의 시기별 양식 특징을 밝혀보려 한다.

1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查報告書」, 『大正5年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고유섭, 1993, 「송도고적」, 『고유섭전집』4, 통문관, p.270; 김원룡, 1974,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192-193.

2 김중혁, 1986, 「개성일대의 고려 왕릉 발굴보고(1,2)」, 『조선고고연구』86-1,2호;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90-2호.

3 김인철, 2000, 「고려돌간혹무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00-4호; 김인철,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리창언, 2003, 「고려유적연구」, 백산자료원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강화석릉」

5 이상준, 2010, 「고려왕릉의 능주 재검토」, 『문화재』제29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265-299; 이상준, 2016, 「고려왕릉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pp.32-49.

6 林玲愛, 2001,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강좌미술사』vol.1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55-67.

7 한나래, 2008, 「강화 고려왕릉 석물 연구」, 『문화재』vol.41, 국립문화재연구소, pp.78-98.

8 장경희, 2008, 『고려왕릉』, 예맥.

9 장경희, 2013, 「고려 왕릉(중보판)」, 예맥, pp.24-41; 장경희, 2014.2, 「12세기 고려 ·北宋 ·金 황제릉의 연구」, 『東方學』제30집, 한서대 동양학연구소, pp.7-52.

Ⅱ 고려 국왕의 묘호와 왕릉의 능호

후삼국을 재통일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로 결정하여 선포할 정도로 자주적이었다. 당시 중국은 송과 요로 양분되어 있어 고려 태조는 대외적으로는 왕으로 칭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로 자칭하는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체제를 추구하였고, 황제국에 준하는 제도와 문물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자주성과 황제국으로서의 자긍심은 고려 국왕의 사후 황제에게만 올리는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를 갖추어 올린 것에서 찾을 수 있다.¹⁰ 우리가 흔히 왕건이라 부르고 고려를 건국한 제1대 국왕의 공식적인 명칭, 곧 묘호는 태조이며 그의 무덤은 현릉(顯陵)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려 태조는 스스로 천자(天子)를 자처했으며, 고려 광종 이후에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던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고려 국왕의 사후 국호(國恤)에 대한 예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고려시대 상례에 대한 일관된 체계가 『고려사』 편찬 당시에는 없었고, 예지(禮志)는 대부분 『상정고금예문』에 수록된 흉례에 대한 연대기적인 기록을 단편적으로 실었을 뿐 국상이 생기면 모두 임시로 일을 처리하고, 이를 마친 후 상장례를 기록하지 않아 의례서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¹¹ 다만 국왕은 죽기 전에 후계자의 문제라든가 상복을 입는 문제 그리고 장례절차의 간소화 등을 언급하였다.¹² 943년 고려 태조 또한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산릉을 조성할 때 한나라 문제(漢文帝)나 위나라 문제(魏文帝)의 산릉을 예로 들어 검소하게 조성하도록 하였다.¹³ 1046년 정종 승하시,¹⁴ 1083년 순종 승하시,¹⁵ 1122년 예종 승하시에 또한 산릉제도를 검박하게 하라고 유언을 했다.¹⁶ 고려 후기인 13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고종이 1259년 류경의 관저에서 죽으면서 산릉제도를 검박하게 하도록 유언을 내렸다.¹⁷

고려 국왕은 사후 왕릉에 묻기까지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이일역월법(以日易月法)’을 사용하여 27일여의 짧은 기간 동안 왕릉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고려왕릉은 규모가 작고 상설도 소략하게 제작되었다. 고려에서 국왕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부르는 명칭은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다. 태조(943)와 경종(981) 때에는 ‘원침(園陵)’이라 불렀고,¹⁸ 정종(1046)이나 순종(1083) 때에는 ‘산릉(山陵)’이라고도 불렀다.¹⁹

고려의 국왕은 제1대 태조부터 제34대 공양왕까지 34명이지만 조선 중기에 숙위군을 두어 지킨 고려왕릉은 59기였다. 이것은 고려 국왕릉 34기에 더하여 왕후릉, 태후릉, 그리고 왕의 생부를 추송한 추존 국왕릉까지 합친

¹⁰ 임민혁, 2010,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pp.27-30.

¹¹ 『高麗史』卷64, 禮26, 凶禮, 國恤. “高麗人不立國恤之儀 至國有大故 則皆臨時采掇附比以從事事已 則謂而不傳故 其見於史者特梗槩而已”

¹²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제29호, 한국중세사연구회, pp.270-275.

¹³ 『高麗史』卷2, 世家 第2, 太祖2, 26年 5月 丙午; 『高麗史』卷2, 世家 第2, 太祖2, 40年 12月; 『高麗史』卷64, 志18, 凶禮 國喪 太祖. “壬申 葬于顯陵 以遺命 喪葬園陵制度 依漢魏故事 悉從儉約”; 『高麗史』卷2, 世家 第2, 景宗, 辛巳 6年 7月 甲辰. “園陵制度 務從儉約”

¹⁴ 『高麗史』卷6, 世家 第6, 定宗, 丙戌 12年 5月 乙未. “遺命 山陵制度 務從儉約”

¹⁵ 『高麗史』卷5, 世家 第9 文宗3, 癸亥 37年 10月 乙未. “喪服之制 以日易月 山陵制度 務從儉約”

¹⁶ 『高麗史』卷14, 世家 第14, 睿宗3, 壬寅 17年 4月 乙未. “遺命 山陵制度 務從儉約”

¹⁷ 『高麗史』卷24, 世家 第24, 高宗3, 己未 46年 6月 壬寅. “遺命 山陵制度 務從儉約”

¹⁸ 『高麗史』卷2, 世家 第2, 太祖 2, 癸卯 26년 5월 丙午; 第3, 癸丑 40년 12월; 卷64, 志18, 凶禮 國喪 太祖. “園陵制度”; 『高麗史』卷2, 世家 第2, 景宗, 辛巳 6년 7월 甲辰. “園陵制度”

¹⁹ 『高麗史』卷5, 世家 第9 文宗3, 癸亥 37年 10月 乙未. “山陵制度”

숫자인 것이다. 특히 고려의 왕비는 사후 왕후의 휘호와 함께 능호를 붙였던 점이 주목된다. 제1대 태조비 중 신혜왕후 유씨처럼 국왕과 합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조의 여러 왕비 중 신성왕후 김씨처럼 별도로 무덤을 조성한 경우 정릉(貞陵)이라는 능호를 별도로 붙였다. 이렇게 조성한 왕후릉이 23기이다. 6대 경종비 현정왕후의 경우에도 능호는 원릉으로, 흔히 천추태후라 부르는 현애왕후의 경우에는 유릉으로 부르고 별도로 능묘를 조성하였다. 8대 현종비 원정후 화릉, 원성후 명릉, 원혜후 회릉, 원평후 의릉, 9대 덕종비 경성후 질릉, 10대 정종 용신후 현릉, 11대 문종비 인예순덕태후 대릉, 15대 명의태후의 승릉, 16대 예종비 경화후 자릉, 순덕후 수릉, 17대 인종비 공예태후 순릉, 20대 신종비 선정태후 진릉, 21대 희종비 성평후 소릉, 22대 강종비 원덕태후 곤릉, 24대 원종비 순경태후 가릉, 25대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 고릉, 27대 충숙왕비 명덕태후, 28대 충혜왕비 덕녕공주, 31대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 정릉과 순정후 의릉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경우 황후는 황제릉에 함께 합장되어 별도의 능호가 없다. 송대에 황제와 황후는 합장되지 않았지만 황후는 황제릉 구역 내 남쪽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능호를 붙이지 않고 후릉(后陵)으로 통칭되었다. 이렇게 왕후의 사후 무덤에 능호를 붙이고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고려만의 독자적인 특징이고, 이것은 조선 왕릉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고려의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에 죽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를 황제나 황후로 추존하여 묘호와 능호를 올렸다. 이 또한 이전의 신라나 발해와 다른 것이며, 같은 시기 중국의 송이나 금에서는 발견된다. 하지만 고려는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묘호와 능호를 붙이고 있어 고려만의 독자성을 엿볼 수 있다.

고려 태조의 부친인 용건은 897년 5월 금성군[현재의 철원]에서 사망하여 영안성 강변에 있는 석굴에 장사를 지냈다. 916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즉위하면서 아버지의 묘호는 세조 위무대왕으로 추존하고 어머니의 휘호는 위숙왕후로 추존하였다. 아버지의 무덤은 능호를 올려 창릉(昌陵)이라 추송하였고 어머니를 합장하였다. 고려 때에 세조 창릉은 태조 현릉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 항몽 기간 중에 강화도록 현릉의 채굴과 함께 옮겨졌다. 한편 고려에서는 태조의 조부모에게도 묘호를 올렸다. 왕건의 할아버지는 작제건인데 그는 의조로 추존하였고, 왕건의 할머니는 원창왕후로 추존한 것이다.

또 고려 국왕의 생부를 추존하여 묘호와 능호를 올렸다. 고려 제6대 성종은 자신의 혈연상의 생부를 추증하여 대종(戴宗)이라는 묘호와 태릉(泰陵)이라는 능호를 올렸으며 무덤을 봉릉하였다. 이것은 제8대 현종의 경우에도 이어져 그 또한 자신의 생부를 추증하여 묘호는 안종(安宗)으로 추존하였고 능호는 건릉(乾陵)으로 추봉하였다. 이렇게 생부를 추존하여 묘호와 능호를 추송하는 방식 또한 조선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 제9대 성종의 생부인 도원군(桃源君)이 1457년(세조 3)에 세자 신분으로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성종이 즉위한 뒤 의경왕으로 추존하였다가 1476년(성종 7)에 묘호는 덕종(德宗)으로, 능호는 경릉(敬陵)으로 추봉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같은 시기 송이나 요금 등과 마찬가지로 제1대 태조 이후 왕위를 계승한 국왕들은 종호를 묘호로 사용하여 종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제24대 원종까지는 묘호와 능호가 붙여져 태조 현릉, 원종 소릉 등으로 불렸다. 그러나 몽골 항쟁 이후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묘호가 바뀌게 되었다. 충렬왕부터 중국에서 시호를 내리게 되어[賜諡] 왕호 앞의 시자(諡字)에 원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충(忠)’자를 넣었다. 원은 고종과 원종에게도 시호를 추증하여 ‘충헌(忠憲)’과 ‘충경(忠敬)’이라 했으며,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 고려의 원종을 충경왕으로 부른 기록도 찾아진다. 원나라는 고려의 국왕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원의 부마국이 되었던 제25대 국왕부터는 묘호

를 붙이지 못하고 충렬왕처럼 “충○왕”으로 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왕의 사후 무덤에는 관습적으로 능호를 붙여 충렬왕 경릉, 충선왕 덕릉, 공민왕 현릉 등으로 불렸다. 고려 말 제32대 우왕, 제33대 창왕, 제34대 공양왕 등은 묘호 뿐 아니라 능호마저 붙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려의 제1대부터 제24대 원종까지 국왕의 사후 묘호와 능호를 올렸으며, 왕비의 경우에도 능호를 올렸다는 점, 그리고 태조의 부모와 조부모 및 국왕의 생부를 추존하여 묘호와 능호를 올려 총87의 능호를 가진 왕릉이 존재하는 점은 이전의 신라와 다른 황제국을 지향한 고려의 특성으로서 조선왕릉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하지만 무신난 이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 시기 왕릉의 조영이나 관리가 소홀하였고, 대몽 항쟁기에 강화도로 천도하여 개성 근교 뿐 아니라 강화에도 왕릉이 조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성으로 환도 이후 새로운 형식이 도입되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고려왕릉의 퇴락은 가속화되었고 상당수 왕릉은 능주를 잃어, 성종대 『여지승람』에는 고려왕릉 43기만 등재되어 있어 고려사에 능호가 올라있는 87기 중 1/2의 위치를 잃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거치면서 고려왕릉은 황폐해져 1662년(현종 3)에는 고려왕릉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통해 총43기에 표석을 붙이고, 3년 1회씩 확인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²⁰ 1867년(고종 4) 고려 왕릉으로 추정되는 57기에 표석을 세웠고, <고려현릉개수실기비>에 그 전말을 기록해 두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각종 기록이나 발굴에 의해 개성과 강화도 등지의 고려왕릉을 조사하였고, 북한에서는 보존급유적으로 22곳을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 6곳을 사적으로 지정하였다.²¹

〈표1〉 고려왕릉의 현 소재지와 지정현황

대수	묘호	능호	조성년도	소재지 <문헌>*	지정번호	현존여부
1	태조, 신혜후	현릉(顯陵)	943년	개성시 개풍군 중서면 고령리	국보179호	0
	신성후	정릉(貞陵)		개성시 판문군 화곡리	보존급573호	0
추존	추존 세조	창릉(昌陵)	897년	예성강 동안	보존급554호	0
2	혜종 의화후	순릉(順陵)	945년	개성시내 가하동	보존급946호	0
3	정종, 문공후	안릉(安陵)	949년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보존급552호	0
4	광종, 대목후	현릉(憲陵)	975년	개성시 삼거리	보존급555호	0
5	경종, 현숙후	영릉(榮陵)	981년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	보존급569호	0
	현종후	원릉(元陵)	1009년	장풍군 월고리 현화동	보존급571호	0
6	성종, 문덕후	강릉(康陵)	997년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보존급567호	0
추존	추존 태종, 선의후	태릉(泰陵)	969년	개풍군 해선리	보존급546호	0
7	목종, 선정후	의릉(義陵)	1012년	개성 동쪽<고려사>*		x
8	현종	선릉(宣陵)	1031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보존급547호	0
추존	추존 안종	건릉(乾陵)	1017년	장풍군 월고리 현화동	보존급572호	0
9	덕종	숙릉(肅陵)	1034년	개성 북쪽 교외<고려사>*		x
10	정종	주릉(周陵)	1046년	개성 북쪽 교외<고려사>*		x
11	문종	경릉(景陵)	1083년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보존급570호	0

²⁰ 「현종개수실록」권4, 현종 3년 8월 26일(병인); 『麗朝王陵謄錄』, 1638~1690년 편찬, 규2886, 규장각 소장; 「고려 왕릉」, pp.24~25; 「고려 왕릉」(증보판), pp.52~53.

²¹ 장경희, 2008, 앞의 책, pp.24~25; 장경희, 2013, 앞의 책, pp.50~51. <고려왕릉의 현존 소재지와 지정현황>에 의해 재편집하였고, 북한 소재지의 명칭은 2008년 현재 북한 현지 지명을 따랐다.

대수	묘호	능호	조성년도	소재지 <문헌>*	지정번호	현존여부
12	순종, 선희후	성릉(成陵)	1083년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보존급568호	0
13	선종, 사숙후	인릉(仁陵)	1094년	개성 동쪽<고려사>*		x
14	현종	은릉(隱陵)	1095년	개성 동쪽<고려사>*		x
15	숙종	영릉(英陵)	1105년	개성시 판문군 판문리 구정동	보존급569호	0
16	예종	유릉(裕陵)	1122년	개성시 개풍군 오산리	보존급1701호	0
17	인종	장릉(長陵)	1146년	개풍 청교리 장릉리<고려사>*		알수없음
18	의종, 장경후	희릉(禧陵)	1175년	개성 동쪽<고려사>*		x
19	명종, 의정후	지릉(智陵)	1197년	개성시 판문군 두매리 지릉동		알수없음
20	신종	양릉(陽陵)	1205년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	보존급553호	0
21	희종	석릉(碩陵)	1237년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사적 369호(남)	0
22	원덕태후	곤릉(坤陵)	1239년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사적 371호(남)	0
				개성시 금남면 현화리<고려사>*		x
23	고종	홍릉(洪陵)	1259년	강화군 강화읍 능내리	사적 224호(남)	0
24	순경태후	가릉(嘉陵)	1236년	강화군 강화읍	사적 370호(남)	0
25	제국대장공주	고릉(高陵)	1297년	개풍군 해선리	보존급545호	0
26	충선왕	덕릉(德陵)	1313년	개성 서쪽<고려사>*		x
27	충숙왕	의릉(懿陵)	1339년	개성 중서면<고려사>*		x
28	충혜왕	영릉(永陵)	1344년	개성		x
29	충목왕	명릉(明陵)	1349년	개성시 개풍군 연릉리	보존급549호	명릉때
30	충정왕	충릉(聰陵)	1352년	개성시 개풍군 오산리	보존급550호	0
31	공민왕, 노국대장공주	현릉(玄陵) 정릉(正陵)	1374년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국보123호	0
32	우왕	우왕묘	1389년	?		x
33	창왕	창왕묘	1389년	?		x
34	공양왕	고릉(高陵)	1392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강원기념171호(남)	0
				경기도 파주시	사적 191호(남)	0

Ⅲ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고려의 능지는 신라 말부터 유행한 풍수사상을 따라 용맥이라 부르는 산줄기 아래쪽에 남향하여 배치하였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고려 왕릉 또한 대부분 개경 근처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1대 태조 현릉부터 20대 신종 양릉까지 국왕과 왕후의 능은 총 38기인데, 개성 시내 송악산 북쪽과 시내에서 4km 떨어진 만수산의 남쪽 일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고려 이전 신라 왕릉이 대부분 평지에 조성되었으나 풍수도참설이 유행하면서 원성왕대부터 능지를 산 위에 선정하는 데 영향을 끼쳐,²² 고려대에는 태

²² 「三國史記」, 卷10, 元聖王 14年; 최병현, 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11, p.129.

조의 유훈으로 능지를 산에 정하고 왕릉을 산 중턱에 조영하게 된 것이다.²³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위치한 제1대 태조 현릉은 개성시 서쪽에 위치한 만수산 줄기에서 남쪽으로 뿔뿔하게 뻗은 능선에 조성되어 있다. 이 능선의 동서북쪽의 세 면은 만수산 꼭대기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언덕들에 의해 둘러막혀 있으며, 남쪽에는 넓지 않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능 앞쪽으로는 서쪽에서 시작된 개울이 평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곧 태조 현릉을 비롯한 고려 왕릉은 용맥이라고 부르는 산줄기의 아래쪽에 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왕릉의 뒤쪽에 주산을 두었고, 왼쪽에는 청룡[左靑龍], 오른쪽에는 백호[右白虎]가 되는 산맥이 돌아가고, 앞에는 주작을 이루는 안산(案山)이 위치하며, 물이 능의 오른쪽 계류에서 나와 능 앞으로 흐르며 능쪽을 흘러 생기를 가두는 지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 황제릉은 통일신라 말부터 유행한 풍수설에 영향을 받아, 장풍득수(藏風得水)의 형세를 지녀 북쪽과 동서쪽이 모두 산으로 막혀 있고 남쪽이 텅 남향으로 놓였으며, 동에서 서로 산을 감싸며 물이 흐르는 곳에 왕릉을 조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⁴

고려 때 국왕이나 왕후의 사후에 왕릉의 조영은 임시로 도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²⁵ 고려시대에는 빈전도감과 국장도감 등이 나타나며 왕릉을 조성하는 도감에 대한 기록 대신 개장후릉도감이나 영전도감, 혼전도감 등이 운영되었다.²⁶ 그러나 공민왕대 노국대장공주의 국장 때에는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조묘도감을 두었으며, 시신을 수습할 빈전도감과 국상을 추진할 국장도감 및 제사를 주관할 재도감을 두었다.²⁷

이렇게 왕후의 왕릉을 조성할 때의 상황은 조선 초기 제1대 태조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조성하거나, ²⁸ 제2대 정종비 정안왕후의 후릉을 조성할 때까지 이어졌다.²⁹

그러다가 제3대 태종비 원경왕후의 현릉을 조영할 때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재도감을 제외되었다.³⁰ 이후 세종대 오례에도 반영되었다.

도감의 하부 제작처로는 13색을 두었다. 왕릉을 만들 산소색, 식사와 음식을 만드는 영반법, 국장용 의장을 제작하는 위의색, 행사용 천막 등을 조성하는 상유색, 상여를 만드는 유거색, 제기를 만드는 제기색, 상복을 만들 상복색, 장사를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종묘로 모셔 오는 반혼색, 명기를 제작하는 복완소조색, 관곽을 만드는 관곽색, 무덤 내부를 조성하는 묘실색, 바닥의 지의나 자리를 제작하는 포진색, 진영을 그리는 진영색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³¹ 이러한 13색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국장도감과 빈전, 혼전도감, 산릉도감의 하부에 각방과 각소로 편입되었다. 왕릉의 조성과 관련되는 제작처는 산소색과 묘실색이었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에 폭넓게 채용되었던 황혈식 석실분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석실의 내외를 연결하는 연도는 점차 퇴화되어 없어졌다. 어쨌든 봉분 주위에 곡장을 두르고 병풍석에 12지신상을 새긴 호석을 두르고 석수

나 문무석인상을 배치하는 것은 전대 신라의 능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능역과 구역에 시설을 한 것은 발해의 능제를 발전시킨 것이고, 장명등이나 망주석을 추가하고, 제향을 위한 정자각을 배치한 것은 고려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고려왕릉의 능역은 동서방향으로 쌓은 석축대에 3-4단으로 구획하고, 제1단에는 주검을 모신 석실을 마련하고 그 위에 12각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른 봉분이 설치되고, 그 주위에는 석수를, 전면의 좌우에는 망주석을, 그리고 중앙에는 혼유석을 배치하였다. 제2단에는 중간에 장명등을 두고 그 좌우에 문인상 1쌍을 배치하며, 제3단에는 무인상 1쌍을 배치하였다. 제4단에는 정자각이 위치하였다. 현재 재실의 위치를 알 수 없으나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정릉을 조영할 때 충선왕의 덕릉에서 나무를 베어 재실을 짓는데 사용하였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재실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³²

예컨대 981년에 조영한 제5대 경종 영릉과 1352년에 조영된 충정왕 총릉의 유적을 비교해보면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왕릉의 능제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능침은 봉분을 중심으로 층단을 구분한 능계 위에 혼유석을 비롯하여 장명등과 망주석 등의 구성요소를 통합하였으며, 제향공간인 정자각을 두고 제사를 준비하는 재실을 두는 고려만의 특징적인 능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고려왕릉의 능제는 조선에 전승되어 조선왕릉의 상설제도의 원형을 갖추었다.

무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전대의 전통을 전승하면서 발전하는데, 고려왕릉이나 북송·요·금 황제릉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왕릉은 기존 신라 왕릉의 전통 위에 약간의 변화를 더하여 정형화되어, 가장 위쪽은 1단에는 봉분 뒤쪽에 곡장을 돌렸고, 장대석 위에 봉토를 만들고 주위를 12각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돌렸으며, 네 면에는 석수(석호와 석양)를 배치하였고, 앞쪽에 석상(혼유석) 1기와 망주석 1쌍을 배치하였다. 2단에는 석등(장명등)과 문석인 1쌍을, 3단에는 무석인 1쌍을, 제4단에는 제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정자각을 세웠다.

고려 왕릉의 능역은 지형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폭 10칸 내외, 길이 20칸 내외의 장방형의 땅을 3단으로 나누고 그 아래쪽에 정자각을 두었다. 경사진 산 중턱에 차츰 낮아지게 상중하, 삼층의 단을 쌓아 이른바 능전 3계를 이루었다. 각 층단은 상당히 높직하게 마련되어 중앙과 양쪽에 돌 계단으로 설치하여 경사가 완만한 통일신라 왕릉이나 조선 왕릉과는 대조를 보여준다. 지형에 따라서는 4단으로 단을 만들어 한단 낮춰서 정자각을 두기도 하고, 또는 2단으로 생략하여 석물과 같은 평면에 정자각을 두는 경우도 보인다. 고려 왕릉은 일찍부터 국왕들이 자신의 조상을 추모하는 시설로 여겼기 때문에,³³ 능 앞에는 왕의 휴식시설로 재궁(齋宮)을, 수호시설로 능사찰(陵刹)을 두었다.

제1단에는 높이 3-5m 정도의 봉분을 두었고, 좌우와 뒤쪽 세 방향에 돌담을 쌓았다. 봉토 아래에는 지대석, 면석, 우석, 만석, 인석으로 이뤄진 12각 병풍을 두르고 있었다. 면석에는 십이지신상을 조각하였는데, 홀을 들고 조복을 입은 문관의 모습을 하고 머리 위에 동물형 관을 쓰고 있었다. 그 밖으로 평행하게 각각 12개의 석주와 동자석주 및 죽석으로 이뤄진 12각의 난간을 설치하였다.

봉분 주위에는 석수를 배치하여 호위하는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왕릉에는 석사자를 배치하였는데, 고려 초기의 왕릉에서는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은 석사자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점차 내려가면서 고려 중기부터는 석사자 대신 석호가 등장하고 더 시대가 내려가면서 석양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확인된

²³ 마종락, 2006, 「고려시대 풍수도참과 유교의 교섭」, 『한국중세사연구』제21호, pp.298-299.

²⁴ 장경희, 2013, 앞의 책, p.56.

²⁵ 문형만, 1985, 「고려 諸司 都監 各色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²⁶ 이정훈, 2000, 「고려시대 도감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혜안, pp.242-243.

²⁷ 『高麗史』卷64. 「志」18. 禮6. 凶禮. 國恤. 恭愍王.

²⁸ 『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8월 14일(기해) 4도감 13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²⁹ 『태종실록』권15. 태종 8년 5월 24일(임신); 『태종실록』권23. 태종 12년 6월 25일(무인)

³⁰ 『세종실록』권8. 세종 2년 7월 19일(을유).

³¹ 『高麗史』卷89. 「列傳」第2. 后妃2. 魯國大長公主.

³² 『高麗史』卷41. 「世家」第41. 恭愍王15年.

³³ 허흥식, 2004, 「고려의 왕릉과 진전사원」,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pp.9-14.

다.³⁴ 고려왕릉의 석수상은 중국 황제릉의 석호와 석양이 능침 앞 신도의 좌우에 나란히 배치되는 것과 달리 서로 마주보게 배치된다.

〈표2〉 고려왕릉의 각종 석물

대수	묘호	능호	병풍석	십이지	난간석	상석	망주석	장명등	석수	석인	비석
1	태조	현릉(顯陵)	○	○	○	1	2	1	4	2	○
2	혜종	순릉(順陵)									
3	정종	안릉(安陵)	○	○	○	1		1	3		
4	광종	헌릉(憲陵)	○	○		1	2	1	4	1	○
5	경종	영릉(榮陵)	○	○	○				4	2	○
6	성종	강릉(康陵)	○			1	1		2		○
7	목종	의릉(義陵)									
8	현종	선릉(宣陵)	○	○	○	1	2	1	4	4	○
9	덕종	숙릉(肅陵)									
10	정종	주릉(周陵)									
11	문종	경릉(景陵)	○		○	1	2	1	4	4	
12	순종	성릉(成陵)	○		○	1			3	2	
13	선종	인릉(仁陵)									
14	헌종	온릉(溫陵)									
15	숙종	영릉(英陵)									
16	예종	유릉(裕陵)	○		○	1					○
17	인종	장릉(長陵)									
18	의종	희릉(禧陵)									
19	명종	지릉(智陵)									
20	신종	양릉(陽陵)				1				2	○
21	희종	석릉(碩陵)								2	
22	강종	후릉(厚陵)									
23	고종	홍릉(洪陵)								2	
24	원종	소릉(昭陵)	○	○	○	1	1	1	8	4	○
25	충렬왕	경릉(慶陵)									
26	충선왕	덕릉(德陵)									
27	충숙왕	의릉(懿陵)									
28	충혜왕	영릉(永陵)									
29	충목왕	명릉(明陵)	○	○	○	1		1	4	4	○
30	충정왕	충릉(聰陵)	○		○	1	2	1		4	○
31	공민왕	현릉(玄陵)	○	○	○	2	2	2	8	8	○
32	우왕										
33	창왕										
34	공양왕	고릉(高陵)	○	○	○	1	2	1	4	2	○

34 『麗朝王陵瞻錄』, 제19대 명종 지릉에는 양호석 4개가 있었다. 풍릉에 양마석이 있다고 한다.

봉분 앞에는 석상을 두었다. 초기의 것은 방향의 넓적한 형태였으나, 시대가 내려가면서 받침대는 낮아지고 그 받침에 4-5개의 고석 받침돌로 떠받치는 경향으로 바뀌어갔다. 석상의 양쪽에 망주석을 세우는 것은 통일신라 왕릉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려왕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상설이다. 이와 비교되는 것은 중국 황제릉에서 문 입구에 거대하게 세운 화표(華表)인데, 고려의 것은 4각이나 8각 기둥형에 끝을 뾰족하게 깎거나 둥글리는 형식이다.

제2단 중앙에는 4각 석등을 세웠다. 석등 양쪽이나 한단 낮은 3단에는 석인을 마주하여 1쌍으로 세웠다. 2단에는 문석인을, 3단에는 무석인을 세웠다. 제4단은 가장 아래쪽의 비교적 넓고 편평한 공간에 정자각을 세웠다. 현재 정자각은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초석이 박혀 있거나 기와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고려의 무덤 앞에 정자각이 조성되어 있는 것에 의해 고려왕릉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왕릉에 배치된 석물은 봉분 주위를 병풍석으로 두르고 그 위에 십이지신상과 난간석이 둘러졌으며, 그 앞에는 상석과 망주석 및 석등, 그리고 석수상과 석인상이 세워져 있으며 정자각터가 있다. 석물의 경우 상석은 1기, 망주석은 2기, 석등은 1기, 석수상은 석사자나 석호 및 석양이고, 석인상은 문석인과 무석인이다. 고려왕릉에 배치된 석조물의 종별은 석호 2쌍, 석양 2쌍, 석인 1쌍, 석상(石床) 1기, 망주석 1쌍, 장명등 1기로 모두 14개이다. 종류는 간소하고, 수량은 작은 편이다.

Ⅳ 고려왕릉 석물의 시기별 양식

34대 475년 존속했던 고려의 왕릉은 34명의 국왕과 왕후 및 추존왕까지 능호를 가진 독립왕릉을 조성하여, 현재 50여기가 현존한다. 능마다 배치된 1-2쌍의 석인상은 100점 이상이 유존한다.³⁵ 강화의 고려왕릉도 2007년 발굴 조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³⁶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과 공동으로 조사한 석인상의 실측치는 『고려왕릉』에 수록한 바 있다.

100여 점 이상 유존하는 고려왕릉의 석물 중 석수상의 경우 얼굴의 형태나 앉은 자세 및 등 뒤 꼬리의 표현 등에서 초기에는 석사자였다가 중기 이후 점차 석호로 이행되었고, 말기에는 석호와 함께 석양을 배치하여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석인상의 경우 관모와 홀의 표현 등에 의해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1. 1기 10-12세기 석인상

1대 태조 현릉은 현재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 5대 경종 영릉(榮陵)은 제2단에는 동서 양쪽으로 문석인 1쌍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머리에 쓴 관은 얼굴과 관의 높이가 1:1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통천관이나 진현관의 모습이고, 조복은 소매가 넓고 두 손을 내밀어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 두툼한 홀을 수직으로 잡은 모습이다.

이와 비슷한 석인상이 969년 추존 대종 태릉의 것으로 제2단과 제3단의 동서 양쪽 끝에 1쌍씩 4구가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 4대 광종 헌릉의 석인상은 머리 부분만 남은 1기가 유존하고, 5대 현종왕후 원릉의 석인상 1쌍

35 김인철, 2000, 앞의 책. 북한학계에서는 간단하게 석물의 현존 유무만 언급하고 있다.

36 한나래, 2008, 앞의 논문, p.94. 〈표 6〉 강화도 및 개성 소재 왕릉 석인상 비교표.

은 머리 부분이 파손된 채 몸체만 남아 전하고 있다.

선릉때 3기 중 8대 현종 선릉의 경우 2릉의 석인상은 진현관에 목관깃의 옷을 입고 수직의 홀을 든 모습으로 되어 있다.³⁷ 반면 1릉과 3릉은 진현관보다 양관에 가깝고, 목관깃의 조복 위에 홀을 갖과 평행하게 오른쪽 어깨 위로부터 사선으로 들고 있는 점에서 석조각의 양식은 시기가 내려가는 경향이 간취된다.

1대 태조 현릉부터 8대 현종 선릉으로 추정되는 선릉때 2릉을 비롯한 고려의 석인상들은 1품관에 해당되는 5량의 진현관을 착용하고 있었다. 진현관의 크기는 얼굴 길이만큼 길고 높았다. 석인상의 경우 두 손을 모아 홀을 수직으로 공손하게 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얼굴이나 신체가 둥그스름한 원통형인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능주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왕릉 석인상과 양식적으로 일치하여 고려 초기의 능호를 알 수 없는 국왕릉이거나 왕후릉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무신란 이후 왕권이 약화되어 무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던 왕릉 또한 여기에 해당되었다.

〈표3〉 고려왕릉 석인상의 형식 분류

분류	대수	연대	묘호 능호(*석사자)	문석인 (고; 머리파손)	높이	얼굴	
						너비	두께
1기 진현관 + 홀 수직	1	943	태조 현릉 ³⁸	1쌍 2기	242	46	44
	추존	969	추존대종 태릉	2쌍 4기	177.5	43	40
	4	975	광종 현릉	1기@	머리만 발견		
	5	981	경종 영릉	1쌍 2기	동 161.6	33	28.5
					서 161	33	28.4
	6	997	성종 강릉	2기(문석인)	서 156 26 24		
					1009	현종왕후 원릉	1쌍 2기@
	8	1031	현종 선릉 2릉*	2쌍 4기	2단 195	55.7	42
					3단 192	57.5	42.5
	12	1083	순종 성릉	1쌍 2기@	머리 파손		
					동구릉*	1기	
			소릉때 1릉	2쌍 4기			2단 178
					3단 180	30.5	40
			소릉때 3릉*	2쌍 4기 ³⁹	172	29	26
					소릉때 5릉*	1기	220
			랭정동 2릉*	1쌍 2기			동 175
					랭정동 3릉*	2쌍 4기	동 150
			서 150	38.2			
			7릉때 1릉*	1쌍 2기	179.5	35	34.5
			7릉때 2릉*	2쌍 4기	서 220	41.5	41.5
7릉때 4릉			1쌍 2기	2단 138	40	35	
7릉때 7릉	2쌍 4기	2단 210	60				
		3단 235	60				

³⁷ 장경희, 2013, 앞의 책, p.85, 그림 3. 〈양관을 쓰고 홀을 든 문석인〉 선릉때 2릉의 석인상은 2쌍 4기 중 2기는 홀을 수직으로 들고 있고, 나머지 2기는 사선으로 들고 있다.

분류	대수	연대	묘호 능호(*석사자)	문석인 (고; 머리파손)	높이	얼굴						
						너비	두께					
2기	20	1204	신종 양릉 ⁴⁰	1쌍 2기	동 158.2	46.2	38					
					서 158	46	38.1					
					21	1237	희종 석릉	1쌍 2기	138, 115	59, 68	40	
					22	1239	원덕태후 곤릉	3기	머리만 발견			
					25	1297	제국대장공주 고릉	2쌍 4기	345	70	35	
					29	1348	충목왕 명릉 2릉	2쌍 4기	180	30.5	22.6	
									2쌍 4기	동 172	37	31.5
										서 210		
									2쌍 4기	2단 212	36.5	40
										3단 199	35	34
				1기								
				2쌍 4기	178	39.5	33					
				2쌍 4기	2단 167	40	35					
2-2 복두+ 홀 사선	23	1259	고종 흥릉	2쌍 4기	110, 130	33, 49	19, 24					
					24	1236	순경태후 가릉	1쌍 2기	163, 155	42, 44	24	
							1274	원종 소릉 4릉	2쌍 4기	161	21	
3기 복두+ 홀 수직	30	1352	충정왕 총릉	2쌍 4기	서 200	25.6	25					
					31	1365-74	공민왕 현정릉	4쌍 8기	문1 340	141	140	
									문2 345	141.5	140.5	
									무1 345	123.5	770	
									무2 350	120	765	
									2쌍 4기	2단 210	24.7	25.3
										3단 201.5	24.4	25
									2쌍 4기	2단 189	40	

2. 2기 13세기 석인상

2기는 13세기이다. 1204년에 조영한 20대 신종 양릉을 비롯하여 강도시기 강화도에 조영한 고종이나 왕후릉이 해당된다. 당시 석인상은 2-1기에 해당되는 앞 시기와 2-2기에 해당되는 뒷 시기의 것으로 나뉜다. 2-1기의 것은 진현관 형식이면서 마치 위가 잘린 듯 낮다. 2-2기의 것은 복두 형식을 지녀 이후 3기로 이행되는 과도기 양식이다. 몸통은 이전 1기의 것이 원통형인 데 반하여 2기의 것은 직육면체형으로 편평한 것이 특징이다.

2기의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왕릉은 20대 신종 양릉이다. 양릉의 석인상은 제1층단에 해당하는 위치의 동서 양쪽에 1쌍 2기가 남아 있다. 두 석인상 모두 한 개의 통돌을 깎아서 만들었으며, 둘다 대석 위에 양관을 쓰고 단령의 조복을 입고 두 손을 모았는데 사선형의 지물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양릉 석인상은 둘다 목 아래 부분의 조

³⁸ 1대 태조 현릉을 북한에서는 새로 개축하면서 왕건왕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래의 왕릉을 지칭할 때에는 묘호와 함께 능호로 불려야 마땅하다.

³⁹ 소릉때 3릉에서는 해무리굽 천자가 발굴되었다.

⁴⁰ 20대 신종 양릉에는 석호와 함께 석양이 배치되어 있다.

복이나 의물을 잡은 두 손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상하로 배치되면서 세부 요소는 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깨 너비보다 앞뒤 두께가 얇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편평한 사각기둥형 양감을 엿볼 수 있고 조각적 묘사 또한 거칠고 조잡한 편이다.

신종 양릉에서 발견되는 양식적 특징은 강도시기의 석인상에서 확인된다. 이들 석인상들은 모두 사각기둥 형태에 하체의 표현이 거의 생략되었고 얼굴조각에만 신경을 썼다.

우선 2-1기는 양관을 쓴 관모 형식을 하고 있는데, 희종 석릉과 순경대후 가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21대 희종 석릉은 강도시기 4기의 왕릉 중 가장 이른 예이다. 석릉 석인상은 강도시기의 석인상 중에서도 크기가 작아 138cm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2기의 석인상은 신종 양릉과 마찬가지로 1기는 높이가 낮은 진현관을,⁴¹ 나머지 머리가 잘린 1기는 동자상처럼 되어 있다. 둘다 얼굴 부분만 약간 입체적으로 새기고 목 아래 단령이나 홀을 사선으로 들고 서 있는 몸체 부분은 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각 기둥형 양감을 보이는 양식적 경향까지 일치한다.

2-2기는 강도시기의 고종 흥릉과 개성으로 환도한 원종 소릉의 석인상이 해당된다. 이것들의 관모는 복두인 것이 이전과 달라진 형식이며, 전체적으로 납작한 사각 기둥형인 점은 2-1기의 양식과 공통된다. 시기가 앞서고 능주가 밝혀진 것은 23대 고종 흥릉이다. 흥릉의 석인상은 앞서 살펴본 2-1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사각 기둥형인 점은 똑같으나, 머리에는 이전의 진현관 혹은 양관과 달리 복두를 착용하고 있는 점이다. 복두는 원 간섭기 내내 이어져 원종 소릉부터 14세기 고려왕릉 3기에 해당되는 충정왕 및 공민왕릉까지 이어진다.

개성으로 환도한 이후 1274년 조영된 원종 소릉은 5기의 소릉 때 중 4릉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1릉은 진현관에 환미감이 있고, 2릉도 5량의 진현관을 썼으며, 3릉에서는 해무리굽 청자가 발굴되고 석사자가 발견되었고, 5릉 또한 석사자가 배치되어 이전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4릉에는 2쌍 4기의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5기의 왕릉 중 가장 크기가 작은 161cm이다. 석인상 4기는 모두 복두를 쓰고 사선형 의물을 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납작한 사각 기둥형으로서 강화도의 고종 흥릉과 친연성을 보인다. 이곳에 위치한 5기의 왕릉 중에서 양식적으로 2-2기에 해당되는 곳을 원종 소릉이라고 볼 수 있다.

3. 14세기 석인상

3기는 14세기이다. 능주가 밝혀진 왕릉으로는 1352년 조영한 30대 충정왕 총릉과 1365년부터 1374년까지 조영한 공민왕의 현릉과 노국대장공주 정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1352년에 조영된 30대 충정왕 총릉에는 제2단과 제3단의 동서 양쪽에 석인상 1쌍씩 총 2쌍 4기의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2단의 서쪽에 서 있는 석인상은 높이 200cm로서 2기의 것보다 키가 커 늘씬해졌다. 석인상의 얼굴 너비는 25.6cm이고 얼굴 두께는 25cm로서 둥그스름하고 석인상의 앞뒤 두께도 두툼하여 환조감을 주고 있다. 어깨 폭보다 넓게 공복 밑의 너비는 59cm이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31대 공민왕은 1675년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한 이후 공민왕이 정릉을 조영하였으며, 자신의 사후 안식처를 수릉(壽陵)으로서 조영한 것이다. 이처럼 공민왕의 현릉과 노국대장공주의 정릉은 이전 시기의 왕릉과 여러 모로 다

르다. 우선 모든 고려 왕릉이 합장릉이든 단일릉이든 단릉 형식인데 비해 국왕과 왕후가 나란히 묻히는 쌍릉 형식으로 조영하므로써 석인상의 숫자나 내용이 달라졌다. 고려왕릉의 석인상은 그 숫자가 평균 2쌍 4기이었는데, 현정릉에 이르러 4쌍 8기로 2배가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현정릉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고려왕릉의 석인상들은 복두를 쓰고 공복을 입은 문석인 위주였다. 이전 시기인 통일신라의 석인상조차 문석인과 함께 무석인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왕릉은 양관조복이나 복두공복의 문석인상만 배치하였다. 그러나 현정릉에 이르러 고려왕릉 2-2기 이후 유행한 복두공복의 문석인상과 함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착용한 무석인상을 함께 배치한 것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다. 이들 문석인상과 무석인상은 수량만 2배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이에 따라 세부 묘사를 달리하여 청년상 2기와 노인상 2기를 각각 배치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

현정릉 다음으로 큰 것은 25대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공주의 석인상으로서 330cm였다. 고려왕릉 1기에 해당되는 태조 현릉의 석인상으로서 242cm여서 크기로 미루어 고려 전기보다는 말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각적인 면에서 볼 때 현정릉의 석인상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기의 석인상은 원통형의 환조감을 가지고 있다가 2기의 왕릉은 사각기둥형으로 바뀌었는데, 3기에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새겼다.

한편 능주를 알 수 없는 고려왕릉 중에서 30대 충정왕 총릉과 31대 공민왕 현릉의 석인상과 비견할만한 것이 있어 이 시기로 비정할 수 있다. 바로 7릉때의 7기 중에서 7릉때 3릉이나 7릉때 6릉의 석인상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둘다 2쌍 4기의 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복두공복을 착용하고 있다. 크기 면에서 7릉때 3릉은 201.5-210cm이고 7릉때 6릉은 189cm로서 1기와 2기의 것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각적인 면에서 보면 1기와 2기의 고려왕릉에서 볼 수 없는 환미감과 섬세한 세부 요소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중 7릉때 3릉의 경우를 살펴보면 2쌍 4기이며 모두 복두공복을 착용하고 있고 2m 이상으로 크기도 크다. 더욱이 석인상 4기 중 2기는 젊은 청년상인데 능침 가까운 2단에 배치하였고, 나머지 2기는 수염을 기른 노인상인데 아래쪽의 3단에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청년상과 노인상의 배치는 공민왕의 현정릉에서는 능침 가까운 2단에 나이 지긋한 노인상을, 조금 먼 쪽에 청년상을 배치한 것과 달라진 점이다. 4기 석인상의 얼굴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개성이 없는 편이며 대체로 폭이 좁고 날씬하며 유난히 귀가 커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4인의 석인상은 머리에는 복두를 썼는데, 뒷 쪽을 보면 각(角)이 X자형으로 꺾여 있으며 복두 아래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질한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얼굴의 표정이나 복두의 형식 등은 공민왕 현정릉과 유사하다.

이처럼 7릉때 3릉은 크거나 수량이나 조각적인 면에서 30대 충정왕 총릉과 31대 공민왕 현릉과 양식적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해당되는 국왕 중 지금까지 능주가 밝혀지지 않은 국왕은 25대 충렬왕 경릉, 26대 충선왕 덕릉, 27대 충숙왕 의릉, 28대 충혜왕 영릉 등이 있다. 이들 중 전자의 2기는 개성부 서방 12리에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총릉과 현릉이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에 가깝다. 지리적 위치로 미루어 7릉때 3릉은 충렬왕 경릉이나 충선왕 덕릉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개풍군 해선리에는 25대 충렬왕의 몽골왕비인 제국대장공주의 고토가 위치하고 있어, 양식적으로나 위치적인 접근성으로 보아 7릉때 3릉은 25대 충렬왕 경릉이 아닐까 생각된다.

⁴¹ 한나래, 2008, 앞의 논문, p.93. 이것을 외룡관으로 보는 연구도 있으나 그것은 능묘 앞 석인상이 착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논외로 한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왕릉의 제도와 석물의 양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려왕릉은 신라나 발해의 왕릉형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만의 독자성을 지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고려의 자주성은 중국의 황제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묘호와 왕릉의 능호를 붙였으며, 국왕릉 뿐 아니라 왕후릉에도 능호를 붙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고려는 풍수사상에 의해 능지를 선택하고, 능역을 구분하여 봉분을 두고 석수상을 배치하고, 1단에는 석상과 망주석을, 2단에는 장명등과 석인상을, 3단에는 정자각을 세우는 능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고려왕릉의 요소들은 조선왕릉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음을 밝힐 수 있었다.

고려왕릉의 석수상과 석인상은 3시기로 나누어 양식적인 변천과 특징이 발견되었다.

1기는 1대 고려태조 현릉부터 12대 순종 성릉까지이며, 선릉때 2릉, 동구릉, 소릉때 3릉, 소릉때 5릉, 랭정동 2릉, 랭정동 3릉, 7릉때 1릉, 7릉때 2릉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석사자가 배치되었고, 석인상은 진현관에 공복을 입고 홀을 든 문석인이 배치되었다.

2기는 13세기이며, 20대 신종 양릉부터 강도시기에 해당되는 21대 희종 석릉, 22대 원덕태후 곤릉, 25대 계국대장공주 고릉, 명릉때 2릉 등이 해당된다. 이 시기 석수상은 석사자 대신 석호를 배치하였고, 석인상은 양관을 착용하고 홀을 비스듬히 든 문석인을 배치하였다.

3기는 14세기로 강도시기의 제23대 고종 흥릉과 24대 원종비인 순경태후 가릉, 환도 이후 개성시기의 30대 충정왕 총릉, 31대 공민왕 현릉과 노국대장공주 정릉, 소릉때 3릉, 7릉때 3릉 등이다. 이 시기 석수상은 석호와 석양을 배치하고, 석인상은 각진 복두를 착용하고 홀을 든 문석인과 칼을 무석인이 배치하였다.

참 고 문 헌

『현종개수실록』

『高麗史』

『三國史記』

『세종실록』

『麗朝王陵謄錄』

『태조실록』

『태종실록』

고유섭, 1993, 「송도고적」, 『고유섭전집』4, 통문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강화석릉』.

김원룡, 1974,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인철, 2000, 「고려돌간혹무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00-4호.

_____,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제29호, 한국중세사연구회.

김종혁, 1986, 「개성일대의 고려 왕릉 발굴보고(1,2)」, 『조선고고연구』86-1,2호.

리창언, 2003, 『고려유적연구』, 백산자료원.

마종락, 2006, 「고려시대 풍수도참과 유교의 교섭」, 『한국중세사연구』제21호.

문형만, 1985, 「고려 諸司 都監 各色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 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90-2호.

이상준, 2010, 「고려왕릉의 능주 재검토」, 『문화재』vol.29,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6, 「고려왕릉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이정훈, 2000, 「고려시대 도감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의 구조와 발전』, 혜안.

임민혁, 2010,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林玲愛, 2001, 「開城 恭愍王陵 石人像 研究」, 『강좌미술사』vol.1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장경희, 2014.2, 「12세기 고려·北宋·金 황제릉의 연구」, 『東方學』제30집, 한서대 동양학연구소.

_____, 2013, 『고려 왕릉(증보판)』, 예맥.

_____, 2008, 『고려왕릉』, 예맥.

최병현, 1975,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연구』11.

한나래, 2008, 「강화 고려왕릉 석물 연구」, 『문화재』vol.41, 국립문화재연구소.

허홍식, 2004, 「고려의 왕릉과 진전사원」,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 집문당.

今西龍, 1916, 「高麗諸陵墓調查報告書」, 『大正5年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주 영 민

I. 머리말

II. 개념과 현황

III. 유형분류와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는 호칭과 상징이 있다. 호칭은 화자가 대화의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넓은 의미로 상대를 가리키는 지칭어를 포함한다. 호칭은 소리로 표현되어 멀리서도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함이 있는 반면 복식 등으로 대변되는 외연적 상징체계와 부합되었을 때 신뢰성이 확보된다. 그렇게 때문에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의 차등은 각각의 지위와 권위에 부합되는 상징체계를 달리하며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生者의 신분을 호칭과 외연적 상징체계로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死者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무덤으로 대변되는 외연적 상징체계가 대표적이다.

지배층의 무덤¹은 고려 이전은 古墳으로 총칭되며, 봉분을 중심으로 일정 면적의 구역을 설정하고 전면에 비석과 상석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던 반면, 통일신라 후기부터는 봉분에 12지상 등을 치석한 호석을 돌리고 자연 상태의 경사면에 석수·석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된다.² 고려시기에 들어서면 개성과 근기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묘역을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공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단차를 두고 묘역을 축조하고 가장 위쪽 단에는 곽장과 매장주체부를 조영하고, 그 아래로부터 석수·석인석 등의 시설물을 정연하게 배치하여 망자를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墓域施設墳墓³가 등장한다. 이러한 분묘 조영의 배치는 가장 아랫단에서 봉분을 바라보았을 때 시각차를 이용해서 엄숙함과 위압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배치 형태로 고려시기에 발생해서 조선 임진왜란 이전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시대 분묘 연구에서 묘역에 대한 인식은 늦어도 2002년부터 북한 연구자인 김인철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⁴ 김인철은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돌칸흙무덤과 돌곽흙무덤⁵의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되고 고려 이전 시기의 무덤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매장주체부를 석실로 조영한 돌칸 흙무덤의 피장자를 왕과 왕족으로 비정하였고, 돌곽흙무덤은 피장자로서 문하시랑평장사 유방현(944~1009), 금오위대장군 송자청(?~1198),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허재(1062~1144), 상서좌승 함유일(1106~1185) 등 8명을 거명하며 관인들이 사용한 분묘로 비정하였다.

이와 같이 김인철은 매장주체부의 축조 방법을 근거로 석실묘를 석곽묘보다 상위 묘제로 설정하고, 새롭게

¹ 고분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건국부터 대형분묘[高塚古墳]의 축조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지배층 무덤을 지칭하는 용어로, 규모가 큰 삼국시대 무덤에 대한 명칭으로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어 고려시대 무덤에 대한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묘로 통일하여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² 홍보식, 2018, 『통일신라 왕릉에서 고려 왕릉으로의 변화』,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³ 묘역시설분묘의 시원적 형태는 용인 마북리 분묘군(2) 7호 무덤의 예에서와 같이 원형봉토에 호석을 두르고 전방에 참배단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방형대석이 설치된 분묘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분묘는 전라도 지방의 수천리 분묘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천리 분묘군에서 확인되는 분묘는 석곽묘와 매장주체부에 원형호석이 설치된 것과 방형대석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유구의 중복으로 살펴본 선후는 원형호석 설치 분묘, 방형대석 설치 분묘, 석곽묘 순서이다. 석곽묘에서는 해무리급 자기가 반출되어 조영연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원형호석과 방형대석이 설치된 분묘에서는 출토유물이 없어 연대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흥 하방촌 분묘군의 조사로 연대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흥 하방촌 분묘군에서 확인되는 석곽묘는 매장주체부에 원형호석이 설치된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전자는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후기의 석곽묘로, 수천리 분묘군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하다. 후자는 수천리 분묘군 석곽묘 출토 철화청자반구병과 동일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동시기의 유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수천리 분묘군의 방형대석이 설치된 분묘의 조영연대는 통일신라 후기 이후로 보인다.

⁴ 김인철은 石室墳의 墓域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묘역은 3~4단으로 구분되며 제1단에는 봉분이, 봉분 둘레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주변에 곽장을 설치한다. 2~3단에는 문·무인석과 장명등, 상석을 설치한다.”고 설명한다. 이희인 역시 김인철의 주장과 동일하게 墓域施設을 이해하고 있다. 김인철, 2002, 『고려무덤에 관한 연구』, 『평양일대의 벽돌간무덤, 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pp.117~124. 李義仁, 2002, 『中部地方 高麗時代 古墳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21.

⁵ 돌곽흙무덤은 매장주체부의 표현이 다소 모호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화장한 경우에는 조립식석관을, 화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장한 묘역시설을 단순히 묘역의 경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묘역시설분묘를 별도의 묘제로 분류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묘역시설분묘에 대한 연구는 2005년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⁶

최근까지 고려시대 墳墓에 대한 유형분류는 삼국시대 고분연구를 차용해서 단순히 분묘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지만, 최근에는 매장주체부의 조영방식에 따라 土壙墓와 石槨墓로 대별하고, 여기에 墓域施設이 설치된 분묘를 추가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있다.⁷ 이러한 방법론은 앞선 연구에 비해선 진일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상위 묘제로서 명시되어 있는 묘역시설분묘를 토광묘와 석곽묘에 종속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단순히 매장주체부의 조영방법에 따라 석실묘=왕실묘, 판석조석곽묘=귀족계층, 할석조석곽묘=하급지배층(하급관리 및 향리), 토광묘=지방부호층·향리 및 농민·상공인 층으로 계층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근자의 분묘유형의 분류에 의하면 묘역시설분묘의 사용계층에 관인과 농민·상공인 층이 모두 포함되고 있어,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간 시도된 고려 분묘 유형분류 방법은 최상위 속성으로 매장주체부를 구분하고, 분묘 외형에 따라 單獨墓槨과 墓域施設로 세분한다. 특히, 묘역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묘의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와 방법에 따라 피장자의 신분계층을 비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분류 방법은 묘역시설분묘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와 방법 그리고 부장유물을 가지고 被葬者의 신분과 경제적 우열을 가리기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월동 분묘유적에서 석곽묘와 토광묘의 조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능선은 두 묘제의 출토유물이 동일하고 서로 중복⁸되어 있어 석곽묘 피장자가 토광묘 피장자의 보다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묘역시설분묘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속성을 묘역시설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기 범제화된 묘역시설분묘 제도가 조선에 계승되어 변모된 양상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2005년 필자가 처음 시도한 묘역시설분묘 연구를 2017년 연구 보고한 여말선초 경남지역 묘역시설분묘 연구⁹ 성과와 보태어 보완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 현황을 소개하고 새롭게 확인된 묘역시설분묘 유형을 추가하여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를 실시하고 그 변천과 특징을 논술하여 보고자 한다.

⁶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지역과 역사』17, 부경역사연구소.

⁷ 주) 4의 「中部地方 高麗時代 古墳 研究」, 李義仁의 유형구분에 의하면 石槨墓-Ⅱ유형, 土壙墓-Ⅱ-1, Ⅱ-2유형이 官人墳墓에 해당된다.

⁸ 충주박물관,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⁹ 주영민, 2017, 「경남지방 묘역시설분묘의 현황과 특징」, 『한국민족문화』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Ⅱ 개념과 현황

1. 개념

고려시대 분묘유적 중에는 이전의 고분들과는 외형이 다른 묘역시설이 설치된 분묘가 확인된다. <표 1>은 고고학조사에서 피장자가 밝혀진 분묘를 제시한 것으로, 발굴조사된 것은 가락 허시중공 무덤·밀양고법리벽화묘·파주서곡리 고려벽화묘 등으로 매장주체부는 석실·석곽으로 조영되어 있다. 피장자는 모두 관인들로 이들이 사용한 분묘 외형은 單獨墓槨 주변에 묘역시설을 설치한 형태로 피장자의 品階에 따라 묘역시설의 규모가 차등을 보인다. 매장주체부가 미조사된 관인분묘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관인분묘의 외형은 장방·팔각·원형 호석을 두르고 전면에 묘역시설을 설치했다.

둘째, 관품의 차등에 따라 참배단의 단수와 묘역시설의 넓이와 매장주체부의 조영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4세기경부터 합장묘와 동일가계의 集團墓域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1> 피장자가 확실한 관인분묘 제원

연번	유적명	매 장 주 체 부	묘역시설		높이	호석	관품 (생전/사후)	연대 ¹⁰
			담장 (곡장)	참배단				
1	가락허시중공(허유전) 무덤	석곽묘	256.0㎡	144㎡ / 2단	0.67m(석곽)	장방형	정1품	1324년
2	밀양고법리 벽화묘 (박익묘)	석실묘	107.0㎡	55.8㎡ / 1단	4.20m	장방형	총1품/정1품	1420년 ¹¹
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권준묘)	1호 석실묘	124.6㎡	112㎡ / 3단	3.33m	장방형	정2품	1352년
4	홍원현감 김지 묘	미조사	70.0㎡	130.0㎡ / 2단	1.49m(봉토)	장방형	총6품	1437년
5	김지부인 횡성고씨 묘	미조사	78.9㎡	無	1.56m(봉토)	장방형	미상	1437년 이전
6	통정대부 김자흠	미조사	90.8㎡	65.7㎡ / 2단	1.48m(봉토)	장방형	3품	1479년
7	김자중·경주최씨 합장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26m(봉토)	방형→원형 ¹²	미상	15세기 후기
8	성균생원 최세창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1단	1.33m(봉토)	장방형	미상	15세기 중기
9	성균생원 최세창 처 강릉김씨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2단	1.32m(봉토)	장방형	미상	15세기 중기
10	장사랑 최양홍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20m(봉토)	원 형	9품	16세기 전기
11	어모장군 김자장 묘	미조사	70.0㎡	39.0㎡ / 1단	1.60m(봉토)	장방형	3품	1477년

¹⁰ 부인의 연대는 남편의 연대를 따랐다.

¹¹ 박익의 사망연대와 묘 축조연대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장을 참고했다. 김광철, 2002, 「여말 선조 사회변동과 박익의 생애」, 『密陽古法里壁畫墓』, 東亞大學校 博物館, pp.147-176.

¹² 江原文化財團附設 江原文化財研究所, 2003,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江陵金氏 評議公派 墓域 調査 報告書」, pp.66-68. "무덤이 무너져 속 더미 속에 파묻혔으니……중략……그러나 지난 癸卯년에 방계인 振聲과 處卿 두 종씨가 같은 조상을 두었다는 情誼에서 공사를 주관하여 무덤을 다시 고쳐 쌓고는……중략……내가 400년 후에 태어나 400년 전의 일을 설명하여 밝혀려 하니 역시 어렵다."란 내용으로 보아 1843년에 개수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유적명	매 장 주체부	묘역시설		높이	호석	관품 (생전/사후)	연대10
			담장 (곡장)	참배단				
12	어모장군 김자장 처 강릉최씨 묘	미조사	93.9㎡	51.3㎡ / 1단	1.46m(봉토)	장방형	3품	1444년
13	성균관생원 김곤 묘	미조사	105.2㎡	37.4㎡ / 1단	1.33m(봉토)	장방형	미상	16세기 전기
14	성균관생원 김곤 처 영양남씨 묘	미조사	94.3㎡	44.0㎡ / 1단	1.42m(봉토)	장방형	미상	16세기 전기
15	선무랑 김준손·전주 이씨 합장묘	미조사	79.7㎡	44.5㎡ / 1단	1.48m(봉토)	장방형	종9품	16세기 전기
16	문경공고조기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1단	미조사(봉토)	장방형	정2품	1157년
17	양정공하경복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5m(봉토)	장방형	2품	1438년
18	명주군왕릉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3단	미조사	장방형	1품	9세기 전기 ¹³
19	정국용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미상	13세기 중기
20	정신중 부부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팔각형	종1품	14세기 전기
21	남군보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4세기 전기
22	전백이정묘	미조사	○	미조사 / 미상	미조사	장방형	종3품	1323
23	정난연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3품	14세기 중기
24	정지연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2품	14세기 중기
25	하시원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7품/정1품	1360
26	하시원 부인 진양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4세기 중기
27	하윤린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3품/정1품	1380
28	하윤린 부인 진양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4세기 후기
29	윤환 부부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1품	1386
30	문익점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3품/정1품	1398
31	노변소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4세기 후기 ~ 15세기 전기
32	하현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팔각형	종7품/정2품	15세기 전기
33	하경복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1품	1438
34	어변갑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장방형	정2품	1435
35	권집덕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5세기 전기 ¹⁴
36	조우희 부인 성산이씨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종1품	14세기 후기
37	조익수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1품	15세기 전기
38	최운해 부부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2품	1404
39	최운해 계배 안동권씨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장방형	미상	15세기 전기
40	하륜묘	미조사	○	미조사 / 3단	미조사	팔각형	정1품	1416
41	하륜 부인 성산 이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5세기 전기

¹³ 김주원의 생물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그가 선덕왕 6년(785)에 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關川이 범람하여 건너올 수 없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溟州(강릉)로 이주하여, 2년 후에 溟州郡王으로 봉해졌다. 그의 아들 憲昌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원망하여 헌덕왕 14년(822년) 熊州(공주)에서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보아 이 무덤은 9세기 초엽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나 외형으로 보아 후대에 개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¹⁴ 권집덕의 생물연대는 미상이나 묘표에 通訓大夫軍實監正을 지낸 것으로 각자 되어 있다. 군사감은 조선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되어 군수품을 보관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권집덕이 군사감의 정을 지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15세기 전기 경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유적명	매 장 주체부	묘역시설		높이	호석	관품 (생전/사후)	연대10
			담장 (곡장)	참배단				
42	정설 부부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2품	1423 1395
43	김후 부부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434
44	강국흥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5세기 전기
45	강국흥 부인 보성선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5세기 전기
46	강수명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2품	15세기 전기
47	강수명 부인 하동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2품	15세기 전기
48	정이오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2품/정1품	1434
49	정이오 부인 안동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5세기 전기
50	정분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팔각형	정1품	1454
51	정분 부인 하동정씨 원주변씨 합장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팔각형	정1품	15세기 중기
52	최윤덕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445
53	최윤덕 부인 성주도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5세기 중기
54	손유호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종4품	1448
55	강행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6품/종2품	15세기 중기
56	하계지 부인 상산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490
57	김장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6품	15세기 후기
58	김장 부인 진양강씨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3품	15세기 후기
59	조안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장방형 ¹⁵	정3품	15세기 후기
60	조안 부인 성산이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5세기 후기
61	박부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2품	1489
62	박부 부인 초계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장방형	정2품	15세기 후기
63	한남군이어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1품	1459
64	하윤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정5품	1500
65	조지서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504
66	이장곤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종1품	1519
67	주문보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미상	1532
68	정여창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종6품/정1품	1504
69	정여창 부인 완산이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16세기 전기
70	조숙기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정2품	1509
71	조숙기 부인 진주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정2품	16세기 전기
72	조동호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종4품/종2품	1517
73	조동호 부인 고성이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종2품	16세기 전기
74	허원필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4품	1529
75	허원필 부인 밀양박씨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4품	16세기 전기
76	주세봉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2품/정2품	1554
77	조건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원 형	정4품	1534
78	조건 부인 철성최씨묘	미조사	×	미조사 / ×	미조사	원 형	종3품	16세기 전기

¹⁵ 봉분 전면 좌우 측면에 할석이 노출되어 있는데 봉분이 흘러내려 호석을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유적명	매 장 주체부	묘역시설		높이	호석	관품 (생전/사후)	연대 ¹⁰
			담장 (곡장)	참배단				
79	조순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종2품	1527
80	조순 부인 계림정씨묘	미조사			미조사	원 형	종2품	16세기 중기
81	조정견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9품	1556
82	조정견 부인 진주하씨묘	미조사			미조사	원 형	종9품	16세기 중기
83	조윤손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정2품	16세기 중기
84	조윤손 부인 진주강씨묘	미조사			미조사	원 형	정2품	16세기 중기
85	조언형묘 ¹⁶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526
86	조언형 부인 인천이씨묘	미조사	○	미조사 / 2단	미조사	원 형	정3품	1545
87	염연상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4품/정3품	1597
88	염연상 부인 월성이씨묘	미조사			미조사	원 형	정2품	16세기 후기
89	김경근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미상	1597
90	김경근 부인묘	미조사			미조사	원 형	미상	16세기 후기
91	김익돈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미상	16세기 후기
92	주조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4품	16세기 후기
93	제말장군묘	미조사	×	미조사 / 미상	미조사	원 형	정3품/정2품	1593
94	이운용묘	미조사	×	미조사 / 1단	미조사	원 형	종2품	1610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관인분묘에 대한 문헌기록은 아래와 같다.

가) “문무양반 무덤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1품은 사방 90보, 2품은 사방 80보로 하되 무덤높이는 각 1장 6척이며 3품은 70보에 높이는 1장이요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다 30보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8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¹⁷

나) “禮曹에 명하여 各品과 서인의 墳墓에 대한 禁하는 바 한계의 步數를 상정하였다. 1품의 묘지는 90보 평방에, 사면이 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평방이고, 서인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보수는 모두 周尺을 사용한다. 四標 안에 서 경작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고려 文王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¹⁸

다) “禮曹에서 墳墓步數를 올리었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永樂 12년 3월에 本曹에서 受判하기를 ‘문무양반의 조부모 분묘의 品職에 따른 步數와 서인 부모 墳墓步數를 정하되, 周尺을 써서 한계를 정한다.’하였습니다. 受教 하였으나, 그러나 宗室 묘지터의 한계는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문무 양반 각품의 墓地步數도 또한 심히 窄狹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종실 1품의 묘지는 사방 1백 보씩으로, 2품은 사방 90보씩으로, 3품은 사방 80보씩으로, 4품은 사방 70보씩으로 하고, 문무 양반의 묘지는 1품은 사방 90보씩으로, 2품은 사방 80보씩으로, 3품 이하는 또한 각각 정한 보수에다 한 배를 더하여 한계를 정하고, 아울러 人戶에서 1백 보안에는 安葬하지 말게 하소

¹⁶ 조언형 묘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삼기면 하관리 산30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최상단에 봉사 조영부부묘, 중단에 처사 조안습 부부묘, 최하단에 조언형묘가 배치되어 있다.

¹⁷ 『高麗史』 권85, 刑法2 禁令 景宗 元年 2月.

¹⁸ 『太宗實錄』 권7, 太宗 4年 3月 庚午.

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⁹

라) “다른 사람의 경지에 몰래 무덤을 묻은 자는 매 50 대를 치고 墓田(무덤에 속한 경지)인 경우에는 곤장 60대를 치며 경지의 주인은 里正에게 고하고 무덤을 옮겨 묻어야 한다. 이정에게 알리지 않고 옮긴 경우에는 매 30대를 친다. 남의 墓田을 몰래 경작한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무덤을 훼손한 자는 도형 1년에 처한다.”²⁰

덤 안에 있는 나무를 찍어 간 자는 피륙으로 환산하여 1자에 곤장 60대, 한 필에 70대, 두 필에 90대, 네 필에 100대를 치고 다섯 필에는 도형 1년에, 열필에는 1년 반에 ……중략…… 친척의 무덤 안에 있는 나무를 벌목한 자도 이와 같다.”²¹

상기한 사료에 대한 검토는 발표자가 선행연구에서 그 해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그 대계는 아래와 같다.²²

사료 가)는 고려 경종 원년(976)에 정한 문무양반의 墓地造營에 대한 禁令으로, 관인 계층의 분묘 규모²³을 확인할 수 있다. 976년 제정 墓地步數는 6품 이하 관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별 없이 묘지 규모를 30보로 한정하고 있어 완비되지 못한 모습이다.

사료 나)는 조선 태종 4년 3월에 고려 문종 37년의 제도를 따라 墳墓步數를 정하고, 墳墓造營의 측정에 周尺을 사용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 태종 4년 3월에 전조의 제도를 따라 분묘소수를 정한 것으로 보아 고려 문종 37년에 6품 이하 관인의 墓地步數를 정비하여 법제화가 완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의 墳墓步數를 정하는데 사용한 基準尺이 영조적이었으나 선초에 周尺으로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표 1>의 고고학조사에서 밝혀진 官人墳墓의 규모를 살펴보면 고려 경종 원년과 조선 전기 墓地步數의 基準尺으로 周尺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官人墳墓의 규모를 평방미터로 제시한 것으로 가락 허시중공 무덤·과주서곡리 고려벽화묘 1호 石室墓의 被葬者는 생전에 1·2품의 신분임이 확인된다. 또한 위에 거명한 墳墓步數와 관련된 사료에 의하면 고려 경종 원년부터 조선 태종 18년까지 1·2품의 墳墓步數는 동일하여 이들의 墳墓步數는 고려 경종 원년의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權準의 墓인 과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1호 石室墓는 그의 임종연대가 1352년인 것과, 생전에 2품의 벼슬에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2품의 묘에 준하는 보수를 따랐을 것이다. <표 1>에 거명된 권준 묘의 步數(墓域施設의 넓이)는 236.6m²이고 봉토의 높이는 3.33m로 周尺으로 환산한 2품의 규모와 거의 일치된다.

다음으로 許有全은 『高麗史』『列傳』에 나오는 인물로 고려 고종 30년(1243)에 태어났다. 임종 연대는 뚜렷하지 않지만 1324년경으로 추정된다. 墓의 규모도 생전에 그의 품계가 1품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품의 步數를 따랐을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묘의 규모는 368.6m²로 <표 2>와 비교하면 周尺으로 환산한 1품의 步數와 거의 일치된다. 따라서 고려 경종 원년부터 조선 태종 18년까지 墳墓步數의 基準尺은 周尺이 사용되었다.

¹⁹ 『太宗實錄』 권35, 太宗 18年 5月 庚午.

²⁰ 『高麗史』 권85, 刑法2 禁令.

²¹ 주) 19의 같은 책.

²²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지역과 역사』17, pp.52-56.

²³ 墳墓造營의 측정에 어떠한尺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알 수 없다.

²⁴ 李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해안, pp.45-46.

〈표2〉 경중 원년의 분묘 규모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이하
넓이	방 90보	방 80보	방 70보	방 60보	방 50보	방 30보
주척(㎡)	343.73	271.16	207.94	152.77	106.09	38.19
당대척(㎡)	714.49	564.54	439.74	317.55	220.52	79.39
높이	1장 6척	1장 6척	1장	8척	8척	8척
주척(m)	3.30	3.30	2.06	1.65	1.65	1.65
당대척(m)	4.75	4.75	2.97	2.38	2.38	2.38

*주척은 조선초의 기준으로 20.6cm, 당대척은 29.7cm로 계산하였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5

사료 다)는 “중실 묘지터의 한계는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문무 양반 각품의 墓地步數도 또한 심히 狹窄 합니다.”란 언급에서 조선 전기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관인들과 차별된 중실묘지의 步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양반 각 품의 墓地步數가 협착하다는 내용이 주목되는데 전체 관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태종 18년의 기록 역시 墓地步數의 基準尺을 周尺으로 사용하고 있고, 1~3품까지의 步數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3품 이하의 분묘보수는 각각 이전에 정한 보수에다 한 배를 더하여 한계를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당상 관 이하의 관인들이 자신들의 墓地步數가 협착하다는 불만을 새롭게 중실의 墳墓步數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배를 더하여 한계를 정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각기 10보 아래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²⁵

사료 라)에서는 타인의 墓田에 몰래 무덤을 쓰는 경우에는 곤장 60대를 치는 형벌이 거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位土에 속한 묘전이 확인된다. 묘전은 묘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로 당시에 관인들이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료 마)에서도 타인의 墓塋 안에 있는 나무를 몰래 벌채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묘영의 규모가 식목이 가능할 정도로 넓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묘영이 墓와 墓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일 수도 있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헌기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관인분묘는 장방형·필각형·원형護石을 두르고 墓域施設(담장 : 曲墻, 參拜壇)을 설치하며 品職에 따른 규모의 차등이 있다.

둘째, 고려 경중 원년에 제정된 墳墓步數는 문종 37년에 제도가 정비되고 정착되었다.

셋째, 官人들의 墓域은 墓와 墓田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묘역 내의 墳墓造營에 대한 규칙은 고려전기부터 있었으나 여말선초에 체계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진 1〉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분묘 양식인 묘역시설분묘를 관인들이 사용한 분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묘양식을 사용한 신분계층을 모두 관인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고려 지배층의 매장지에 대한 김용선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후기까지 지배층이 매장지로 개경을 중심으로 한 근기

25 주) 24의 같은 책, 45쪽에서 전제.

26 박익은 밀양박씨로 생전 4품의 벼슬길에 올랐던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 관인으로, 그의 묘는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번지에 있다. 묘의 규모는 162.8㎡로 〈표 2〉의 4품의 분묘 규모인 152.77㎡보다 약 10㎡ 크다. 대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4품에 준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로보아 3품 이하 관인의 墳墓步數는 원래 정한 보수에 각기 10보 아래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12세기 이전까지는 삼남지방에 지배층의 분묘는 조영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⁷ 그렇지만 고고학조사에 의하면 12세기 이전에 묘역시설분묘가 삼남지방에 조영되고 있는 실례가 있어, 피장자의 신분을 관인으로 보기보단 지방 향리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묘역 시설분묘 사용 계층은 관인으로 일부 지방 향리들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진주 신안동 정설부부묘

2. 현황²⁸

〈표 3〉은 발표자가 학위논문에서 검토한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 발굴 조된 묘역시설분묘 40기이다.²⁹ 발표자가 경기 지역에서 검토한 고려분묘유적은 16개소, 분묘 151개이다. 경기 지역에서 고려분묘 151개 중에서 묘역시설분묘는 28개로 18.5%의 빈도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9세기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묘역시설분묘가 조영되기 시작된 연대는 11~12세기경으로 파악된다. 14세기경에 이르면 매장주체부를 목관묘로 축조한 묘역시설분묘가 본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40기의 묘역시설분묘 중에서 경기 지역에서 확인된 묘역시설분묘는 28개로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휴전선 이남 지역의 묘역시설분묘는 고려의 왕도와 근기지역에 가까운 경기지역에서 주로 조영되어졌던 분묘로 판단된다.

〈표3〉 발굴조사된 묘역시설분묘

유적 규모	조영연대	묘역시설 형태					매장주체부(장방형)		
		곡장	참배단			불명	석실	석곽	목관
			1단	2단	3단				
경기 / 여주 상교리 상방하원 분묘 ³⁰	14세기 후기	●					●		
경기 / 용인 마북리 분묘군(2) ³¹ 8호 무덤	9세기	●						●	
경상 / 경주 물천리 분묘군 ³² 1-6호 토광묘	9세기 후기-10세기 전기	●							●
경상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9호 토광묘	10세기	●							●
충청 / 천안 남산리 분묘군 ³³ 1호묘	12세기 전기	●							●
경상 / 거창 둔마리 분묘 ³⁴	12세기	○	●				●		

27 金龍善, 1989,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東亞研究』17, 西江大學校 出版部.

28 묘역시설분묘 현황에서 언급하는 분묘유적의 연대 및 설명은 아래의 논문을 재인용하였다. 주영민, 2011, 「고려 지방 분묘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94.

29 고려의 행정구역인 5도양계를 원칙으로 구분해야하나, 남한지역은 당시의 5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30 한양대학교 박물관, 1984, 『驪州上橋里 上方下圓石室墓』.

31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용인 마북리 유적」.

32 財團法人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勿川里 高麗墓群遺蹟』.

33 國立公州博物館,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3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居昌屯馬里壁畫古墳 및 灰槨墓發掘調査報告」.

유적 규모	조영연대	묘역시설 형태					매장주체부(장방형)		
		곡장	참배단			불명	석실	석곽	목관
			1단	2단	3단				
경상 / 밀양 고법리 분묘 35	1420년	○	●				●		
경기 / 일리·원시리 분묘군 36 1호분	12세기 전기	○	●						●
경기 / 가락 허시중공 분묘 37	1324	○		●				●	
경기 / 더부골 분묘군 38 36호묘(토광묘)	11세기 후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9 5호 토광묘	12세기 전기	○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4호 토광묘	12세기 전기	○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호 토광묘	12세기 전기	○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14호 토광묘	불명	○		●					●
경기 / 안산 부곡동 분묘군 40 서 4호 무덤(토광묘)	13세기 후기 이후	○		●					●
경기 / 화성 송나리 분묘군 41 1호분	14세기 후기	○		●					●
경기 / 파주 서곡리 분묘군 42 1호묘	1352년	○			●		●		
전라 / 수천리 분묘군 43 석곽묘 1호	12세기 중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호 석곽묘	14세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4호 석곽묘	11세기 후기					○		●	
경기 / 더부골 분묘군 석곽묘	14세기 후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1호 석곽묘	11세기 후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호 석곽묘	11세기 후기					○		●	
경상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7호 토광묘	10세기					○			●
경상 / 의령 경산리 분묘군 44 10호묘(목관묘)	13세기 중기	○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3호 토광묘	13세기 후기					○			●
경기 / 여주 매옹리 용강골 분묘군 45 C-1호	불명	○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0호 토광묘	14세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1호 토광묘	14세기					○			●
경상 /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46 나-3호묘(목관묘)	14세기 후기	○				○			●
경상 /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나-4호묘(목관묘)	14세기 후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5호 토광묘 47	불명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9호 토광묘	불명					○			●

35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 『密陽古法里壁畫墓』.

36 半月地區 遺蹟發掘 調查團, 1978, 『半月地區유적발굴조사보고서』.

37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88, 『가락 허시중공 무덤 발굴조사보고』.

38 漢陽大學校·京畿道, 1993, 『高陽 中山地區文化遺蹟』.

39 한양대학교 박물관, 2001,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40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5,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중산)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41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5,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중산)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4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43 西海岸高速公路發掘調查團, 1998,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V』.

44 慶尙大學校 博物館, 2004, 『宜寧 景山里古墳群』.

45 翰林大學校 博物館, 1988, 『驪州 梅龍里 용강골 古墳群 發掘報告書』.

46 東洋大學校 博物館, 2007, 『安東 玉洞 住公아파트敷地 內 遺蹟』.

47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5, 『하남 덕풍동』.

유적 규모	조영연대	묘역시설 형태					매장주체부(장방형)		
		곡장	참배단			불명	석실	석곽	목관
			1단	2단	3단				
경주 / 물천리 분묘군 1-10호 토광묘	불명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4호 토광묘	12세기					○			●
경기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2호 토광묘	14세기					○			●
경기 / 더부골 분묘군 24호묘(토광묘)	14세기 후기					○			●
경기 / 더부골 분묘군 41호묘(토광묘)	14세기 후기					○			●
경상 /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나-8호묘(목관묘)	14세기 후기	○				○			●
경기 / 하남 덕풍동 분묘군 47 1호분	14세기 후기~15세기 전기					○			●

충청 지역에서 검토한 고려분묘유적은 27개소, 분묘 336개로 이 중에서 묘역시설분묘는 1개로 0.29%의 빈도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묘역시설분묘는 천안 남산리 분묘군 1호묘로 조영연대는 12세기 전기경으로 파악된다. 전체 40기의 묘역시설분묘 중에서 충청 지역에서 확인된 묘역시설분묘는 1개로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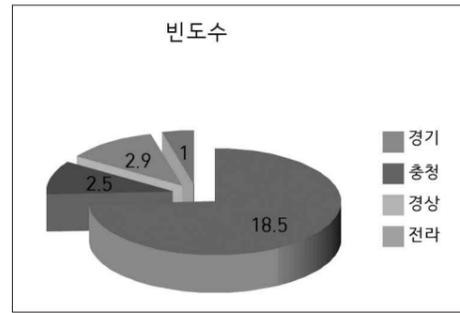
강원 지역에서 발표자가 학위논문에서 검토한 발굴 조사된 고려분묘유적은 2개소, 분묘 14개로 이 중에서 묘역시설분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발표자가『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⁴⁸ 50~51쪽에서 살펴본 이 지역 묘역시설분묘는 13개로, 9세기 전기경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장자가 김주원인 명주군왕릉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시대 분묘이다(표 4).

〈표4〉 강원지역 묘역시설분묘 현황

유적명	매장주체부	묘역시설		높이	형태	관품(생전/사후)	연대
		담장(곡장)	참배단				
김지묘	미조사	70.0㎡	130.0㎡ / 2단	1.49m(봉토)	장방형	종6품	1437년
김지부인 황성고씨 묘	미조사	78.9㎡	無	1.56m(봉토)	장방형	종6품	15세기
통정대부 김자흠 묘	미조사	90.8㎡	65.7㎡ / 2단	1.48m(봉토)	장방형	정3품	1479년
김자종·경주최씨 합장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26m(봉토)	원형	종2품	15세기 말기
성균생원 최세창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1단	1.33	장방형	생원	15세기 중기
성균생원 최세창 처 강릉김씨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2단	1.32	장방형		15세기 중기
장사랑 최양홍 묘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1.20m(봉토)	원형	종9품	16세기 전기
어모장군 김자장 묘	미조사	70.0㎡	39.0㎡ / 1단	1.60m(봉토)	장방형	정3품	1477년
어모장군 김자장 처 강릉최씨 묘	미조사	93.9㎡	51.3㎡ / 1단	1.46m(봉토)	장방형	정3품	1444년
성균관생원 김근 묘	미조사	105.2㎡	37.4㎡ / 1단	1.33m(봉토)	장방형	종6품	16세기 전기
성균관생원 김근 처 영양남씨 묘	미조사	94.3㎡	44.0㎡ / 1단	1.42m(봉토)	장방형	종6품	16세기 전기
선무랑 김준손·전주이씨 합장묘	미조사	79.7㎡	44.5㎡ / 1단	1.48m(봉토)	장방형	종9품	16세기 전기
명주군왕릉(김주원릉)	미조사	미조사	미조사 / 3단	미조사	장방형	정1품	9세기 전기

48 주) 22 같은 논문 〈표 3〉 관인분묘유적 일람의 오류를 바로잡아 전제하였고, 강릉김씨 평의공파묘역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발표자가 다루어본 묘역시설분묘에 관한 연구에서 9세기 경의 묘역시설분묘는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3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김주원릉은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김주원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명주(강릉)로 이거하게된 연유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김주원은 선덕왕 6년(785) 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알천이 범람하여 건너올 수 없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명주로 이주하여, 2년 후에 명주군왕으로 봉해졌다. 아들 현창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원망하여 헌덕왕 14년(822년) 응주(공주)에서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보아 김주원릉은 9세기 초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형이 묘역시설분묘여서 조선시기 강릉김씨 평의공파 묘역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지역별 묘역시설분묘 빈도수

경상 지역에서 검토한 고려분묘유적은 35개소, 분묘 337개이다. 경상 지역에서 고려분묘 337개 중에서 묘역시설분묘는 10개로 2.9%의 빈도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경주 지방의 물천리 분묘군에서 묘역시설분묘의 이전단계로 추정되는 분묘인 1-6호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이 분묘는 원형봉토본 전방에 방형의 참배단이 조성된 형태로 9세기 후기에서 10세기 전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유형의 분묘들은 용인 마북리 분묘군(2)과 수천리 분묘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경상 지역에서는 묘역시설분묘의 시원적 형태의 분묘가 조성되고 있지만 확인된 묘역시설분묘 과반수가 고려 후기에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 후기부터 경상 지역에 묘역시설분묘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 지역에서는 고려분묘유적 8개소, 분묘 95개를 다루어 보았다. 95개의 분묘 중에서 묘역시설분묘는 12세기 중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곽묘 1개로 1.0%의 빈도수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묘역시설분묘는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고 고려후기로 갈수록 지방역으로 점차 확산되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Ⅲ 유형분류와 특징

1. 유형분류

김인철이 언급한 개성지역 묘역시설분묘들의 특징에 유념하여, 휴전선 이남의 묘역시설분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만한 속성은 곡장·호석·매장주체부·참배단이 있다. 묘역시설분묘의 조성 입지는 구릉 경사면이어서 우수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장자가 안치되어 있는 매장주체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주체부 주변을 ㄱ형태로 둘러싸서 보호할 목적으로 곡장을 설치한다. 매장주체부는 조성수법에 따라 석실·석곽·

⁴⁹ 발표자는 이러한 유형의 분묘들을 묘역시설분묘의 전 단계 분묘로 비정하였다.

목관묘로 조성되며 봉분을 석재로 둘러 보호하는 호석은 직사각형과 팔각형이 확인된다. 참배단은 비석과 문인석 등의 석물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표 1〉은 발표자가 2011년까지 발굴 조사된 묘역시설분묘 40기의 속성을 분석한 표로 묘역시설분묘를 구성하는 외연은 곡장과 참배단으로 구분된다. 곡장은 모두 ㄱ형태로 석재를 이용하여 쌓아 올렸다. 참배단은 구릉 경사면을 따라 1~3단의 평탄면을 축조하고 그 위에 상석·장명등·석인상 등의 석물을 배치하여 조형미를 더하고 있다. 41기의 묘역시설분묘 봉분은 석재를 이용하여 장방형 호석을 둘러 봉분을 보호하고, 매장주체부는 축조 수법에 따라 석실묘·석관묘·목관묘로 다양하게 조성된다.

〈표 1〉 묘역시설 설치 분묘의 속성분석

유적	규모	묘역시설 형태			매장주체부(장방형)				
		곡장	참배단			불명	석실	석곽	목관
			1단	2단	3단				
여주 상교리 상방하원 분묘		●				●			
용인 마북리 분묘군(2) 8호 무덤		●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6호 토광묘		●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9호 토광묘		●						●	
천안 남산리 분묘군 1호묘		●						●	
거창 둔마리 분묘		○	●			●			
밀양 고법리 분묘		○	●			●			
일리·원시리 분묘군 1호분		○	●					●	
가락 히시중공 분묘		○		●			●		
더부골 분묘군 36호묘(토광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5호 토광묘		○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4호 토광묘		○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호 토광묘		○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14호 토광묘		○		●				●	
안산 부곡동 분묘군 서 4호 무덤(토광묘)		○		●				●	
화성 송나리 분묘군 1호분		○		●				●	
파주 서곡리 분묘군 1호묘		○			●				
수천리 분묘군 석곽묘 1호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호 석곽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4호 석곽묘					○		●		
더부골 분묘군 석곽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1호 석곽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호 석곽묘					○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7호 토광묘					○			●	
의령 경산리 분묘군 10호묘(목관묘)		○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3호 토광묘					○			●	
여주 매용리 용강골 분묘군 C-1호		○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0호 토광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1호 토광묘					○			●	

유적	규모	묘역시설 형태					매장주체부(장방형)			
		곡장	참배단			불명	석실	석각	목관	
			1단	2단	3단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나-3호묘(목관묘)	○					○			●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다-4호묘(목관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5호 토광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9호 토광묘						○			●	
경주 물천리 분묘군 1-10호 토광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24호 토광묘						○			●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2호 토광묘						○			●	
더부골 분묘군 24호묘(토광묘)						○			●	
더부골 분묘군 41호묘(토광묘)						○			●	
안동 옥동 주공 분묘군 나-8호묘(목관묘)	○					○			●	
하남 덕풍동 분묘군 1호분						○			●	

〈표 2〉⁵⁰은 발표자가 2017년도에 검토해본 여말선초에서 15세기 중기까지의 문화재 지정 경남지방 묘역시설 분묘들의 속성이다. 분묘 피장자의 성명과 생몰일이 명확하고 참배단에 각종 석물을 배치하고 있다. 〈표 1〉과 다르게 특이한 점은 곡장이 설치되지 않은 분묘가 확인되고, 봉분 형태가 팔각형인 것과 원원인 것이 확인된다. 특히, 진주 지역에서 14세기 전기부터 봉분에 팔각호석이 설치된 정심중 부부 합장묘·하현묘·하륜묘·정분묘·정분부인 하동정씨와 원주이씨 합장묘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밖에도 여러 유형의 합장묘가 확인되고 있다.

〈표2〉 경남지역 문화재지정 묘역시설분묘 속성

피장자	연대	매장 주체부 형태	곡 장	참 배 단	부 석	계 단	월 영	묘 지	묘 비 묘 갈	묘 표	혼 유 석	상 석	향 로 석	장 명 등	망 주 석	석인	비고
정국용묘	13세기 중기	장방형	○	1단	×	×	×	○ ⁵¹	○	×	×	○	○	×	○	×	
정신중 부부 합장묘	14세기 전기	팔각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혼유석, 상석, 향로석 최근 설치
남군보묘	14세기 전기	원 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타원형곡장
전백이정묘	1323	장방형	○	미 상	○	×	×	×	×	×	×	×	×	×	×	×	
정난연묘	14세기 중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	정국용 차남
정지연묘	14세기 중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	정국용 장자
하시원묘	1360	장방형	○	2단	×	○	×	×	×	○	×	○	○	×	×	×	

⁵⁰ 주) 9의 같은 논문. 〈표 12〉를 수정 전제하였다.

⁵¹ 상석 정면에 각자 되어 있다.

피장자	연대	매장 주체부 형태	곡 장	참 배 단	부 석	계 단	월 영	묘 지	묘 비 묘 갈	묘 표	혼 유 석	상 석	향 로 석	장 명 등	망 주 석	석인	비고
하시원 부인 진양정씨묘	14세기 중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	
하윤린묘	1380	장방형	○	1단	×	○	×	×	×	○	×	○	○	×	×	×	하시원 아들 상하합장
하윤린 부인 진양강씨묘	14세기 후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	
윤환 부부 합장묘	1386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4	망주석1
박익묘	1398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문익점묘	1398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노변소묘	14세기 후기~15세기 전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하현묘	15세기 전기	팔각형	○	1단	○	○	×	×	×	○	○	○	×	○ ⁵²	×	문인석2	
하경복묘	1438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어변갑묘	1435	장방형	×	×	×	×	×	×	×	○	×	○	○	×	×	문인석2	묘표 2
권집덕묘	15세기 전기 ⁵³	장방형	×	1단	×	×	×	×	×	○	○	○	○	×	○	×	
조우희 부인 성산이씨 합장묘	14세기 후기	원 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조익수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조우희 차남
최운해 부부 합장묘	1404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상하합장
최운해 계배 안동권씨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	×	×	×	×	×	×	×	×	×	×	×	×	
하륜묘	1416	팔각형	○	3단	○	○	×	×	×	○	×	○	×	○	×	문인석2	하윤린 아들 상하합장
하륜 부인 성산 이씨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	
정설 부부 합장묘	1423 1395	장방형	○	2단	○	×	×	×	○	×	×	○	○		○	×	상석, 묘비 최근 설치
김후 부부 합장묘	1434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상산김씨 13대
강국흥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	○	○	×	○	×	×	×	○	×	×	×	×	상하합장
강국흥 부인 보성선씨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	곡장 네모서리에 입석 설치
강수명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	상하합장
강수명 부인 하동정씨묘	15세기 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상석, 향로석 최근 설치
정이오묘	1434	장방형															
정이오 부인 안동정씨묘	15세기 전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 ⁵⁴ 동자석 ⁵⁵	정신중 아들 쌍분

피장자	연대	매장 주체부 형태	구 장	참 배 단	부 석	계 단	월 영	묘 지	묘 비 묘 갈	묘 표	흔 유 석	상 석	향 로 석	장 명 등	망 주 석	석인	비고
정분묘	1454	팔각형															정이오 아들 쌍분 모든 석물 최근 설치
정분 부인 하동정씨 원주변씨 합장묘	15세기 중기	팔각형	×	1단	×	×	×	×	×	×	○	○	○	○	○	동자석2	
최윤덕묘	1445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최운해 아들
최윤덕 부인 성주도씨묘	15세기 중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상하합장
손우호묘	1448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강행묘	15세기 중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	강국흥 아들
하계지 부인 상산박씨묘	1490	원 형	×	2단	×	×	×	×	○	×	×	○	○	×	×	무인석2	
김장묘	15세기 후기	장방형															쌍분 상산김씨 14대
김장 부인 진양강씨	15세기 후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조안묘	15세기 후기	장방형 56	○	×	×	×	×	×	×	○	×	×	×	×	×	×	조려의 부친
조안 부인 성산이씨묘	15세기 후기	원 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상하합장
박부묘	1489	장방형	×	2단	○	×	×	×	○	×	×	×	×	×	○	시자석1	박익 조카 상하합장
박부 부인 초계정씨묘	15세기 후기	장방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박부묘 보다 규모가 크다
한남군 이어묘	1459	원 형	×	2단	×	×	×	×	×	○	×	○	○	○	○	문인석2 동자석2 석주2	호석
하윤묘	1500	원 형	×	1단	×	○	×	×	○	×	×	○	○	×	×	무인석2	향로 받침석 유존
조지서묘	1504	원 형	×	1단	×	×	×	×	○	×	×	○	○	×	○	×	타원형곡장
이장근묘	1519	원 형	×	2단	×	×	×	×	×	×	×	○	×	×	×	무인석58	
주문보묘	1532	장방형	×	1단	×	×	×	○	×	×	×	×	×	×	×	×	
정여창묘	1504	장방형	×	1단	×	×	×	×	○	○	○	○	○	×	○	난간2 석양2 문인석2	상하합장
정여창 부인 완산이씨묘	16세기 전기	장방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조숙기묘	1509	원 형															우측 : 여 좌측 : 남 쌍분
조숙기 부인 진주정씨묘	16세기 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조동호묘	1517	원 형															조려의 장자
조동호 부인 고성이씨묘	16세기 전기	원 형	×	2단	×	×	×	○	×	○	○	○	○	×	○	×	쌍분

52 장명등 1점이 있었으나 2005년 6월 초순 도난을 당했다.

53 권집덕의 생물연대는 미상이나 묘표에 通訓大夫軍資監正을 지낸 것으로 각자 되어 있다. 군사감은 조선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되어 군수품을 보관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권집덕이 군사감의 정을 지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15세기 전기 경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장자	연대	매장 주체부 형태	구 장	참 배 단	부 석	계 단	월 영	묘 지	묘 비 묘 갈	묘 표	흔 유 석	상 석	향 로 석	장 명 등	망 주 석	석인	비고
허원필묘	1529	원 형															타원형곡장 쌍분
허원필 부인 밀양박씨묘	16세기 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주세봉묘	1554	원 형	×	1단	×	×	×	×	○	○	×	○	○	×	○	×	주문보 아들
조건묘	1534	원 형															조동호 아들
조건 부인 철성최씨묘	16세기 전기	원 형	×	×	×	×	×	○	○	×	×	○	○	×	○	×	쌍분
조순묘	1527	원 형															조동호 장남
조순 부인 계림정씨묘	16세기 중기	원 형	×	2단	×	×	×	○	○	×	×	○	○	×	○	×	쌍분
조정건묘	1556	원 형															조순의 장자
조정건 부인 진주하씨묘	16세기 중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쌍분
조윤손묘	16세기 중기	원 형															조숙기 아들 쌍분
조윤손 부인 진주강씨묘	16세기 중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우측 : 남 좌측 : 여
조연형묘59	1526	원 형	○	2단	×	×	×	×	○	○	×	○	○	×	×	망주석2	장방형곡장
조연형 부인 인천이씨묘	1545	원 형	○	2단	×	○	×	×	○	×	×	○	○	×	×	×	상하합장
염연상묘	1597	원 형															일가 분묘 5기 쌍분
염연상 부인 월성이씨묘	16세기 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김경근묘	1597	원 형															상산김씨 19대 쌍분
김경근 부인묘	16세기 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문인석2	
김익돈묘	16세기 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	
주조묘	16세기 후기	원 형	×	1단	×	×	×	○	×	×	×	○	×	×	×	입석	주세봉 조카
제말장군묘	1593	원 형	×	미 상	×	×	×	×	×	○	×	○	○	×	×	×	
이운용묘	1610	원 형	×	1단	×	×	×	×	○	×	×	○	○	×	○	동자석2	원형호석

표 보는 방법 - 부인의 연대는 남편의 연대를 따랐다.
- 최근에 설치한 석물은 외곽선을 넣어 표시하였다. / ex) ○

54 좌측 문인석은 최근에 조성되었다.

55 동자석은 좌측에 1기만 현존한다.

56 봉분 전면 좌우 측면에 활석이 노출되어 있는데 봉분이 흘러내려 호석을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57 장명등은 2006년 4월에 도난을 당하여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있다.

5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27호 진주 검암리 하윤묘의 문인석과 동일하다.

59 조연형 묘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관리 산30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최상단에 봉사 조영부부묘, 중단에 처사 조안습 부부묘, 최하단에 조연형묘가 배치되어 있다.

〈표 2〉·〈표 3〉을 살펴본 결과 묘역시설분묘에서 곡장이 설치된 분묘와 미설치 분묘가 확인된다. 호석의 형태는 세 가지로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원형, 드물게 팔각형이 있다. 참배단은 대부분의 묘역시설분묘에 1~3단이 설치되지만 미설치된 분묘도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묘역시설분묘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속성을 선정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고,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묘역시설분묘가 확인된다(도면 1).

〈표3〉 묘역시설 속성

곡장		호석 형태			참배단			
유	무	장방형	팔각형	원형	미설치	1단	2단	3단
A	B	a	b	c	0	1	2	3

- 첫 번째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가 결합된 유형(Aa0).
- 두 번째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1단의 참배단이 결합된 유형(Aa1).
- 세 번째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2단의 참배단이 결합된 유형(Aa2).
- 네 번째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3단의 참배단이 결합된 유형(Aa3).
- 다섯 번째, 곡장과 팔각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1단의 참배단이 결합된 유형(Ab1).
- 여섯 번째, 곡장과 팔각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3단의 참배단이 결합된 유형(Ab3).
- 일곱 번째, 곡장 미설치,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참배단 1단이 결합된 유형(Ba1).
- 여덟 번째, 곡장 미설치,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참배단 2단이 결합된 유형(Ba2).
- 아홉 번째, 곡장 미설치, 팔각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참배단 2단이 결합된 유형(Bb2).
- 열 번째, 곡장 미설치, 원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참배단 1단이 결합된 유형(Bc1).
- 열한 번째, 곡장 미설치, 원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와 참배단 2단이 결합된 유형(Bc2).

첫 번째 유형은 묘역시설 중에서 참배단이 미설치된 것으로 후대에 참배단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별개의 묘역시설분묘 유형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천안 남산리 분묘군 1호묘의 매장주체부를 둘러싸고 있는 곡장 전방부에 참배단이 설치된 흔적이 없는 반면, 가락 허시중공 분묘에서는 2단의 참배단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도면 1). 따라서 별개의 묘역시설분묘 유형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면 묘역시설분묘는 참배단의 有·無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표 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고려 후기부터 곡장이 설치지 않은 묘역시설분묘 유형이 등장하고 여말선초시기에 그 조영이 증가한다. 〈표 1〉에서 확인한 고려시기 묘역시설분묘 중에서 곡장이 미확인된 분묘가 다수 확인되지만, 11세기 후기에서 12세기 전기가 중심조영연대인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에서와 같이 분묘간의 중복에 따른 유실이 예상되어 고려 후기 이전에는 곡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유의하면 묘역시설분묘는 곡장의 설치 有·無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고려시기 묘역시설분묘의 유형은 참배단의 有·無와 곡장의 有·無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도면 1).

첫째, 곡장과 장방형 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가 결합되며(Aa0유형), 매장주체부는 황혈식석실묘·석곽묘·목관묘로 조영된 것이 확인된다. 경기권역에 여주 상고리 상방하원 분묘, 충청권역에 용인 마북리 분묘군(2) 8호 무덤, 천안 남산리 분묘군 1호묘, 경상권역에 경주 물천리 분묘군 1-6, 9호 토광묘가 분포한다.

둘째, 곡장과 매장주체부에 참배단이 결합되고, 호석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Aa·Ab유형)으로 구분되며, 참배단의 단수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아유형(Aa1·Aa2·Aa3, Ab1·Ab3)⁶⁰이 확인된다. Aa1유형에 속하는 묘역시설분묘는 〈표 1~2〉에서와 같이 매장주체부는 석실과 목관으로 조영되고, 거창 둔마리 분묘·밀양 고법리 분묘, 14세기 후기에 조영된 합장묘인 일리·원시리 분묘군 1호분등이 확인된다.

Aa2유형에 속하는 묘역시설분묘는 매장주체부는 석실묘·석곽묘·목관묘로 조영된 것이 확인된다. 경기권역에 가락 허시중공 무덤, 더부골 분묘군 36호묘, 안산 대부도 육곡 분묘군 3·4·5·14호 토광묘, 안산 부곡동 분묘군 서 4호 무덤, 화성 송나리 분묘군 1호분 등이 있다.

Aa3유형에 속하는 묘역시설분묘는 매장주체부가 석실묘로 조영된 1기를 경기권역에서 확인하였다(표 1). Aa3유형의 묘역시설분묘의 매장주체부에서 석곽묘와 목관묘의 조영예가 확인되지 않지만, 〈표 1〉에서 묘역시설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명의 경우를 확인하여 보면, 매장주체부가 석곽묘, 목관묘로 조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주체부를 석곽묘, 목관묘로도 조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b유형은 15세기경에 조영된 묘역시설분묘로 곡장과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1단 혹은 3단의 참배단이 설치된다.

셋째, 곡장은 미설치되고 매장주체부에 참배단이 결합되고, 호석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Ba·Bb·Bc유형)으로 구분되며, 참배단의 단수에 따라 각각 여러 가지 아유형(Ba1·Ba2, Bb2, Bc1·Bc2)이 확인된다. 곡장이 미설치된 묘역시설분묘 유형은 〈표 2〉에서와 같이 대부분 여말선초기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⁶¹

Ba유형은 곡장이 생략되고 장방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면에 1~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묘역시설분묘로 최운해 부부 합장묘의 예에서와 같이 14세기 전기부터 확인된다(표 2).

Bb유형은 곡장이 생략되고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면에 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묘역시설분묘로 14세기 전기 분묘인 정신중 부부 합장묘가 있다.

⁶⁰ Ab2유형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⁶¹ 발표자가 제시한 곡장이 미설치된 묘역시설분묘 유형의 근거자료로, 경남지역의 묘역시설분묘만 제시하고 있어 자료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발표자의 선행 연구에서 고려후기로 갈수록 묘역시설이 생략되는 변화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자료로 활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변천

시기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6세기		16세기		16세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Aa0 유형	■						■						■						■					
Aa1 유형	■						■						■						■					
Aa2 유형	■						■						■						■					
Aa3 유형	■						■						■						■					
Ab1-3 유형	■						■						■						■					
Bb1-2 유형	■						■						■						■					
Bc1-2 유형	■						■						■						■					

지금까지 살펴본 묘역시설분묘 여러 유형에 대한 속성분석과 유형분류 결과에 따르면, 네 단계에 걸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표 4). 1단계는 고려 경종 원년(976)에 墳墓步數가 마련되어 문종 37년에 고려의 실정에 맞게 정비된 것으로 보이는 Aa2식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1단계에서는 976년에 고려의 중앙에서는 6품 이하 京官들의 墳墓步數를 일률적으로 禁制하고 있었지만, 京官들의 분묘보수에 대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위계를 정하고자 하였던 반면, 이 시기 지방사회에서의 묘역시설분묘의 조영은, Aa0유형과 Aa1유형이 동시에 조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Aa0유형의 등장 시기는 적어도 9세기 후기경으로 묘역시설분묘에 대한 분묘보수가 정해지기 이전에 조영된 분묘로 지방 지배세력의 묘제로 이해된다. Aa1유형은 Aa0유형에 참배단이 추가된 것이어서, 묘역시설분묘의 형태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유형의 묘역시설분묘가 함께 조영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 점은 각 지역의 戶長들이 독자적인 매장예를 고수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에 비해서 독자적인 지방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2단계는 Aa2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11세기 후기부터 Aa3유형이 등장하기 이전인 14세기 전기까지로, 경종 원년에 墳墓步數가 처음 실시되었지만, 6품 이하 京官들의 墳墓步數를 일률적으로 禁制하고 있어 완비되지 못했던 墳墓步數를 고려 문종 37년에 6품 이하 官人들의 墳墓步數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고려의 중앙에서 앞선 시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한 일면이 확인된다. 동시기인 11세기 후기 경에 지방에서 Aa2유형이 조영되고 있어, 禁制가 있기 이전에 이미 중앙에서 Aa2유형이 조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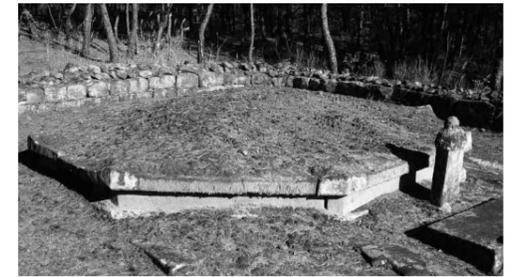
2단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방사회에 조영되는 묘역시설분묘의 유형이 Aa0과 Aa1, Aa2유형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 지방사회에서 경관의 묘제를 차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사회의 이러한 묘역시설분묘의 조영양상은 고려의 중앙과는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고려의 중앙사회가 이전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墳墓步數를 禁制하였던 반면, 지방사회에서는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비해서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3단계에 들어서면 14세기 후기경에 Aa0유형이 소멸하고, Aa3유형과 같이 참배단이 3단인 묘역시설분묘가 확인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고려 말기에 지방사회에서 Aa0유형이 소멸되는 것이다. Aa0유형은 墳墓步數의 법제화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분묘 유형인 반면에, Aa1~3유형은 墳墓步數의 법제화 이후에 등장한 분묘 유형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Aa0유형은 고려 개국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방향리들이 조영한 고유의 분묘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지방사회에서 지방향리의 고유한 분묘 유형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지방향리들의 독자성이 상실된 위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3식과 같은 분묘유형의 등장과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 태종 18년(1418)에 새로이 종실의 墳墓步數를 정하고 3품 이하 官人의 墳墓步數를 10보 이내로 확대하여 다소 완화해준 사실이 주목된다.

3단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팔각형호석을 두른 묘역시설분묘가 확인되는 점이다. 15세기 전기경에 조영된 하현묘는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후면에 곡장을 조영하고 전방에 1단의 참배단을 설치하였다(Ab1유형, 〈사진 2〉). 하륜묘는 곡장과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3단의 참배단을 설치하였다(Ab3유형, 〈사진 3〉). 15세기 중기경에 조영된 정분과 부인의 합장묘의 경우에는 곡장이 생략되고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앞쪽에 1단의 참배단이 설치된다(Bb1유형, 〈사진 4〉). 피장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하륜은 조선 정종 즉위 후 定社功臣 1등으로 晉山君에 봉해졌고, 정분은 조선 단종 때 황보인·김종서 등과 함께 수양대군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가 순절하여 후일 忠壯公으로 봉해진 것이 확인되어, 이들이 공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팔각형호석을 두른 묘역시설분묘는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에 권근(1352~1409)의 분묘가 조영되어 있다. 본래 권근의 분묘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으나 세종 26년에 이장하였고, 권근의 묘소 아래쪽으로 둘째 아들 權躔, 손자 權孳의 묘소가 연이어 있다. 이 분묘들 중에서 권근과 권제의 분묘는 팔각호석을 두르고 있다(Ab1유형). 권근묘는 처음 조영했을 때에는 매장주체부 후면에 곡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권근의 본관은 안동이며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선 태종 1년(1401)에 1등 佐命功臣으로 吉昌府院君에 봉해졌고, 議政府贊成事를 지냈다. 사후 左議政에 추증되었다. 권제는 태종 14년(141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세종 초에 集賢殿 副提學을 거쳐 右贊成에 이르렀고, 領議政에 추증된 인물이다.

충남 부여읍 능산리 산 30-1번지에는 정인지의 부친이자 정도전의 문인으로, 石城 縣監 등을 지내고 河城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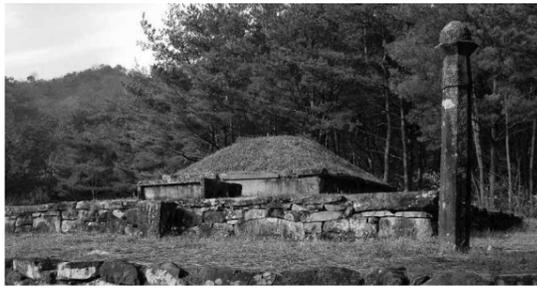
〈사진 2〉 하현의 묘



〈사진 3〉 하륜의 묘



〈사진 4〉 정분 부부의 합장묘



〈사진 5〉 강수명묘



〈사진 6〉 하계지 부인 상산박씨의묘

院君에 추증된 鄭興仁(미상~1436)의 팔각호석을 두른 분묘가 있다. 이 묘소는 곡장이 설치되어 있고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앞쪽으로 2단의 참배단이 축조되어 있다(Ab2유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2에는 조선 인조대의 宗親인 팔각호석을 두른 李晔(1569~1645)의 분묘가 있다. 이 묘소는 곡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팔각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1단의 참배단이 축조되어 있다(Bb1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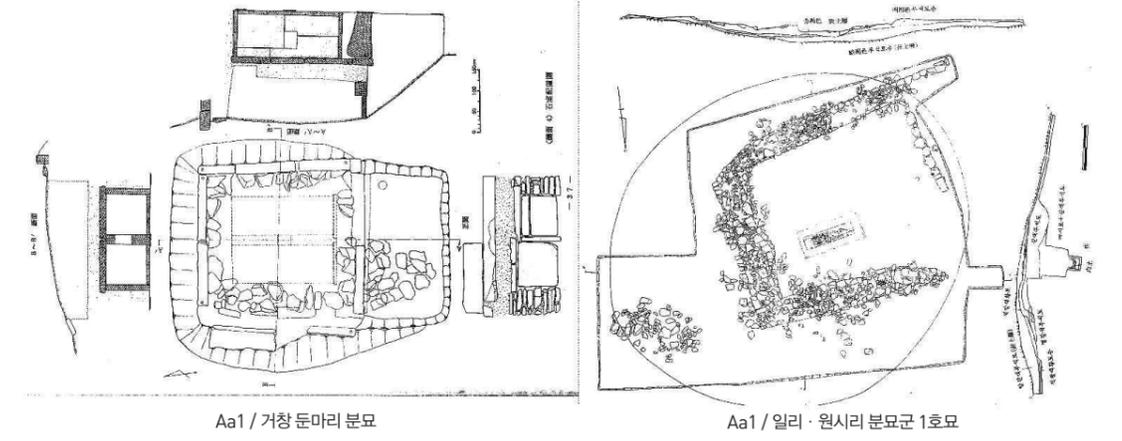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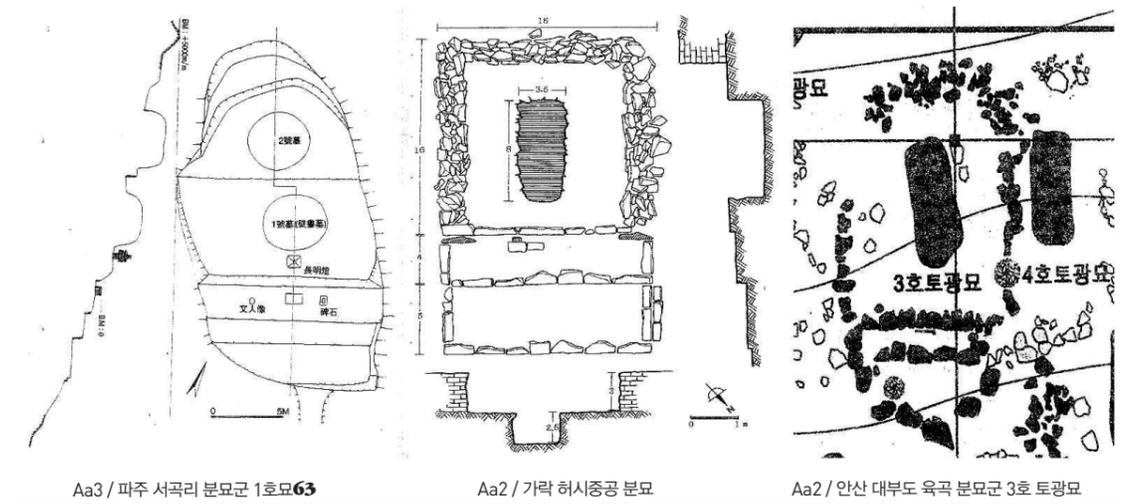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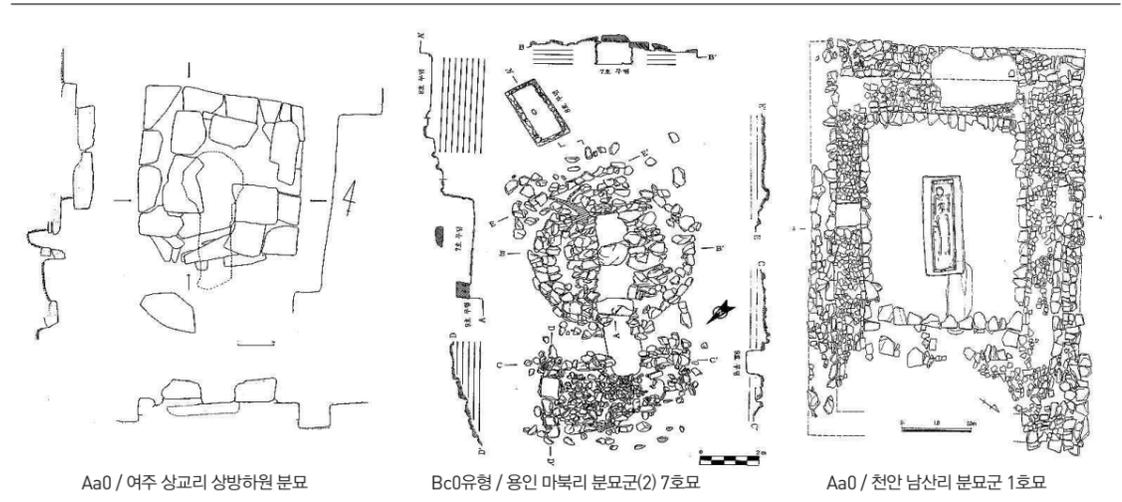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팔각형호석을 두른 분묘 피장자의 신분 역시 적어도 부원군에 봉해지는 등 왕실과 연관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팔각형호석을 분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은 왕실과 연관되거나 적어도 공신계층인 것으로 보아 태종 14년(1414)의 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14세기 중기경부터 곡장이 미설치된 장방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1~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분묘가 확인되기 시작한다(Ba1~2유형, 〈사진 5〉). 이밖에도 14세기 후기경에 곡장이 미설치되고 방형호석을 두른(혹은 원분) 매장주체부 전방에 1~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분묘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Bc1~2유형, 〈사진 6〉).

3단계의 이러한 변화상은 세종 6년(1424)에 墳墓造營에 실시된 묘역시설분묘 조영에 있어서 소요되는 석물과 석재의 규격을 금제한 조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본조에서 전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산릉에 석물을 설치하니, 인신의 墳墓에도 또한 말까지 설치하는 자가 있어, 참람하게 모방하는 것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춥거나 덥거나 비올 때에는 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돌을 다듬는 데 공이 많이 들고, 돌이 없는 곳에서는 운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이것을 없애버릴 것. 전조에 대신의 장사에 장명등(長明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여 개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중략……옛날에는 제왕의 궁실에도 흙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인신의 墳墓에 감히 연마한 돌로 세 계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할 것. 옛날에는 구름에 무덤을 만들어 봉분하지도 아니하고 비석도 세우지 아니하여, 장사지내는 제도가 검박하였으니, 이제부터는 墳墓의 사방 주위에 다만 사대(莎臺, 曲牆)에만 연마한 돌을 사용하되, 그 높이가 한 자를 지나지 못하게 하고(營造尺을 사용함) 그 지대(地臺)도 땅에 묻히는 것은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하되, 그 높이를 역시 한 자를 지나지 못하게 할 것.”⁶²

62 『世宗實錄』권2, 世宗 6年 12月 癸丑
전략……本朝承前朝之制 既於山陵設石案 而於人臣墳墓, 亦或設焉 非徒有僭擬之失 當祈寒暑雨 雖有石處 鍊石之功最難 若無石處 則轉輸之弊尤難 請革除. 一 前朝於大臣之葬 始置長明燈 本朝因循不革……중략……一 古者帝王宮室 尚用土階 況人臣墳墓 其可用熟石作三階乎 請自今勿用熟石 而用雜石. 一 古者因丘陵爲墳 不封不樹 送終之制 其儉如此. 請自今墳墓四方周回 唯莎臺用熟石 其高勿過一尺[營造尺] 其地臺入土者 勿用熟石而用雜石 其高亦勿過一尺.



도면 1. 발굴조사된 묘역시설분묘 유형

63 묘역시설분묘의 墳丘가 방형인 것에 비해 서곡리 고려벽화묘의 분구는 원형으로 되어있어 일반적인 형태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조사자의 언급에 의하면 1호묘의 분구가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조성된 사실이 확인된다(『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p. 21). 보고자는 이러한 이유를 첫째, 합장묘의 조성을 고려한 조치, 둘째, 후대에 1호묘의 석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훼손된 분구를 보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1, 2호묘의 분구가 전형적인 묘역시설분묘의 분구인 방향과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대의 보수 과정에서 원형으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료는 세종 6년(1424)에 실시된 墳墓造營에 소요되는 석물과 석재 규격에 대한 금제이다. 전조의 제도를 답습한 것에 대한 비판과 석물 설치에 많은 공력과 비용이 들어감을 비판하면서 묘역에 설치한 석물을 없애 버릴 것을 상주하고 있다. 더욱이 묘역에 계단을 설치할 때 연마한 돌 대신에 잡석의 사용을 강제한 것과 莎臺의 높이를 한자 이내로 금제하였고, 地臺도 땅에 묻히는 것은 연마한 돌의 사용을 금하고, 그 높이를 한 자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사치를 금하였다.

4단계는 묘역시설이 생략되는 등의 극단적 간소화의 특징을 보인다. Aa0·Aa1·Aa2유형이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본격 적으로 Bb1~2유형이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점차 매장주체부가 원형으로 변모되어 Bc1~2유형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2.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묘역시설분묘의 두드러진 특징은 군집양상·합장의 증가 주목된다. 발굴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유적을 검토해본 결과 분묘를 줄지어 묻는 일자형군집형태의 분묘군이 존재한 것이 확인된다. 일자형군집형태는 매장주체부가 중복되지 않고 있어 피장자간 혈연관계가 예상된다. 이러한 고려 지방사회 분묘 조형 양상은 고려의 京官 임익돈(1163~1227)의 묘지명에는 “우리나라에는 조상을 남북 또는 동서로 줄지어 묻는 族墳의 법이 없어 각각 땅을 점쳐서 장사 지낸다.”⁶⁴라는 언급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임익돈의 말을 곱씹으면 고려 지배층이 족분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13세기 중기까지는 족분을 조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7〉 진양오방산조선팔각형고분군 배치

임익돈이 인지하고 있었던 족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고려 경관의 매장지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고려시대 墓誌銘 325개 중에서 매장지가 언급된 216개⁶⁵를 검토하여 보았다. 216개의 묘지명 중에서 피장자의 혈연관계⁶⁶를 따져 동일한 곳에 매장된 35기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⁶⁷ 확인 결과 “당시 동일 묘역에 안장되는 경관의 가족관계는 父系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았고, 적어도 부부를 중심⁶⁸으로 분묘를 조영하였고 동일한 매장지에 분묘를 조영한 것은 10.7%에 그쳐서 이들이 族墳을 조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先塋에 남편과 함께 장례’, ‘椒山 文貞公 묘 앞’ 등의 표현으로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분묘를 조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임익돈이 언급한 족분은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의 묘소로 이루어진 분묘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어도 13세기 중기까지 경관 계층 일부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매장지를 갖추고 있었을



〈사진 8〉 진주 상대동고분군 전경



〈사진 9〉 조윤손 묘역



〈사진 10〉 화성 송나리 합장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표 2〉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여말선초기 이후까지 계승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에 기명된 피장자 대부분은 여말선초기 이후의 관인으로 대부분 지방유력 가문 출신들이다. 영남지방의 界首官인 진주 지방의 성씨는 鄭·河·姜·柳·蘇·任·康·金·朴이 확인된다.⁶⁹ 이중 立州後姓인 柳·任·康을 제외하면 진주 토성은 鄭·河·姜·蘇가 되어 진주에 현존하는 묘역시설분묘의 주인공들과도 일치된다(〈표 2〉).

진양오방산조선팔각형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41호)은 하륜의 조부 하서원과 조모 진양정씨, 부친 하윤린과 모친 진양강씨의 묘소와 하륜과 그 부인 성산이씨의 묘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륜 일가의 묘역은 각 부부의 묘소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사진 7〉). 정신중 일가의 묘역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59호 진주 상대동고분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묘역은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구릉 최상부에 정신중, 정이오 부부, 정분 부부의 묘소가 차례로 조영되어 있다. 정신중 일가 부부의 분묘는 같은 묘역 내에 좌우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사진 8〉). 조윤손 일가의 묘역에는 조숙기 부부의 묘소를 비롯하여 조윤손 부부묘가 조영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부의 분묘는 같은 묘역 내에 좌우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사진 9〉).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 묘소는 단독으로 조영되지 않고 부부를 중심으로 동일 가계의 인물들이 상하로 배치되기도 하고 2개 이상의 능선에 묘역을 조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부부를 중심으로 한 묘역 조성은 조선 시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2〉에서와 같이 여말선초 이후에 부부합장묘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필자가 선행연구에

⁶⁴ 소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No. 신5815) 고종 14년(1227) 前略...從人噫我國 無宗阡祖陌族墳之法 各占地而藏之故 今亦卜吉于開州黃桃原...下略

⁶⁵ 金龍善, 2006,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出版部.

⁶⁶ 혈연관계는 남성은 父, 母, 妻系를, 여성은 父, 母, 夫系를 확인하였다.

⁶⁷ 주영민, 2011, 『高麗 地方 墳墓 研究』,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3.

⁶⁸ 노명호, 1998,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⁶⁹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4, 『신증동국여지승람』Ⅳ, p.177.

서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여말선초시기 묘역시설분묘의 특징은 경상권역인 창곡동 분묘군⁷⁰과 경기권역인 화성 송나리 분묘⁷¹, 일리·원시리 분묘군⁷², 더부골 35호 토광묘⁷³의 예예와 같이 합장묘가 증가된다(사진 10). 고려 전기에 주로 조영 된 석실묘는 분묘의 구조상 추가장을 고려한 것이지만 추가장의 예는 확인되지 않고, 여말선초 시기에 2중 굴광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묘역시설분묘에서 합장⁷⁴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전기에 앞선 시기와 다른 상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합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을 김성택(1691~1741)의 묘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문에는 “부군과 한해에 낳아 부군보다 15년 뒤에 돌아가 禮대로 祔葬 하였다”⁷⁵란 기록이 확인되는데, 합장을 성리학적 예로서 실천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표 2〉를 살펴보면 경남에 분포하는 묘역시설분묘는 14세기에는 봉분 하나에 부부를 합장한 것이 2번 확인되고, 상하합장이 3번 확인된다. 15세기에 접어들면 봉분 하나에 부부를 합장한 것이 2번, 쌍분과 상하합장이 각기 5번으로 같지만 후기로 갈수록 쌍분이 더 많이 조영된다. 16세기에는 상하합장이 2번 확인되는 반면 쌍분이 10번 확인되고 있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쌍분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묘역시설분묘 조영 집단 내에서의 합장묘 조영의 유행은 이들이 성리학적 소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일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려 경종 원년에 확립된 묘역시설분묘 제도는 고려 문종 37년에 완비되어 조선 태종 4년에 새로운 왕조의 개창에 맞게 계승변모 되었고, 묘역시설분묘 조영 계층이 적극적으로 성리학을 수용하여, 16세기 중기 이후부터 많은 공력이 소요되는 장방형 곡장은 더 이상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호화롭게 석재로 장방형호석을 둘러 봉분을 치장하는 것 역시 16세기 전기를 기점으로 소멸되어, 묘역시설분묘의 형태는 고려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조선시대 분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⁷⁰ 《財)海東文化財研究院, 2010. 「창곡동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⁷¹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5.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중산)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⁷² 半月地區 遺蹟發掘 調査團, 1978. 「半月地區유적발굴조사보고서」.

⁷³ 漢陽大學校·京畿道, 1993. 「高陽 中山地區文化遺蹟」.

⁷⁴ 합장은 祔葬 또는 승窆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전기 묘비문의 기록을 살펴보면 합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나의 봉분을 조성하여 둘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형태. 둘째는 묘광을 달리하며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묘역을 공유하며 쌍분을 조성하는 형태. 셋째는 봉분을 상하로 조성하여 둘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형태이다. 김우림, 2016.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이야기」. 민속원 아르케스북, pp.87~118.

⁷⁵ 京畿道, 1994. 「京畿金石大觀」, p.823.

Ⅳ 맺음말

묘역시설분묘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최상위 속성으로 매장주체부를 구분하고, 분묘 외형에 따라 단독묘곽과 묘역시설로 세분하고, 묘역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묘의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와 방법에 따라 피장자의 신분계층을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장주체부의 축조 재료와 방법, 부장유물을 가지고 피장자의 신분과 경제적 우열을 가리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합하지 못하다. 더욱이 고려 초기에 법제화된 묘역시설분묘의 특수성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왕조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권위와 통치이념이 반영되어있는 무덤은 큰 변화 없이 전조의 것을 계승하였던 것으로 설명하였다.⁷⁶ 더욱이 여말선초의 혼란기에 왕경과 근기 지방을 벗어나 지방으로 퍼져나간 묘역시설분묘 피장자에 대한 검토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고려와 달리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국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묘역시설분묘에 대한 법제화도 재편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 건국과 더불어 지배계층의 분묘조영 원칙이 어떻게 재편되어 갔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간해서 묘역시설분묘의 변화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묘역시설분묘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곡장·매장주체부형태·참배단으로 구성되는 묘역시설을 최상위 속성으로 설정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여 묘역시설분묘가 크게 네 단계에 걸쳐서 변모되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1단계는 고려 경종 원년(976)에 墳墓步數가 마련되어 문종 37년에 고려의 실정에 맞게 정비된 것으로 보이는 Aa2식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京官들의 분묘보수에 대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던 반면, 지방사회에서는 Aa0유형과 Aa1유형의 묘역시설분묘가 동시에 조영되었다. 9세기 후기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Aa0 유형은 묘역시설분묘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조영된 분묘로 지방 지배세력의 묘제이다. 따라서 1단계는 중앙에 비해서 독자적인 지방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2단계는 Aa2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11세기 후기부터 Aa3식이 등장하기 이전인 14세기 전기까지로, 경종 원년에 처음 실시된 미완의 墳墓步數를 고려의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2단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려의 지방사회에서 경관의 묘제를 차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1단계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비해서 독자적인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3단계에 들어서면 14세기 후기경에 지방향리의 묘제로 추정되는 Aa0유형이 소멸하고, Aa3유형과 같이 참배단이 3단인 묘역시설분묘가 확인된다. 고려 말에 고려의 지방사회에서 지방향리의 고유한 분묘 유형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지방향리들의 독자성이 상실된 위상의 변화가 있었고 묘역시설분묘가 지방으로 파급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15세기 전기경에 매장주체부에 팔각형호석을 두른 묘역시설분묘가 새롭게 지방에서 확인되는데, 분묘 피장자의 신분이 왕실과 연관되거나 적어도 공신계층인 것으로 보아 조선 태종 18년의 조치와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곡장이 미설치된 장방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1~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분묘(Ba1~2유형)가 조영되고, 곡장이 미설치되고 방형호석을 두른 매장주체부 전방에 1~2단의 참배단이 설치된

⁷⁶ 발표자 역시 고려 초기 법제화된 묘역시설분묘가 조선의 개창과 더불어 큰 변화 없이 전조의 것을 계승하였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분묘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Bc1~2유형).

4단계는 묘역시설이 생략되는 등의 극단적 간소화의 특징을 보이는데, 더 이상 Aa0·Aa1·Aa2유형은 조영되지 않고 본격 적으로 Bb1~2유형이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주류를 접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변화상을 보이는 묘역시설분묘는 고려 경종 원년에 제도가 확립되었고, 문종 37년에 완비되어 조선 태종 4년에 새로운 왕조의 개창에 맞게 계승변모 되었다. 이후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용한 묘역시설분묘 조영 계층으로 말미암아 그 이념이 세종 6년에 묘역시설분묘 조영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16세기 중기 이후부터 공력 소모가 심한 장방형 곡장은 더 이상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호화롭게 석재로 장방형호석을 둘러 봉분을 치장하는 것 역시 16세기 전기를 기점으로 소멸되어, 묘역시설분묘의 형태는 고려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조선시대 분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지방의 묘역시설분묘 조영 계층은 지역 내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의 묘소가 3기 이상 군집되는 族墳을 조영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

중앙문화재연구원 남진주

I. 머리말

II.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특징

III.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분묘는 전국에서 매우 많은 수가 조사되었다.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발표자의 한계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하였고 따라서 누락된 자료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본 발표에서 대상이 된 유적은 경기도 14곳, 충청도 34곳, 전라도 5곳, 경상도 39곳, 강원도 1곳 등 총 93개 유적으로 대규모 발굴된 유적이 중심이 되었으나 고려 분묘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청도의 경우 행정복합중심도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충주 호암동 유적은 2004년부터 연차 발굴되어 넓은 지역에서 고려 분묘가 확인된다. 경상도는 경주 시내에 위치한 화천리, 물천리, 검단리, 녹동리 등 대규모의 고려 분묘군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발표는 현재 발굴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차후 더 많은 유적이 발굴 조사된다면 더욱 다양한 해석이 추가되고 일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이 된 유구의 형태는 석실분, 석곽묘, 토광묘 등이 있으나 석실분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소수 유구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석곽묘와 토광묘이다.¹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고려시대 청·백자와 더불어 도기류가 중심이 되고, 중국 청·백자와 흑유자 등이 소수지만 확인된다. 출토품은 시기별로 동시대성을 띠며 기종과 형태의 변화를 보이거나 지역별로 약간의 부장양식의 차이가 보여 이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자사에서 구분하고 있는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도자사에 있어 시기는 '중기 청자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장남원 2006) 그 이전을 전기 혹은 초기, 그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기 이전 단계는 전기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다.

II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특징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는 시기별로 동반 출토되는 구성이 달라지고, 기형과 무늬 등의 변화도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 설정은 도자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기 구분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역사학에서 보는 견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자사에서 시기구분은 '중기 청자'의 개념이 설정된 이후 그 전과 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기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중반에 이르는 약 150여 년간으로 고려 건국에서 중기 이전인 11세기 후반까지를 전기,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후반까지를 후기로 구분하였다.

대상이 된 유적은 경기도 파주 교하 택지개발지구·운정유적, 고양 도내동 도당유적, 인천 검단 원당동, 안산 대부도 육곡, 고양 더부골, 화성 반송리 행장골, 남양주 지금동, 용인 좌향리·마북리·보정동 소실유적, 평택 궁리·장당동, 안성 매산리·신릉리 유적이 있다.

¹ 발표자는 석곽묘와 토광묘로 간략화 하였으나 보고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명명하거나 돌덧널무덤, 덧널무덤과 같이 한글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본 발표는 유구의 형식을 다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하여 명명하였다.

충청도에서는 천안 불당동, 아산 매곡리, 보령 구룡리, 부여 염창리, 공주 봉암리·금학동, 부여 염창리, 서천 추동리, 대전 노은동·가오동·용계동, 연기 갈운리·보통리·합강리·장재리·황용리·봉기리·부용리·석삼리, 청주 율량동·용암동·명암동·마산리·만수리·쌍청리·오송유적, 보은 부수리, 옥천 옥각리, 음성 양덕리, 충주 호암동·영평리·하구암리, 단양 현곡리·하방촌 유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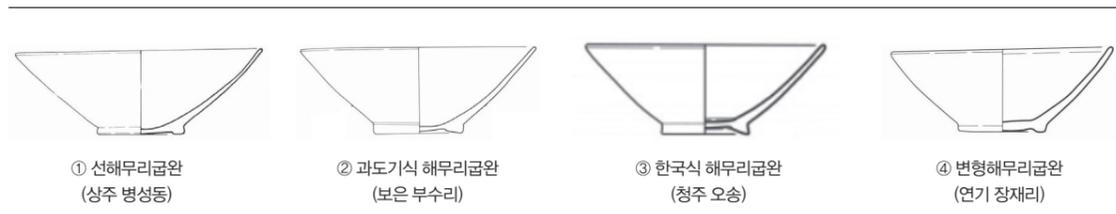
전라도는 진안 수천리, 군산 도암리, 익산 신동리, 장흥 신월리·하방촌 등이 있고, 강원도에는 강릉 방내리 유적이 있다.

경상도는 김천 모암동·부상리, 상주 대흥리·청리·병성동·현신동, 성주 차동골·시비실, 문경 모전동, 안동 정하동·안막동·옥동, 봉화 금봉리, 대구 옥수동·내환동·봉무동, 경산 입당동, 경주 검단리·물천리·화천리·녹동리, 울산 상북리·효문동·교동리, 포항 호동·인덕산·원동 3지구, 창령 초곡리, 창원 귀산동·가음정 유적, 고령 지산동, 청도 대전리, 함양 백천리, 구포 덕천동, 창령 계성동, 의령 경산리 등이다.

시기별 특징에서는 각 시기별로 출토되는 기종의 조합, 형태, 시문된 무늬의 변화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²

1. 고려 전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특징

고려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도자기의 기본 구성은 완, 접시, 병이나 후반부에는 발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표지적인 유물은 해무리굽완으로 굽의 형태에 따라 선해무리굽완, 과도기식 해무리굽완,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선해무리굽완과 과도기식 해무리굽완은 주로 전축요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축요의 폐요소기와 맞물려 그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의 전환을 가져온다.³ 한국식 해무리굽은 잘 알려진 것처럼 11세기 말로 가면서 접지부의 폭이 좁아져 변형 해무리굽의 형태를 띠고, 이후 다리굽의 형태로 전환된다(〈도 1〉 참고).



〈도 1〉 고려 전기 분묘 출토 완의 유형

선해무리굽완과 과도기식 해무리굽완은 11세기 초반 이전 가장 이른 시기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기종으로 동반 출토되는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영향이 지속되는 도기 주름무늬병, 1·2·4면 편병, 편구병, 장경병, 등잔 등이 있고, 청자는 구연이 옥연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 접시와 잔, 금속기나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영향이 보이는 장경병, 1면 편병, 동체가 원형인 형태의 반구병, 유병이 중심이 된다. 그 외 동일한 형식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도기발 일부가 확인된다.

² 좀 더 구체적이고 도자사적인 변화상을 보고자 하면 발표자가 작성한 전기(남진주 2017)와 후기(남진주 2016) 도자 관련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³ 전축요의 폐요소기는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의 가장 마지막에 운영된 4차 가마에서 '순화 3,4(992,993)년명' 제기가 출토되어 이를 기준으로 10세기 말이나 11세기 초반으로 보았다(이종민 2002).

해무리굽완이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11세기 초반 이후로 이전 단계에서 동반되었던 도기 주름무늬병, 편구병과 동체가 매우 둥근 청자 장경병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은 지속된다. 그와 함께 이전 단계에 부장되지 않던 청자발이 동반 출토되기 시작하고, 청자접시·완·병·유병, 도기병 등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자병은 2면 편병이 새롭게 확인되고, 전기 가장 늦은 단계에서는 동체가 세장해지는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 도기 2면 편병, 동체가 세장한 형태의 병, 향완 등이 추가된다. 청자병의 구연은 반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기병과 도기유병의 구연은 반구형과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팔구형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청자류는 전축요 단계에서 파생된 형태이거나 토축요로 전환된 서남해안 일대의 가마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한데 가장 근접하게 비교 가능한 것은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 가마 퇴적 1층 퇴적 출토품이다(國立中央博物館 1996, 1997). 발의 형태는 중기에 비해 매우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굽은 비교적 높으며 동체는 곡면을 이루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 외에 청자잔탁, 주자, 뚜껑 등이 매우 소수로 출토된다. 전기 분묘 출토 도자기류는 아래 〈사진 1~5〉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 오송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출토 유물 중 가장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도기 편구병은 11세기 이후 더 이상 출토되지 않으나 청자로 제작된 편구병이 다수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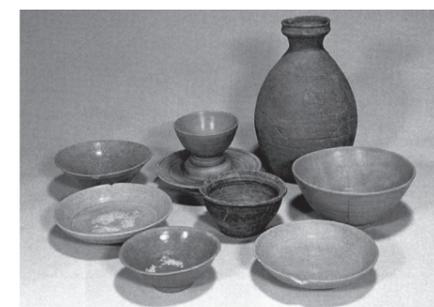
그 밖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기로 편년할 수 있는 것은 〈사진 6〉에서 볼 수 있는 화형접시류와 잔탁이 있다. 특히 고양 도내동 도당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4)에서 출토된 잔탁은 중국 월주요의 영향으로 시흥 방산동(해강도자미술관 2001) 등 전축요에서 주로 제작되는 것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잔탁이고 이후 청주 오송이나 용인 보정동 유형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김천 모암동(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유적 출토품 중 〈사진 4〉의 앞 줄 가장 왼쪽에 위치한 장신호 등이 매우 소수로 확인된다.



〈사진 1〉 연기 황용리 출토 도자기류



〈사진 2〉 청주 오송 출토 도자기류



〈사진 3〉 용인 보정동 출토 도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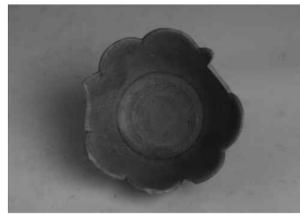
〈사진 4〉 김천 모암동 출토 도자기류



〈사진 5〉 청원 만수리



연기 합강리



파주 운정



고양 도내동 도당

〈사진 6〉 고려 전기 분묘 출토 화형잔과 잔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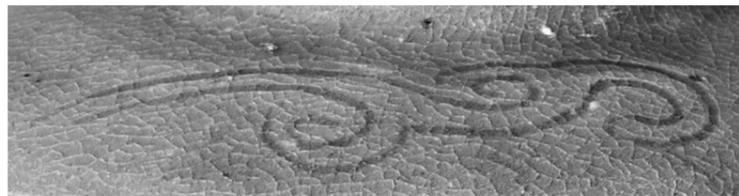
연기 장재리



인천 검단 원당동



충주 영평리



연기 황용리 출토 주자 세부



상주 청리

〈도 2〉 고려 전기 분묘 출토 도자의 무늬

전기 분묘 출토 도자기에 시문된 무늬는 연판문과 간단한 당초문이 있다. 연판문은 연기 장재리(百濟文化財研究院 2013) 출토 잔과 같이 단순한 음각문인 것이 있고, 인천 검단 원당동(중앙문화재연구원 2019a) 출토 발과 같이 동체 외면 상단에 음각의 반원문을 돌린 후 하단을 깎아 연판의 형태를 표현한 것도 있다. 후자와 같은 연판문은 발 뿐만이 아니라 완, 병, 주자 등 다양한 기종에 시문되었다. 그 밖에 매우 단순한 당초문 혹은 운문이 음각으로 시문된 예도 있는데 충주 영평리(中央文化財研究院 2009)에서 출토된 청자완의 내면과 연기 황용리 출토 주자의 견부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상주 청리 고분군(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b)에서 출토된 화형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형발은 청리를 포함해 포항 호동(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원동(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고령 지산동(嶺南文化財研究院 2006)등 경상도 분묘를 중심으로 출토된다.

그리고 평택 궁리(京畿文化財研究院 2006), 청원 만수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청주 율량동 당골(중앙문화재연구원 2011b), 연기 보통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11a) 등 비교적 많은 분묘에서 월주요산 청자완이 출토되었다.

2) 고려 중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특징

고려 중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에 볼 수 있었던 해무리굽완, 청자 편병과 도기 2면 편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병류가 출토되지 않으며, 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발과 접시가 출토

되는 것에 있다. 물론 단일 유구를 중심으로 보면 발, 접시, 병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단독으로 부장되는 예도 많이 있다. 동반 출토되는 유물은 소수의 청자완, 병, 잔과 잔탁, 주자, 매병, 유병, 정병, 항, 호, 합, 타호, 장신호, 통형 병, 표형주자, 베개 등과 도기 2면 편병, 매병, 항, 반, 호 등 매우 다양한 조합을 이룬다.



구포 덕천동



정흥 하방촌



정흥 신월리



〈사진 7〉 고려 중기 분묘 출토 도자기류

도자사에 있어 고려 중기는 청자의 절정기를 이루는 시기로 강진 가마터에서 보이는 연판문, 앵무문, 압출양각문 장식이 된 청자발류와 절요접시, 통형잔, 팽이형잔 등 일정한 유형의 청자 기종과 디자인이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새롭게 발달하며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시기이다(장남원 2006). 중기 분묘 출토 청자류도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양상이 보이나 연판문과 압출양각문의 수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으로 철화문이 시문되기 시작하여 발전하고 소멸되는 과정도 볼 수 있는 시점으로 파악된다. 중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퇴적 II층(國立中央博物館 1996, 1997) 출토 청자류가 있고, 준편년 자료로 활용 가능한 인종 장릉, 명종 지릉, 곤릉 등 왕실 무덤 출토품, 태안 대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마도 1·2호(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2011)와 같이 편년이 가능한 해저 출수 유물, 부안과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는 지방 청자 가마 출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기 분묘 출토 청자 중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칠곡 낙산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19b)와 성주 시비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분묘 출토품으로 판단된다.

칠곡 낙산리 1지점 2호 석곽묘에서는 청자 화형발, 화형발과 기형의 거의 유사한 형태의 발, 접시, 잔과 잔탁, 병, 장신호, 유병, 뚜껑류 등이 출토되었다. 화형발은 전기 분묘에서 보았던 상주 청리(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b)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도 2〉 참고). 그리고 접시, 잔과 잔탁, 병 등도 전기 양식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상단 왼쪽에 있는 장신호는 전기의 김천 모암동 분묘(嶺南文化財研究院 2003)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견부가 좀 더 곡면을 이루는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2지점 2호 토광묘에서는 1지점 2호 석곽묘에서 출

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발, 질적인 면은 차이가 있어 보이거나 기형은 매우 유사한 접시, 철화문이 시문된 반구형과 통형병 등이 출토되었다.



칠곡 낙산리 1지점 2호 석곽묘

칠곡 낙산리 2지점 2호 토광묘

성주 시비실

〈사진 8〉 중기 분묘 출토 청자류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전 단계의 유물상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새로운 형태나 기형이 추가되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칠곡 낙산리 출토 청자류는 12세기 전엽에서 중엽으로 편년되는 부산 녹산동 청자가마(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2) 청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동반 출토되는 청자의 조합도 유사하다. 따라서 전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칠곡과 부산 녹산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권역내에 속하는 두 지역의 유물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경상도 일대에 이와 유사한 유물을 제작했던 또 다른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칠곡 낙산리 1지점 2호 석곽묘와 2지점 2호 토광묘 출토품은 경상도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분묘 출토 청자의 일부는 강진이나 부안에서 생산된 양질도 있지만 대부분 조질 청자인 점도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당시 도자기의 유통은 근거리 중심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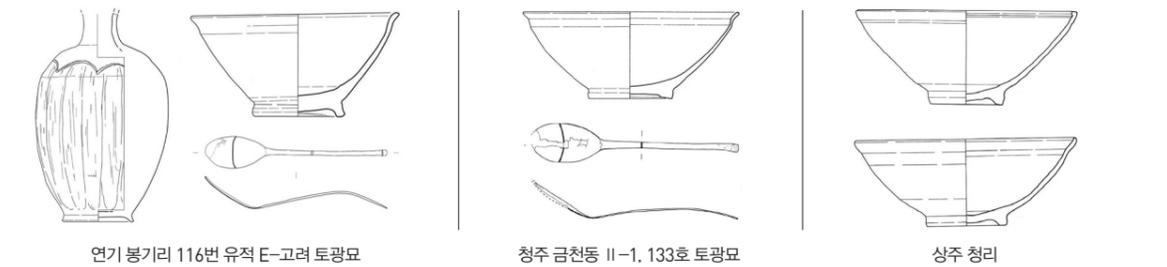
그리고 성주 시비실 분묘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청자발과 뚜껑이 조합을 이루어 합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타호, 호, 장경병, 호 등이 동반 출토되는데 타호를 제외한 전체 기종에 비교적 화려하고 역동적인 철화문이 시문되었다. 합신으로 사용된 청자발은 칠곡 낙산리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여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칠곡 낙산리와 성주 시비실 유적 출토 청자의 공통점 중에는 철화문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확인된다. 현재 초보적인 철화문은 전축요 단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나 본격적인 철화의 시작점은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유적의 청자류 성격으로 보아 철화문은 11세기 말 경부터 본격적으로 시문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이처럼 분묘 출토품은 동시에 매납된다는 특징과 더불어 여러 유물이 동반 출토되고 있어 유물의 조합상을 통해 교차 편년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분묘 출토품 중 철화문이 가장 많이 시문된 기종은 청자병이고, 중기 이후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철화청자류는 보이지 않는 특징도 있다.

그리고 고려 전기 분묘에서 중기 분묘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물의 조합상이 확인된다. 연기 봉기리 116번 유적(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E-토광묘에서는 청자발과 함께 도기 2면 편병,

⁴ 초보적인 철화기법의 발생은 전축요 단계 유물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철화문이 시문되는 것은 11세기 말로 판단된다. 그러나 좀 더 후대인 12세기 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윤용이 2018).

연관문이 시문된 청자병, 병부가 일직선을 이루는 청동순가락이 동반 출토되었다. 금천동 II-1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133호 토광묘에서도 봉기리 출토품과 유사한 발과 청동순가락이 출토되었다. 청자발은 굽이 높고, 동체는 곡면을 이루고, 구연 아래에서 한 번 만곡하며 외반하는 형태로 전기 분묘 출토 청자발 중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연관문이 시문된 병은 전기 분묘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이었고, 청동순가락도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술부가 유엽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봉기리와 금천동 등을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유물 조합을 보이는 유구는 전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발도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주 청리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b) 고려 분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형태의 발과 〈도 3〉에 제시된 발이 동반 출토 되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청자발의 조합은 해남 진산리나 인천 경서동 가마 출토 청자의 동반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해남 진산리에서는 시비실 청자류에 시문된 철화문과 유사한 형태의 무늬가 시문된 예도 있어 시기적으로는 매우 밀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천 경서동(國立中央博物館 1990)과 해남 진산리(木浦大學校博物館 1992) 가마의 운영시기이다. 인천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청자는 소위 녹청자로 불리는 것으로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다. 이 두 가마를 중기 청자가마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강진과 부안의 청자양식이 공유된 이후로 보기도 한다(장남원 2006), 그러나 분묘 출토 도자기류를 중심으로 보면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비교적 이른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 경에는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묘출토 도자의 꼼꼼한 분석은 현재 도자사에서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다.



연기 봉기리 116번 유적 E-고려 토광묘

청주 금천동 II-1, 133호 토광묘

상주 청리

〈도 3〉 고려 중기 출토 청자발류

청자발은 내저원각식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내저면이 곡면을 이루거나 음각선이 둘러진 예도 있다. 동체는 전기에 비해 다소 사면을 이루고, 구연은 외반, 직립, 내만하는 형태를 보인다. 구연부를 약간 깎아 화형을 이루거나 동체를 눌러 화형을 만든 것도 있다. 접시도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데 평굽이나 안굽의 수가 증가하고, 소형접시의 유형도 증가한다. 내저면이 넓고, 내저면 가장자리에서 꺾여 올라가는 소위 절요접시라고 하는 형태가 많고, 뚜껑형태와 유사한 뚜껑형 접시, 화형전접시 등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중기 분묘에서는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지 않았던 장경병, 매병, 표형주자 등 다양한 병 종류가 출토된다. 장경병은 성주 시비실과 서천 추동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시비실 출토 장경병의 외면에는 철화문이 시문되었고, 서천 추동리(忠淸文化財研究院 2008)출토 장경병은 무문과 음각의 연화절지문이 시문되었다. 매병은 충청도에서 출토 빈도가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씩은 확인된다. 문경 모전동(嶺南文化財研究院 2003)에서 출토된매병은 해남군 진산면 제품으로 추정되는 완도 어두리(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출수품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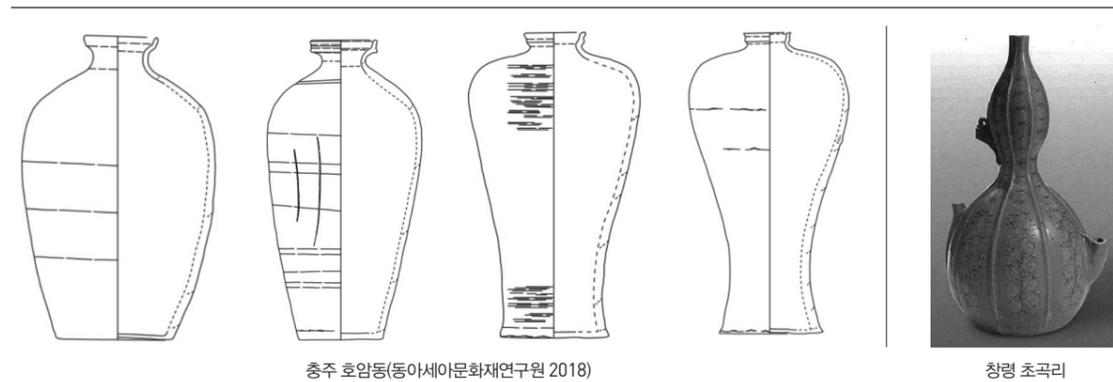
한 모양을 띠어 출토된 청자 매병 중에는 가장 이른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중반경으로 편년 가능하다. 청원 만수리(中央文化財研究院 2007) 출토 매병은 태안 마도 2호 선(해양문화재연구원 2011)에서 출수된 매병류와 형태가 유사하여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의 특징을 볼 수 있다.⁵ 공주 금학동(忠淸文化財研究院 2002) 출토 매병은 가장 늦은 단계로 13세기 중반 경으로 볼 수 있다(이종민 2006). 매병의 동체에도 철화문이 시문되었다.



〈도 4〉 고려 중기 분묘 출토 청자 장경병과 매병

도기 매병도 상당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충주 호암동 유적(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에서는 중기 전 기간과 후기양식의 매병이 순차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단일 유적에서 매병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이들과 동반된 유물을 살펴으로써 동반 출토된 유물의 시기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모양은 청자와 유사하여 중기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13세기 중반의 전형적인 양식의 상감문이 시문된 표형주자도 동반된다. 표형주자는 12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4세기까지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령 초곡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목이 가늘어지고, 상하 동체도 가름해지는 것은 13세기 이후의 것이다(최미향 2011). 무늬는 도장을 이용해서 국화문을 반복적으로 찍고 있으나 줄기, 입, 작은 봉우리 꽃은 흑백상감으로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표형주자의 특징을 종합하면 13세기 중반경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주 호암동(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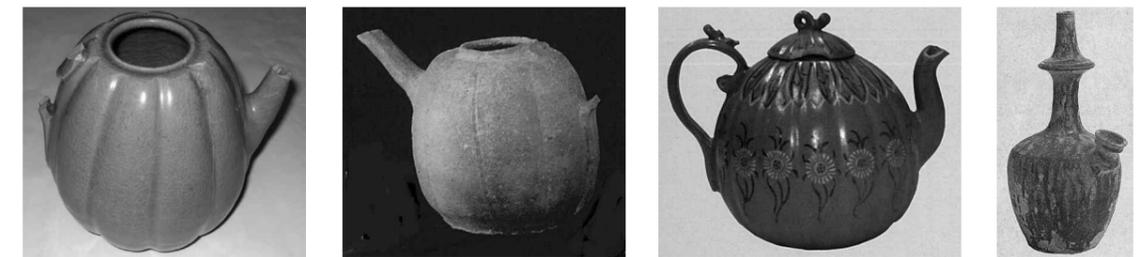
창령 초곡리

〈도 5〉 고려 중기 분묘 출토 도기 매병 및 청자 표형주자

5 마도 2호 선에서 출수된 청자류는 죽간을 통해 1213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형 주자를 제외하면 〈사진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체는 대부분 과형을 이룬다. 과형주자는 청자뿐만 아니라 호암동(충주박물관 1998) 출토 주자와 같이 도기로 제작되기도 한다. 단월동(충주박물관 1992) 출토 주자와 호암동 출토 도자는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 제작시기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형태의 과형병은 동반 출수된 죽간의 내용을 해석하여 제작시기를 1207년 이전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태안 마도1호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출수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단양 현곡리(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08) 출토 주자는 동체는 과형을 이루나 구연부가 좁아지는 형태를 띤다. 외면에는 상감국화절지문을 시문하여 주문양으로 삼았다. 무늬는 반복적이고 일부 도식화된 부분이 있으나 전면을 뾰뚱하게 채우지 않은 점을 보면 13세기 전·중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흑유로 제작된 정병이 있는데 동반 출토된 금속정병과도 유사하나 재료의 특성상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충주 단월동

충주 호암동

단양 현곡리

창령 초곡리

〈사진 9〉 고려 중기 분묘 출토 주자와 정병



경주 물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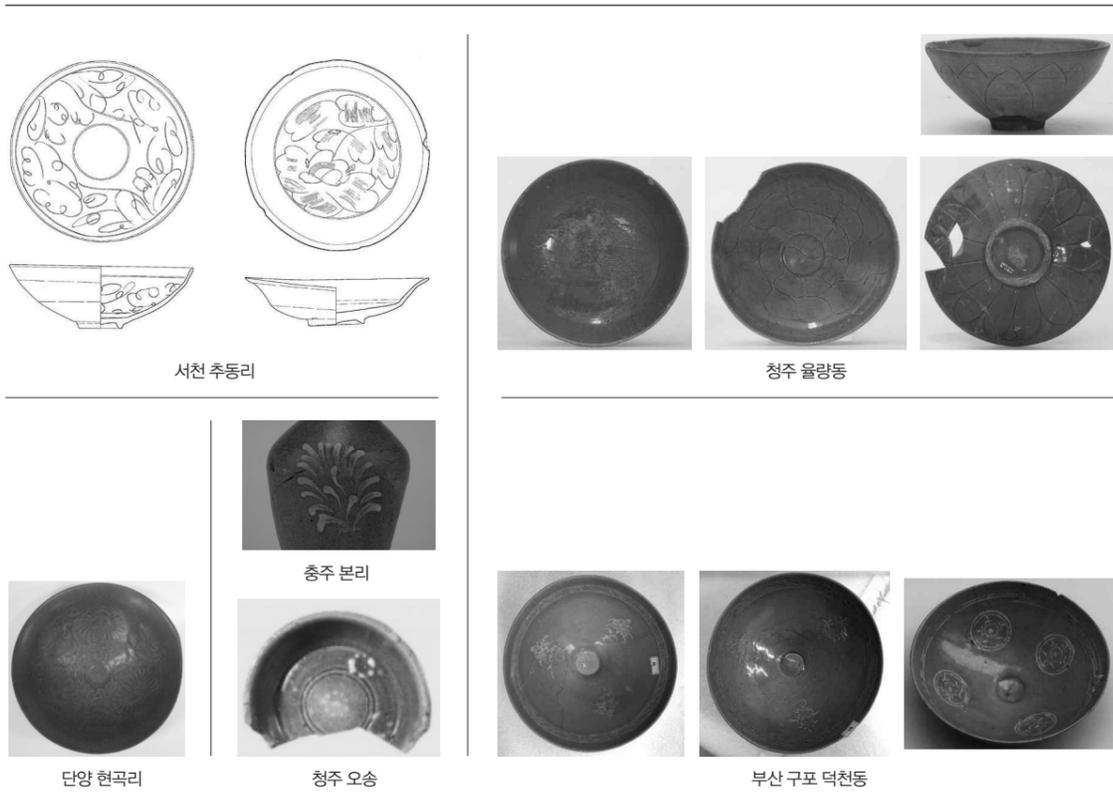
경산 입당동

충주 호암동

〈도 6〉 고려 중기 분묘 출토 도기병

이제 도기병을 살펴보면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2면 편병이 지속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둥근 동체의 반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경상도를 중심으로 동체 외면을 눌러 화형을 만든 예와 점열문 등을 찍어 주름무늬병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주름무늬병의 병은 유병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동체의 무게중심이 하단으로 쏠리는 형태의 병도 다수 보인다(도6). 병은 청자와 도기를 막론하고 고려 분묘에서 기본 구성을 이루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늦은 시점에서 부터는 이전에 거의 출토되지 않던 도기 단정호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중기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의 무늬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음·양각문, 압출양각문, 철·백화문, 상감문 등이 확인된다. 음각문은 연당초·앵무·과도문·연관문 등이 있고, 연관문은 울랑동(中央文化財研究院 2011b) 출토



〈도 7〉 중기 분묘 출토 청자 문양 유형



〈사진 10〉 중기 분묘 출토 중국 도자류

품과 같이 양각으로 시문되기도 한다. 압출양각문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상감문은 모란절지, 국화절지, 여지문 등이 주로 시문되었다.

마지막으로 출토된 중국도자를 보면 전기에는 월요가 중심이 되었으나 중기에는 경덕진, 복건성, 정요 등 비교적 다양한 가마의 중국도자가 수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출토된 중국 자기는 백자와 흑유가 중심이 된다. 특히 최근 마도해역에서 복건성 도자가 발굴되어 당시 중국과의 무역도자를 가늠할 수 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3) 고려 후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특징⁶

고려 후기는 원간섭기로 도자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14세기 자기소의 해체는 전국 각지에서 청자의 제작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민간수공업의 발달로 전업 수공업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수공업품의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이다(전익주 1995). 경상도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상감청자류가 출토되는 것이 이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분묘 출토품의 구성은 중기에 비해 조금 단순해지는 경향이 보이고, 철화문이 시문된 청자류와 중국도자의 출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는 발, 접시, 잔, 병으로 간단해지고, 도기는 병, 유병, 호, 장신호, 편호, 표형병, 정병 등이 있다. 기종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후기를 대표하는 편년자료는 간지명 청자류와 노국공주의 무덤인 정릉 출토 청자류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에서 볼 수 있는데 〈사진 11〉의 경주 화천리(국립경주박물관 2016) 출토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구병이 중심이 되던 중기와는 달리 동체의 최대경이 하단에 있고, 좁고 긴 목위에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소위 옥호춘병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도기병의 경우 하단에는 하나의 투공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번조받침의 변화가 보이는데 중기부터 양질 청자류에 사용되었던 규석이 사용되나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모래, 모래비짐, 내화토비짐, 모래 섞인 암갈색의 진흙비짐, 태토비짐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가장 늦은 시기의 청자류는 태토비짐을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굵은 모래를 받침으로 하여 단독 번조된 경우가 증가한다. 발과 접시 등 가장 기본 단위를 이루는 기종의 기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발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는데 중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형태로 내저원각이 있으며 기심이 깊은 것과 내저원각이 없이 기심이 얇은 것, 입지름이 좁아지며 기심이 깊어지고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 등이 확인된다. 이를 중심으로 내저원각식, 내저곡면식, 구연외반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중기 분묘에서 출토된 발과 비교하면 기벽이 두꺼워지고, 입지름이 넓어져 다소 묵직하고 대형화 되는 경향이 있다. 발은 무문인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나 상감여지문, 여지국화문, 운학문, 화훼문, 유로수금문, 국화문, 운봉문, 연당초문 등 다양한 상감문이 시문되었다. 시문된 무늬의 종류와 형태는 〈도 9〉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다.

발에 시문된 상감문은 많이 퇴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른 시기에는 비교적 좀 더 사실적인 모양을 보이거나 후기



〈사진 11〉 고려 후기 분묘 출토 도자기류

⁶ 발표자가 후기 분묘 도자를 정리한 글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남진주 2016).

로 가면서는 백상감된 2중 원문 안에 간단한 무늬를 시문하고 외면은 무문이거나 횡선 정도를 돌리는 예가 증가한다. 이 중 연당초문은 노국공주 무덤인 정릉(1365~1374) 출토 <청자상감정릉명연당초문발>의 무늬와 유사한 형태로 1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된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연당초문은 분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도 8> 고려 후기 분묘 출토 청자발 유형도

접시는 사선형, 원형, 팔각, 화형전접시, 화형접시 등이 있다. 원형접시는 시기가 지나며 내저면에 한 줄이나 두 줄의 음각원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고, 팔각접시는 각이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보인다.

호는 원형이 단경호 형, 편호, 장신호 등이 출토되고, 병은 경상도 일부에서 반구병이 출토되기도 하나 대부분 옥호춘병의 형태로 바뀌었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표형병과 정병이 확인된다. 경상도 분묘에서 출토된 유병에 서는 드물게 점열문이 시문된 예도 보인다.

III 고려 분묘 출토 도자기류의 지역적 특색

지금까지 고려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유형을 중심 중심으로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출토품의 대부분은 동시대성을 띠며 유사한 형태로의 변화를 보이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지역색이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토된 유물의 조합상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전라도는 많은 수의 유적이 발굴되지는 않았다. 전기의 유물상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특히 청자의 제작이 강진과 부안으로 집중되는 전기 후반부 이후 분묘에서는 동반 출토되는 자기의 유형과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반되는 금속유물 중 일상용기인 발, 접시의 출토 빈도가 매우 낮은 것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분묘에서는 도자기류와 금속유물이 서로 보완하며 기종이 대체된다. 따라서 전라도의 경우 주변에서 생산된 청자의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후기 분묘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기본 조합을 이루는 기종은 발, 접시, 병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물론 고려 전기 분묘 출토품에서는 완이 발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후기 분묘에서는 병의 수는 줄고 편호나 장신호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충청도에서는 중기 분묘를 중심으로 청자를 비롯한 자기 매병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경기도와 경상도 일부에서도 확인되나 그 수에 있어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고려 중기 분묘에서 매병이 충청도에 집중되는 현상은 현재로써는 발굴된 중기 분묘가 충청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타지역 발굴의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면 차후에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상도는 전통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름무늬병은 전기 분묘에서도 비교적 이른 10세기에 주로 부장되는 유형이나 경상도에서는 점열문 등으로 약화되기는 하지만 중기에 집중되고, 후기에도 소량이지만 출토된 예가 있다. 그리고 화형발을 비롯한 화형을 띠는 도자기류가 집중 출토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기 이른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지 않는 자기 반구병이 출토되고, 자기 옥호춘병의 부장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늘어나며, 상감청자의 출토 빈도도 매우 높다. 이것은 경상도의 지역색이 보이는 일면일 수도 있고, 혹은 대규모 후기분묘가 경상도에 집중되어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국화문과 국화여지문		문학문		화채문
경주 관천리	청도 대권	경주 화천리	서천 수동리	경주 권단리
표류수공문	국화문	은봉문	연당초문	
경주 권단리	안산 대부도 북곡	경주 권단리	청도 대권	오산 곽동

<도 9> 고려 후기 분묘 출토 청자발 문양도

사선형접시			원형접시	팔각형접시	화형전접시	화형접시
청도 대전II	청도 대전 II	울산 한지굴	경주 녹동리	청도 대전II	청도 대전 II	경주 권단리

<도 10> 고려 후기 분묘 출토 접시 유형도

Ⅳ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분묘 출토 도자기류의 시기별 특징과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분묘 출토품은 동시대성을 띠며 고려 도자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시기별로 동반 출토되는 유물의 조합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지역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구성은 완, 접시, 병으로 시작되나 11세기 한국식 해무리굽이 주요 기종으로 자리잡는 시점에서부터 청자발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선해무리굽완, 과도기식 해무리굽완, 한국식 해무리굽완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선해무리굽완과 과도기식 해무리굽완이 중심이 되는 전기의 상반부는 통일신라시대 영향이 짙은 도기 주름무늬병, 1·2·4면 편병류, 편구병, 장경병, 등잔 과 더불어 청자는 옥연형 접시와 잔, 금속기나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영향이 보이는 장경병, 1면 편병, 동체가 원형인 형태의 반구병, 유병이 중심이 된다. 그 외 동일한 형식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도기발 일부가 확인된다.

해무리굽완이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11세기 초반 이후에는 도기 주름무늬병, 편구병과 동체가 매우 둥근 청자 장경병 등을 제외한 이전 단계의 유형이 지속된다. 그와 함께 발이 동반 출토되기 시작하고, 청자접시·완·병·유병, 도기병 등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추가되는 양상을 띤다. 청자 2면 편병과 도기 향완도 새롭게 추가되는 기종이다. 무늬는 음각 연판문, 상단에 반원형의 음각선을 돌린 후 하단을 깎은 형태의 연판문, 간단한 초문 혹은 운문이 확인된다. 중국도자는 월요에서 생산된 청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에 볼 수 있었던 해무리굽완, 청자 편병과 도기 2면 편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병류가 출토되지 않으며, 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발과 접시가 출토되는 것에 있다. 물론 단일 유구를 중심으로 보면 발, 접시, 병을 중심으로 구성되나 단독으로 부장되는 예도 많이 있다. 동반 출토되는 유물은 소수의 청자완, 병, 잔과 잔탁, 주자, 매병, 유병, 정병, 항, 호, 합, 타호, 장신호, 통형병, 표형주자, 베개 등과 도기 2면 편병, 매병, 항, 반, 호 등 매우 다양한 조합을 이룬다.

시문된 무늬는 철·백화문을 비롯해 음·양각 연판문, 음각의 모란당초·연당초문, 파도문, 앵무문, 다양한 압출양각문과 상감문이 있다. 중국자기는 경덕진, 복건성, 정요 등 다양한 가마의 도자기류가 확인된다.

후기 분묘 출토 도자기의 조합은 청자는 발, 접시, 잔, 병으로 간단해지고, 도기는 병, 유병, 호, 장신호, 편호, 표형병, 정병 등이 있다. 중국도자의 출토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형태도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수의 청자는 무문이지만 상감청자의 수도 늘어나는데 시문된 무늬는 여지와 여지국화문, 운학문, 화훼문과 유로수금문, 국화문, 운봉문, 연당초문 등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색도 확인된다. 청자 생산지가 가까운 전라도는 동반 출토되는 자기 유형과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중기 충청도 분묘에서는 청자와 도기류 매병의 출토 빈도가 높고, 후기 경기도 분묘에는 병의 수가 줄고 편호나 장신호의 양이 증가하는 특징도 보인다. 경상도는 전통성이 강해 전기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도기 주름무늬병이 중후기까지 출토되고, 화형발을 비롯한 화형을 띠는 도자기류가 중기 이른 시기까지 집중되는 현상도 보인다. 후기에는 도기 옥호춘병의 부장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늘어나며, 상감청자의 출토 빈도도 높다.

지금까지 고려 분묘 출토 도자의 시기별 특징과 지역색 등을 살펴보았는데 빠진 자료도 있고 보충해야 할 자료는 차후 보충하여 필요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6, 『平澤 宮里 遺蹟』.
- 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08, 『성주 시비실유적』.
- _____, 2005, 『浦項市 虎洞 쓰레기 埋立場 擴張敷地 內 浦項 虎洞遺蹟』.
- _____, 2015,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4-2生活圏(2-3-B地點) 燕岐 黃龍里·鳳起里·芙蓉里·石橋里遺蹟』.
- 국립경주박물관, 2016, 『고려시대의 경주』.
- 國立中央博物館,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 _____, 1996,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
- _____, 1997,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 2009, 『高麗靑磁 寶物船 大안 대섬 수증발굴 조사보고서』.
- _____, 2010, 『태안마도 1호선』.
- _____, 2011, 『태안마도 2호선』.
- _____, 2013,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忠州 虎岩洞 複合遺蹟』.
-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 _____, 2007, 『장흥 신월리유적』.
- 百濟文化財研究院, 2013,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2-2地區 燕岐 長在里 遺蹟』.
-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莞島海底遺物』.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08, 『丹陽 玄谷里 高麗墳墓郡』.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金泉 帽岩洞遺蹟Ⅱ』.
- 우리문화財研究院, 2010, 『昌寧 草谷里 遺蹟』.
- 윤용이, 2018, 「고려 철화청자의 성립과 발전」, 『고려 철화청자』, 국립제주박물관.
- 이익주, 1995, 「고려 후기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세력의 추이」, 『한국사-중세사회의 성립』.
- 李鐘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06, 「고려시대 靑磁 梅瓶 연구」.
- 장남원, 2006,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07, 『五松生命科學團地 造成事業敷地內 淸原 萬水里 墳墓遺蹟』.
- _____, 2009, 『忠州尖端地方産業團地 造成事業敷地內 忠州 本里·永平里·完五里遺蹟』.
- _____, 2011a,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遺蹟(2-5지점) 燕岐 汎通里遺蹟』.
- _____, 2011b, 『청주 울량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청주 울량동 유적』.
- _____, 2014, 『高陽 元興보금자리 住宅地區 內 高陽 道內洞 都堂遺蹟』.
- _____, 2018, 『청주 오송유적』.
- _____, 2019a,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부지 IV지점 내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유적』.
- _____, 2019b,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3·4공구) 내 대구 동호동·관음동 유적, 칠곡 낙산리·용산리 유적』.
- 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14,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4-1·2생활권 2-3-A지점 燕岐 石三里대박골·鳳起里·盤谷里遺蹟』.
- 崔美香, 2011, 『고려시대 청자 주자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충주박물관,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 _____, 1998,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忠淸文化財研究院, 2002, 『公州 金鶴洞 古墳郡』.
- _____, 2008, 『서천 추동리 유적(Ⅲ지구)』.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a, 『慶山 林堂遺蹟』.
- _____, 1998b, 『尙州 靑里遺蹟』.
- _____, 2000, 『淸州 龍岩遺蹟』.
- _____, 2003, 『浦項 院洞 第3地區-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海剛陶磁美術館, 2001, 『方山大窯』.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

한국문화연구원 허선영

I. 머리말

II. 동기의 출토위치 및 상태

III. 고려 분묘 출토 동기의 등장시기

IV. 동기의 출토상황으로 본 사료해석에 대한 재고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 분묘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로 2000년대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주제는 묘제뿐만 아니라 출토유물 또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는 청자가 있다.¹ 이외에도 최근에는 도기, 숟가락, 가랑비너, 과대, 동경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되었다.²

한편, 분묘에서 출토되는 銅器는 주로 청자의 동반유물로서의 검토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銅器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후기~조선시대의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삼거나, 전국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³

이번 글은 銅器에 대한 형식분류와 시기별 변화 양상보다는 지금까지 연구방향에 있어 새롭게 접근해 보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동기의 출토위치와 상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고려 분묘에서 출토된 동기의 등장시기 상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에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편년 설정을 동반되는 청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려가 건국된 918년에서 청자가 제작된 시기, 즉, 10세기 중반까지의 상황은 누락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자료로 도기를 활용하여 동기의 매납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기의 출토상황으로 본 사료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동기를 고려 전중기에 주로 사용하다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반대로 동기의 사용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고고학적으로 다시 살펴보았을 때 사료의 해석이 달라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남진주, 1998, 「상주 청리 고려 고분군 출토 청자」,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희인, 2003, 「충북지방 고려시대 고분 연구-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경화, 2005, 「영남지역 고려 묘 출토 청자에 대한 편년연구」, 경상대학교석사학위논문.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 출토 청자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상희, 2005, 「고려분묘 출토 녹청자의 편년연구-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종민, 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 연구-소비방식의 관점에서」, 『역사와 담론』46집, 호서고고학회.
김은경, 2008,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물』제5호, 한국문화연구원.
남진주, 2017, 「고려전기 분묘 출토 도자의 편년과 변화 양상」, 『한국중세고고학』2호, 한국중세고고학회.
- 주영민, 2004, 「고려시대 분묘 연구-도기편년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정의도, 2007, 「한국고대청동시지연구-고려시대-」, 『석당논총』38, 석당학술원.
한정희, 2012, 「분묘 출토 자기를 통해 본 고려도기의 편년」,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순정, 2014, 「고려시대 영남지역 분묘 출토 장신구 연구」, 『문물』제4호, 한국문화연구원.
설지은, 2015, 「호서지역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동경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전병진, 2018, 「고려시대 鈔帶 연구」, 『미술사학연구』, 297호, 한국미술사학회.
한해선, 2019, 「고려도기 연구」, 역락.
- 신은제·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의 유행과 그 의미-고려시대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석당논총』51호, 석당학술원; 구자경, 2011, 「고려후기-조선전기 영남지역 분묘 출토 청동완의 연구」, 『문물』창간호, 한국문화연구원; 이상용, 2011,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청동완·시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주영민,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57, 역사교육학회; 맹세환, 2018, 「고려-조선 전기 분묘 출토 청동발의 특징과 편년」,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한해선, 2019, 「고려시대 器皿의 조형 공유 양상과 상호관계-병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고려시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II 동기의 출토위치 및 상태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크게 식기류와 장신구,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기류는 다시 용기와 시저로 구분할 수 있다. 용기는 다시 재질에 따라 동기·자기·도기류로 나뉜다. 동기는 뚜껑과 함께 짝을 이루는 합, 그리고 발, 접시, 완 등이 출토되고 자기는 발, 접시, 완, 병 등을 중심으로 부장되며, 도기는 병이 가장 많이 확인된다. 그 외에 잔도 부장된다. 식기류 중 시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장신구는 가랑비녀와 철제 관모테와 과대가 부장되었으며 기타 소도자, 불명 철기, 동전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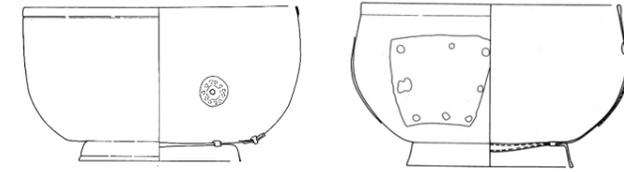
〈표1〉 동기의 동반유물과 출토위치(허선영, 2015, 표 3 수정 후 인용)⁴

연번	유물	출토위치	목관 사용									합계	목관 미사용			기타	합계	최종 합계 (유구수)
			관내			관외							두부	중앙	발치			
			두부	중앙	발치	바닥			위									
1	동기류	2	1	11	0	2	12	2	2	22	32	2	0	1	1	35	58(44)	
2	자기류	10	6	32	0	5	17	7	9	45	86	11	1	14	12	112	169(93)	
3	도기류	1	0	6	0	2	14	3	3	29	29	0	0	5	1	6	64(61)	
4	시저	4	2	16	0	3	14	5	3	31	47	3	0	4	3	54	88(76)	
5	장신구	가랑비녀	38	1	1	1	0	0	0	0	41	3	1	0	1	45	46(46)	
6		동경	6	0	3	1	1	0	1	0	12	1	0	0	2	13	15(15)	
7	기타	가위	5	1	4	1	0	0	1	0	12	0	1	0	1	13	14(14)	
8		청자소합	3	0	1	0	0	0	0	0	4	0	0	0	0	4	4(4)	
9		도자기 소형 병	39	8	36	6	3	6	4	3	105	15	2	7	12	129	151(149)	
10		철편	1	19	1	2	3	3	0	0	29	0	0	0	0	29	29(27)	

먼저,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용도와 성격에 따른 출토위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고려 시대의 묘제는 축조재료와 장법에 따라 크게 석곽묘, 목관묘, 직장묘, 화장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석곽묘와 목관묘는 시신을 매장할 때 목관을 사용하는데 매장주체부와 함께 목관 안에 들어가는 유물과 목관 밖에 부장되는 유물의 성격이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⁵

4 이 표는 소형병을 중심으로 출토된 부장유물을 棺内 혹은 棺外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이다. 출토위치의 추정치는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토층과 관정의 출토위치를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소형병은 여성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가랑비녀·동경·가위 등과 함께 부장되기 때문에, 남성의 전유물인 철제 과대나 관모테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물』5호, 한국문화연구원.

5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22-82.
 김은경, 2008,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92-95.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 『문물』5호, 한국문화연구원, pp.91-101.
 김재홍, 2017, 「충주 호암동 복합유적 고려시대 분묘 연구」, 『한국중세고고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중세고고학회, pp.15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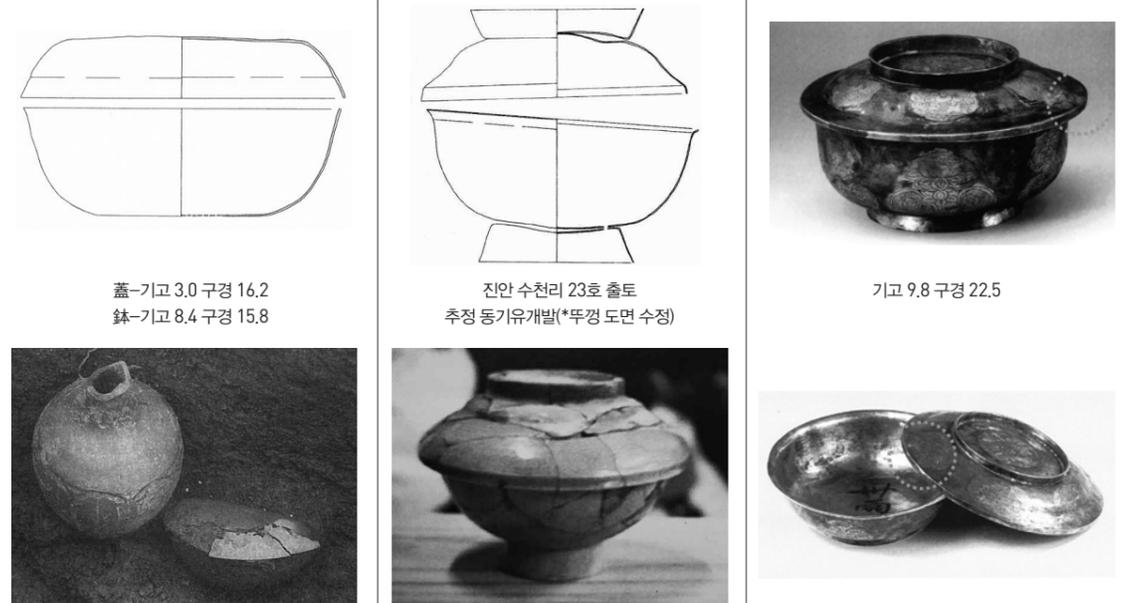
김해 죽곡리 유적 II 33호묘 안성 신동리 유적 나지구 43호 토광묘

〈도 1〉 보수흔이 있는 銅器

주로 식기로 사용된 청자발·접시·병, 동기합·발·접시, 도기병, 그리고 시저, 등은 관외의 발치 쪽 보강토 위 혹은 묘광(석곽)과 목관 사이의 공간에 가장 많이 매납되었고, 가랑비녀, 동경, 철제가위, 등은 관내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특히, 가랑비녀는 여성의 머리장식으로 두부에서 대

부분 확인된다. 파쇄된 철부나 판상철기, 동전은 관내의 중앙이나 관을 따라 외곽에 놓기도 하는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관의 내부에 부장되는 것은 주로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거나 신체에 지니고 다녔던 소형의 물품들이 대다수이며, 외부에 부장되는 것은 시신을 안치한 뒤 제사용으로 사용하고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사용구는 피장자의 死後에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사용하였던 것을 매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 숟가락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했을 때 입술에 닿는 왼쪽부분이 닳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⁷ 동기 또한 보수흔적이 확인되거나 내부에서 유기물이 확인되는 등, 피장자의 생전에 일상적으로 사용



蓋-기고 3.0 구경 16.2
鉢-기고 8.4 구경 15.8

진안 수천리 23호 출토
추정 동기유개발(*뚜껑 도면 수정)

기고 9.8 구경 22.5

공주 금흥동 1-3호 토광묘
출토 동기유개발

영암 성룡사지 오층석탑
청자유개발(1009년)⁸

기고 9.7 구경 21.0
중국 서안 하가촌 출토 금속기명

〈도 2〉 동기유개발로 추정되는 유물(허선영, 2019, 그림 2 인용)

(*단위 cm)

6 사후세계에서도 현세와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는 믿음에서 부장품을 별도로 제작하기보다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부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식기와 저장용기가 주로 확인되었다.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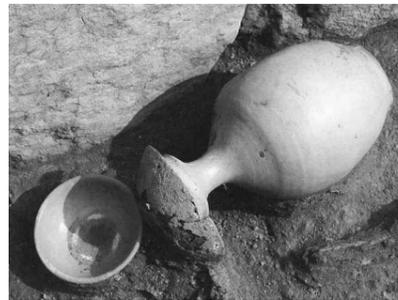
7 자루를 아래로 하고 보았을 때 술부의 왼쪽 하단이 닳아 있어 숟가락을 사용한 사람(박익선생)은 생전에 오른손잡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의도, 2014, 「송은 박익선생묘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해석」, 『한국 고대 숟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p.450. 또한, 조선시대의 예이지만 창원 가음정동 2호 조선통보3점과 장릉형 숟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술날은 장기간 사용하여 닳아있다. 정의도, 2014, 「조선 후기 숟가락의 변화」, 『한국 고대 숟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p.573.

8 1986년 전남 영암군 성룡사지 오층석탑 사리공에서 統和二十七年 명 탐지석과 발견되었다.

하던 식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도 1) 묘광의 가운데에 매납되는 첩편은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출토 위치와 정황으로 보아 의례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동전을 대신하여 지신에게 땅을 매입하는 의미로 놓았거나 벽사의 기능을 하였을 것을 판단된다. 그리고 동전과 함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전을 매납 할 수 없었던 피장자가 이를 대신하여 부장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⁹ (표 1)

다음으로 동기의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동기는 뚜껑과 함께 짝을 이루는 합, 그리고 발, 접시, 완, 병 등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유물은 출토상황에서 뚜껑과 분리되어 위치해 있을 때에는 발과 접시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합, 발, 접시의 구분이 쉽지 않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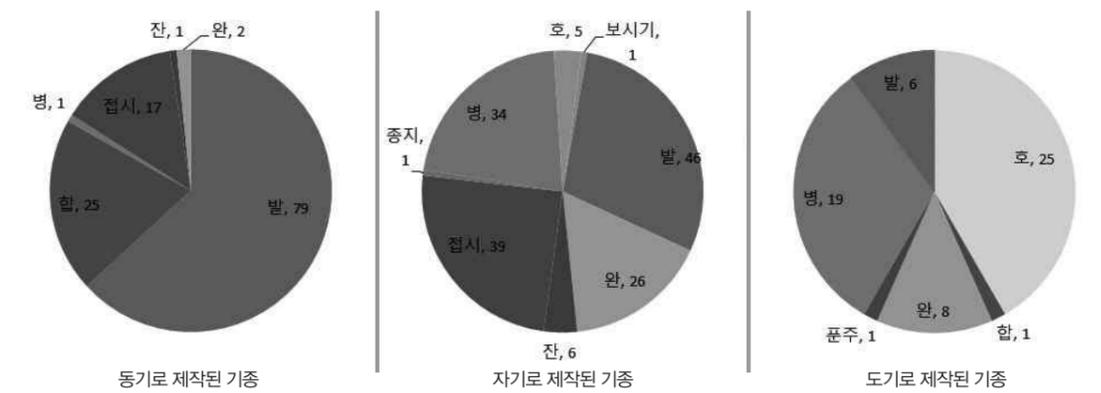
공주 금흥동 1-3호에서는鉢위에 蓋가 덮여져 세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출토되었는데 개의 형태는 다른 분묘에서 쉽게 확인되는 접시가 뒤집어진 형태로 봉분의 매몰과정에서 흐트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수의 유물이 이러한 합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진안 수천리 23호의 발 1점과 대부발 2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대부발 2점 중 1점은 구연의 형태와 깊이 등으로 보아 뚜껑으로 판단되었으며,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청자유개발과 유사성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금속기명에서도 확인된다.(도 2)



〈도 3〉 동기완이 병의 뚜껑으로 사용된 예 (서천 남천리 고려 석곽묘) (허선영, 2019, 그림 3 인용)

그리고 동기완은 주로 도기나 자기로 제작된 병과 동반되는데 출토상황을 통해 음식을 담은 용기로서의 역할과 함께 매납된 병의 뚜껑 역할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러한 추측은 서천 남천리유적 고려 석곽묘에서 동기완이 청자병 위에 얹어진 채로 출토된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도 3)

〈표 2〉 재질과 기종의 상관관계(주영민, 2015, 도표 1~3 수정 후 인용)



한편,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면, 식기류 중 용기류는 재질에 따라 선호되는 기종이 있기도 하고, 일부는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기는 발(혹은 합)이 주로 제작되었고, 도기는

⁹ 김은경, 2008,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p.95.

¹⁰ 이와 비슷한 형태로 무문의 청자완이 토기편병의 뚜껑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52.)

병, 자기는 발과 접시, 병으로 제작되었다.(표 2) 이와 같이 자기나 도기로 된 병이 많은 이유는 주형을 만들고 구리와 주석을 용융하는 등의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제작공정이 필요한 구리로 병을 만들어 실용기로 사용하기보다는 흙을 빚어 번조하는 자기와 도기병의 제작과 사용이 용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¹ 서로 다른 재질이지만 동일 조형으로 제작되면서 다른 재질의 특징요소를 모방하기도 하고 역할을 대체하기도 했으며, 위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자기와 금속은 대체관계이지만 도기는 이 둘 보다는 하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¹²

그리고, 액체류를 담은 병을 제외한 발, 접시, 완 중 가장 큰 기종인 발이 동기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시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연구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아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으로 차후에 이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Ⅲ 고려 분묘 출토 동기의 등장시기

통일신라시대 분묘의 부장품은 병과 완, 뚜껑 등의 토기와 동제 또는 철제 과대 등으로 단출하게 구성되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부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데, 두드러지는 것은 자기와 동기, 숟가락 등 금속기가 부장품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¹³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동기의 등장시기를 청자의 편년¹⁴에 맞추어 설정하다보니 동기의 등장시기의 상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청자의 개시시점은 연구자마다 일부 의견차가 있으나 근래에는 10세기 중반, 구체적으로는 939~949년에 개시되었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렇다면 이러한 편년에 의해, 연구를 진행할 경우 동기를 포함한 많은 유물들이 고려가 건국된 918년에서 청자가 개시되는 10세기 중반까지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상황은 누락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청자의 편년뿐만 아니라 동기와 함께 다수 동반되는 도기 등의 발굴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동기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자기와 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전기 자기의 생산은 완이 중심이고 이외에도 발, 잔탁, 화형접시, 주자 등도 제작된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완은 10세기 전반기는 선해무리굽완이 중심이 되고, 10세기 후반부가 되면 선해무리굽완이 줄어들고 내저곡면에 굽 폭이 넓어지는 해무리굽이 나타나며 10세기 말경부터 내저원각이 있는 한국식 해무리굽이 나타난다. 11세기대에는 한국식해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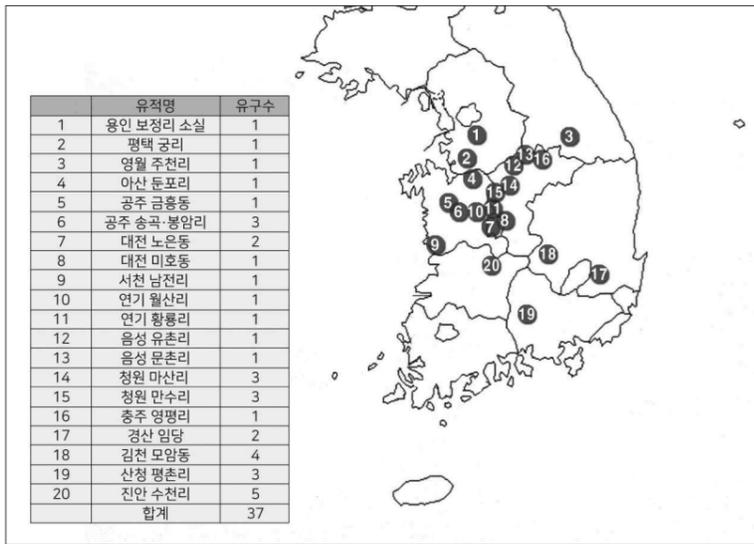
¹¹ 주영민,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 57, 역사교육학회, p.195.

¹² 한해선, 2019, 『고려시대 器皿의 조형 공유 양상과 상호관계-병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중세사학회.

¹³ 이희인,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한국중세고고학회, p.44.

¹⁴ 청자의 시기 구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근의 학계의 동향에 따라 크게 전기·중기·후기 등 3시기로 나누었다. 우선 이종민은 전기 청자의 기간을 약900-1083년경으로 보고 변화양상을 3기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최근의 연구에서 나말여초 정치상황과 축요 방법, 출토 유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청자의 발생을 939-949년으로 설정하였다.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塼築窯와 出土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한국중세고고학회. 장남원은 번조방법이나 상감기법의 정교함 등에서는 무신란을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1세기말에서 13세기 중반의 약 150여년간을 중기로 설정하고 있다. 장남원, 2006, 『고려중기 청자 연구』-이화연구총서 3-, 해안. 한성옥은 고려 후기를 대몽항쟁 이후 13세기 2/4분기에서 고려 말까지로 보고 기형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한성옥,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성격-기형과 태토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석사학위논문.

¹⁵ 주영민의 청동용기 편년연구는 청자 개시시기를 9세기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주영민,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 57, 역사교육학회.



〈도 4〉 고려전기 분묘 현황(허선영, 2019, 그림 1 인용)

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완과 잔탁류, 환조연판문완, 전접시, 잔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발이나 완의 경우 이전의 무문에서 음각국당초문이나 환조연판문이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¹⁶

도기는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주로 유행하였던 편병과 편구병, 주름무늬병, 반구병, 발, 잔 등이 제작되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자의 영향이 도기에 나타나

청자해무리굽을 모방한 완이 제작되기도 한다.¹⁷

이에 근거하여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 청동·용기가 출토된 유적은 20개이며 37기의 유구에서 청동·용기 61점이 출토되었다. 전국에서 청동·용기가 출토된 유적은 〈도 4〉와 같고, 각 유구별 청동·용기와 동반유물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고려시대 전기 분묘 출토 청동·용기 현황(20개 유적, 37기 유구, 61점 유물)(허선영, 2019, 표 1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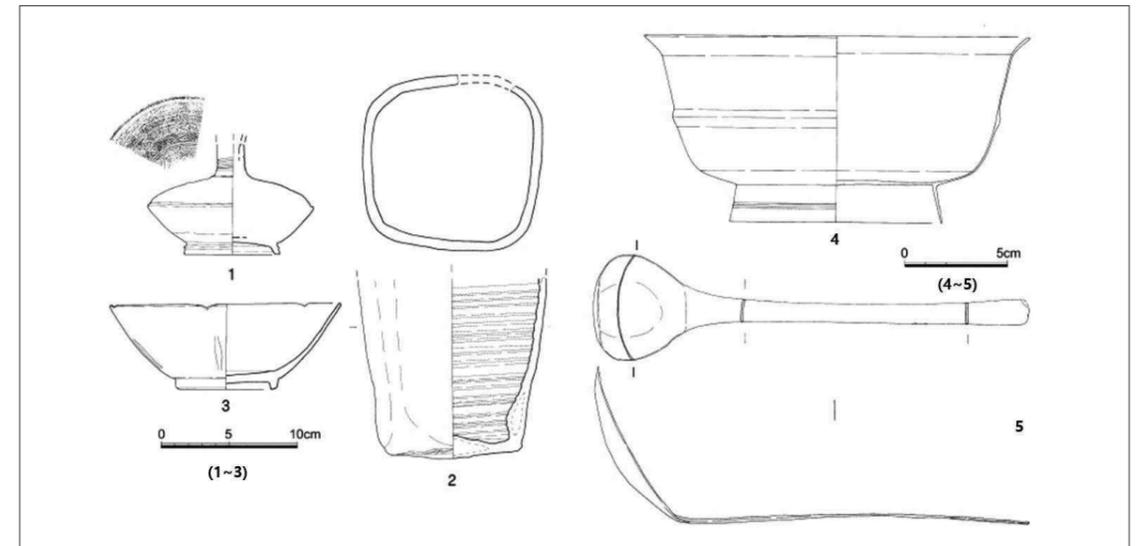
연번	지역	유적명	유구명	식기류										시/저	장신구	기타	
				용기													
				청동용기				자기용기				도기용기					
합	대부발/발	접시	완	발	접시	완	기타	병	기타								
1	경기	용인 보정리 소실	1호 토광묘	유개 대부 합									4면 편병				관정
2	경기	평택 궁리	2호 민묘		대부발 발편?				청자발 (화형)				편구병 4면 편병			청동 시	
3	강원	영월 주천리	2지점 고려시대 6호 석곽묘		발				접시	완2						청동 시	관정
4	충청	아산 둔포리	6지구 21호 토광묘		대부발	접시							4면 편병				
5	충청	공주 금흥동	1-3호 토광묘	유개 합								병			청동 시	가량 비녀	관정
6	충청	공주 송곡· 봉암리	19호 석곽묘			접시				완			병	잔	청동 시		관고 리, 관정

¹⁶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18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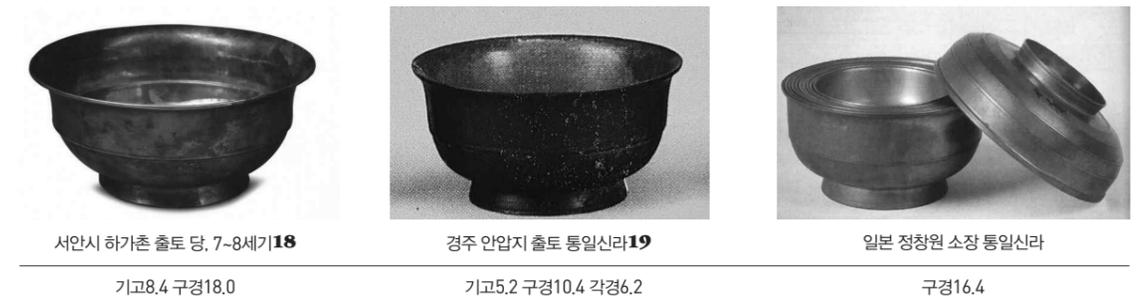
¹⁷ 한혜선, 2012, 『고려시대 도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213~216.

연번	지역	유적명	유구명	식기류										시/저	장신구	기타				
				용기																
				청동용기				자기용기				도기용기								
합	대부발/발	접시	완	발	접시	완	기타	병	기타											
7	충청	공주 송곡· 봉암리	23호 석곽묘		발									3면 편병	잔	청동 시				
8	충청	공주 송곡· 봉암리	26호 석곽묘		발			발						소병	개		가량 비녀			
9	충청	대전 노은동	A-1지구 4호 돌덧 널무덤			접시	대부 완							편병						
10	충청	대전 노은동	A-1지구 5호 돌덧 널무덤				각부				완 (해무 리굽)			1면 편병	잔	청동 시		관정		
11	충청	대전 미호동	I 지역 고려 8호 석곽묘				접시				완 (해무 리굽)			2면 편병			철제관 모데 철제대 단금구, 철제 교구	소도 자		
12	충청	서천 남전리	IV구역 석곽묘							완(뚜 껍)		완2		병				철청, 소도 자관 고리, 관정		
13	충청	연기 월산리	9호 고분							완		발				청동 시		관정		
14	충청	연기 황룡리	C구역 석 곽묘 2호							완				병			소형병 (주름 문)	가량 비녀	관정	
15	충청	음성 유촌리	II 지점 13호 토광묘				대부발								4면 편병					
16	충청	음성 문촌리	6호 석곽묘				접시					발			병		청동 시		관정	
17	충청	청원 마산리	4호 토광묘				발								병					
18	충청	청원 마산리	14호 토광묘				발								병		청동 시		관정	
19	충청	청원 마산리	15호 토광묘							완					2면 편병			가량 비녀	관정	
20	충청	청원 만수리	1호 석곽묘							대부 완		접시2		병					관정	
21	충청	청원 만수리	7호 석곽묘							완				1면 편병		잔		가량 비녀	관정	
22	충청	청원 만수리	161호 토광묘				발							병			청동 시			
23	충청	충주 영평리	영평리 II 유적 10 호 석곽묘				대부발	접시	완				완2	1면 편병			청동 시		관정	
24	경상	경산임당(I)	A-I-92 호 토광묘				발	접시							병		청동 시			
25	경상	경산임당(III)	D-III-11 호 석곽묘							완			완2 (해무 리굽)		병2	잔			관정	
26	경상	김천 모암동	5호 석곽묘				발2	접시						병2, 소형병			청동 시	가량 비녀	관정	
27	경상	김천 모암동	6호 석곽묘				대부발 발	접시							병2			청동 시		관정

연번	지역	유적명	유구명	식기류											장신구	기타	
				용기													
				청동용기				자기용기				도기용기					시/저
				합	대부발/발	접시	완	발	접시	완	기타	병	기타				
28	경상	김천 모암동	11호 석곽묘			접시?						병, 종지	2면편병	청동시		관정	
29	경상	김천 모암동	13호 석곽묘		대부발	발	접시					병, 호		청동시	가랑비녀	관고리, 관정	
30	경상	산청 평촌리	33호 민묘		대부발	발						광구병		청동시		관정	
31	경상	산청 평촌리	37호 민묘		발				발	접시			2면편병	청동시			
32	경상	산청 평촌리	86호 민묘		발				발				광구병	청동시		불명철기	
33	전라	진안 수천리	5호 석곽묘		발2	접시	완			완 (해무리굽)	향완, 2면편병			잔	청동시		
34	전라	진안 수천리	23호 석곽묘		대부발2	발			발		청자완			발		관고리	
35	전라	진안 수천리	35호 석곽묘		발3	접시				완 (해무리굽)		광구병, 소형병	웅				
36	전라	진안 수천리	41호 석곽묘		발				접시		병 (흑갈유)	2면편병	웅				
37	전라	진안 수천리	42호 석곽묘		대부발	접시				완 (해무리굽)	병		잔, 발	청동시		관고리	



〈도 5〉 평택 궁리 2호 토광묘 출토유물



서안시 하가촌 출토 당, 7-8세기 18
기고8.4 구경18.0

경주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19
기고5.2 구경10.4 각경6.2

일본 정창원 소장 통일신라
구경16.4

이러한 동반유물과 함께 출토되는 고려시대 전기 동기는 형태와 동반유물의 변화에 따라 크게 두시기로 구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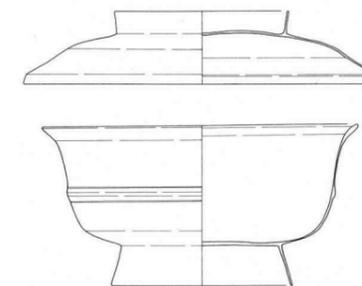
1. 1기(918~11세기초)

먼저 1기는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내저원각(한국식)식해무리굽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이전 시기인 11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1기의 분묘에 매납되는 전체유물의 개수는 평택 궁리 2호(도 5)에서만 6점이 부장되었고 나머지 유구에는 2~3점이 확인되었는데 동반되는 유물은 도기병이 다수이다. 그 중 동기는 대부분의 유구에서 1점 정도만 부장된다. 동반되는 자기는 청자발과 병이 주로 출토되고, 도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기종은 병인데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영향을 받은 형태인 1·2·4면 편병, 주름무늬, 편구병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이에도 드물지만 순가락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기는 대부발을 중심으로 그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1기는 크게 2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I형은 구연이 비교적 다른 기벽에 비해 두껍게 처리되었고, 신부는 서서히 밖으로 벌어지며 측사면 중앙에는 돌대가 1줄 돌아가고 있다. 바닥은 편평하며 대각은 밖으로 살짝 벌어진 형태이다.(도 5) II형은 I형식 유물과 달리 신부는 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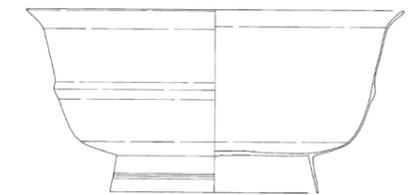
18 국립경주박물관, 2012. 『중국식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대 명품전』, p.69.

19 국립경주박물관, 1995. 『국립경주박물관』.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기고9.7 구경19.3 각경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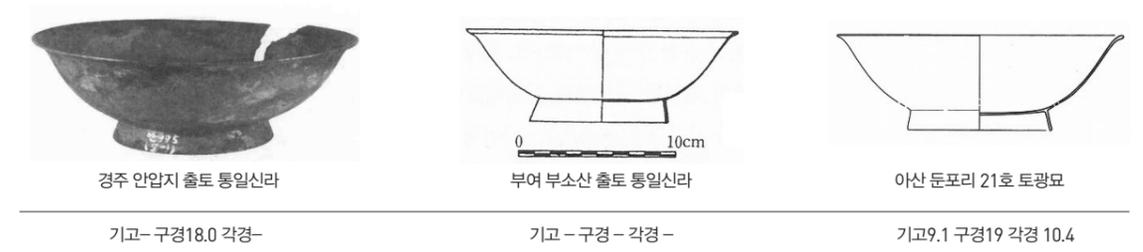


평택 궁리 2호

기고9.1 구경19 각경10.4

〈도 6〉 1기 동기대부발(I형)(허선영, 2019, 표 6 인용)

(*단위 cm)



경주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기고- 구경18.0 각경-

부여 부소산 출토 통일신라
기고- 구경- 각경-

아산 둔포리 21호 토광묘
기고9.1 구경19 각경 10.4

〈도 7〉 1기 동기대부발(II형)(허선영, 2019, 표 7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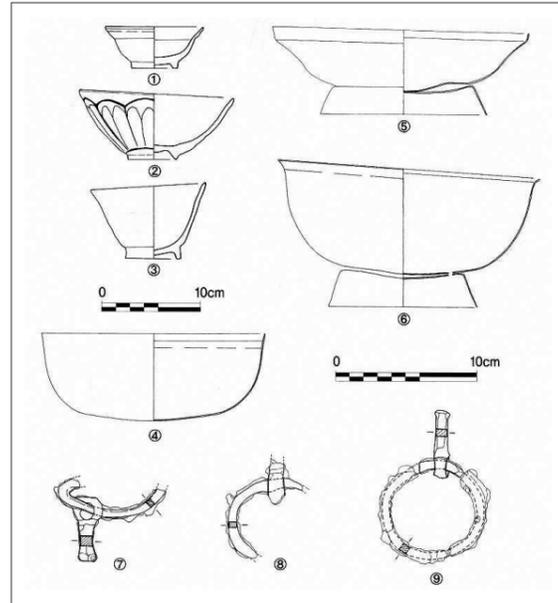
(*단위 cm)

형으로 크게 벌어지며 완만하게 저부와 연결되는 형태이다.(도 7)

이러한 1기의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 유적지인 경주 안압지, 황해도 평산, 부여 부소산의 유물과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또한, 1기의 유물은 좌우의 형태가 대칭을 이루고 대각의 부착방법이나 돌대 등의 존재 등으로 보아 주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2. 2기(11세기 초~11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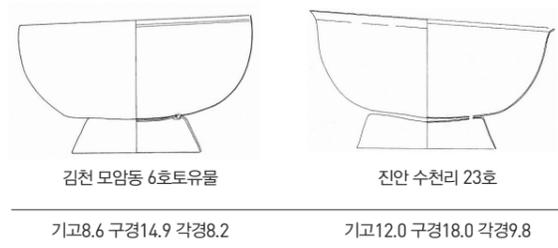
2기는 1기와 비교하여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구성과 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9점까지 부장된다.(도 8) 함께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자기는 발, 접시, 완, 병 등으로 주로 완과 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완은 대부분 내저면에 원각이 돌아가는 해무리굽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10세기 후반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1세기에 주로 생산되었다. 자기병은 구연이 광구형을 띠는 형태가 다수 확인되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 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청자로 제작된 편병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청자편병은 청자편구병과 함께 출토되는데 이 유물은 그 조형의 연원이 도기에 있고 11세기 이후 청자나 흑유로도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기에는 청자가 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²²



〈도 8〉 진안 수천리 23호 석곽묘 출토유물

도기는 병과 발, 잔 등이 출토되는데 특히, 병은 이전 시기에 다수 확인되던 4면편병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2면편병이 주를 이룬다.

동기는 이전 시기에 보이던 주물로 제작된 통일신라시대의 영향을 받은 형태와는 다른 대부분이 등장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기에 제작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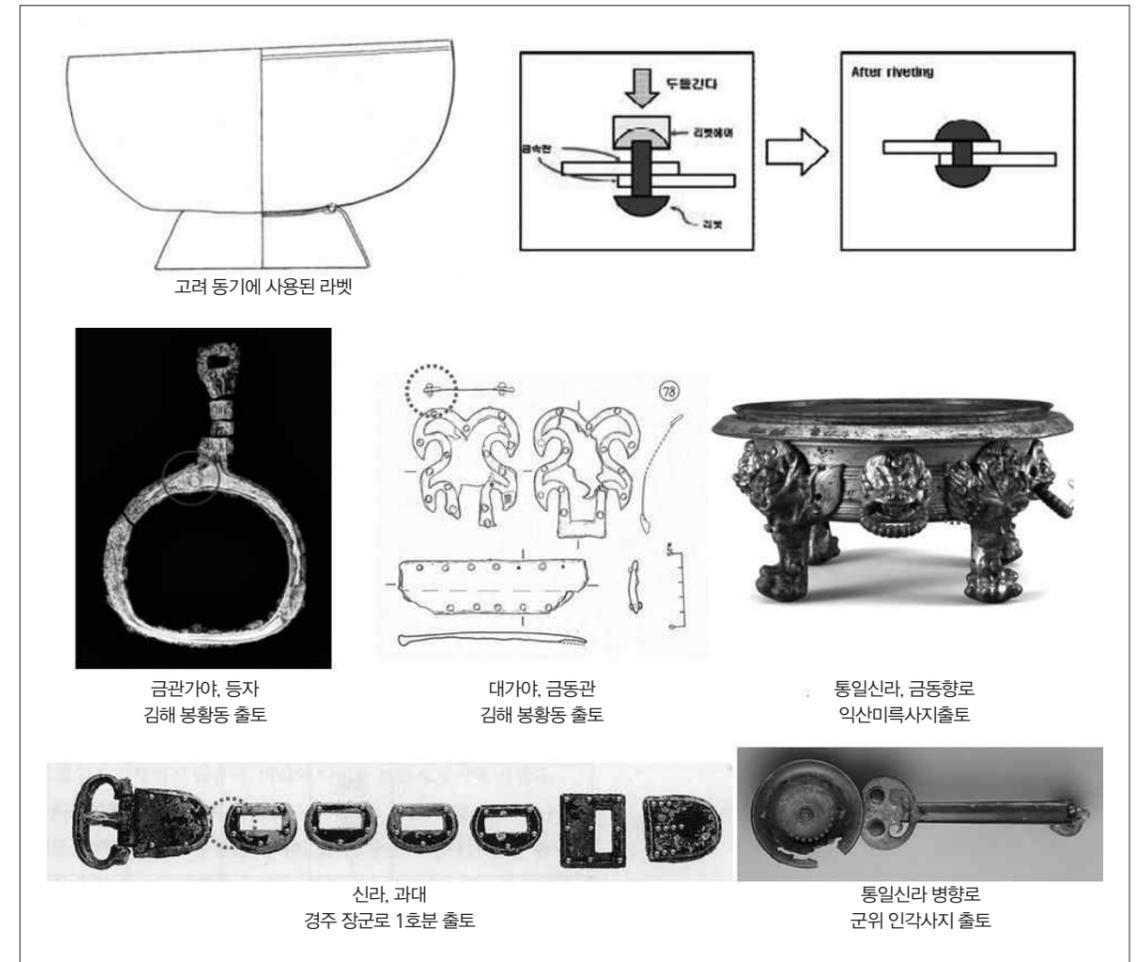


〈도 9〉 2기 동기대부발(Ⅲ형) (*단위 cm)

²⁰ 「달성 분리리 출토 청동합의 금속학적 연구」(송혜연, 2009, 용인대학교석사학위논문)를 살펴보면 동기의 본체와 대각이 일체형인 것은 주물기법으로, 대각이 없거나 별도로 붙인 것은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²¹ 하지만, 다수의 생활유적에서 반구병이 확인되고 중국의 벽화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반구병의 용도를 부장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려시대 이후 분묘에 부장되는 유물이 실용기라고 보았을 때 병의 용도 또한 부장용으로 제작되었다기보다 실용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문필, 2005, 「고분 출토 청자광구병 고찰」, 『Leeum 연구논문집』 1, 삼성미술관 Leeum, pp.35-50; 김현아, 2008, 「고려시대 窯器口長頸瓶의 소비성격과 조형변천」, 『미술사학』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105-141.

²² 한혜선, 2012, 「고려시대 도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p.216.



〈도 10〉 삼국~통일신라시대 리벳을 이용해 제작된 기물(허선영, 2019, 그림 8 인용)

주물로 제작하였다면 2기에는 단조로 제작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도 9) 또한, 단조로 제작된 대부분은 본체와 각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리벳이 사용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리벳은 이전의 삼국~통일신라시대 과대, 향로, 등자의 제작에 이용되었다.(도 10)

이러한 제작기법의 변화는 고려의 수공업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이전 통일신라시대에는 품목별, 재료별 혹은 작업별로 설치되었던 관청을 계통별로 통합하여 한 관청에 소속시켰다. 원자재나 작업의 공정이 유사한 공장의 업종을 흡수하여 각각의 관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화하였다.²³ 금속제품의 제작과 관련해 장야서(掌冶署)를 설치하였고²⁴ 은장(銀匠), 화장(和匠), 백동장(白銅匠), 적동장(赤銅匠), 경장(鏡匠), 피대장(皮帶匠), 금박장(金箔匠), 생철장(生鐵匠) 등의 장인들을 한 관청

²³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16-21.

²⁴ 고려 초에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 직제가 정비되어 영(令, 종7품) 2인과 승(丞, 종8품) 2인, 그리고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영조국(營造局)으로 개편되면서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직장(直長, 종7품)이 설치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다시 장야서로 되고 영과 승이 설치되었다. 그 뒤 1391년(공양왕 3) 공조에 병합되면서 폐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참조.)

에 소속시켰다.²⁵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리그릇을 제작하던 장인들은 이전에 향로나 과대 등, 금속제품을 제작하던 장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서로의 물건을 제작하는 기법 혹은 공정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리벳을 이용한 그릇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리벳을 이용하여 단조로 제작된 몸체와 각부를 연결하여 대부발을 제작하는 것은 고려만의 독특한 제작기법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동기에서는 리벳이 사용된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11세기를 전후한 시점의 동기의 변화처럼 도기와 순가락도 11세기를 기점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²⁶

따라서, 1기와 2기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동기의 상한 연대는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말에서 고려가 건국되는 10세기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고려'라는 왕조의 변화는 겪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이전 시기와 일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11세기를 기점으로 고려왕조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Ⅳ 동기의 출토상황을 통해 본 사료 해석에 대한 재고

선행연구에서는 동기를 고려 전중기에 일상적으로 사용한 용기로 인식하였고, 이렇게 전중기를 중심으로 사용된 동기는 고려후기로 갈수록 사용이 감소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문헌기록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 하지만 필자는 고고학적인 검토 즉, 동기의 시기별 출토지역과 수량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사료를 통해 본 동기의 부장계층

동기는 대나무 발이나 직물 등으로 감싸 보호한 흔적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동기의 중요성과 함께 피장자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²⁸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보수를 하여 그것을 재사용하였다는 것 또한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도 11) 앞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고려후기의 기사에서 동기는 사치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몇몇 사료를 통해 동기가 고려 전중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식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문헌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현종 6년(1015) 송에 사신으로 갔던 곽원은 “고려 민간에 서의 그릇은 모두 구리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며²⁹ 서공은 『선화봉사고려도경』(1123)을 통해 “지금 고려인은 평상



안성 신릉리 유적
나지구 43호 토광묘-집촌

진안 수천리 45호 석곽묘-직물

연기 갈운리 유적 II
4지구 6호 토광묘-대나무

〈도 11〉 포장흔이 있는 동기

위에 또 작은 소반(小俎)을 놓고, 구리 그릇을 사용하는데 …”³⁰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만으로 동기의 보편적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곽원의 설명은 고려의 풍물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면서 당시 수도였던 개경지역의 모습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하며³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공의 설명 또한 그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개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고려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³²

〈표 4〉 고려전기 자기와 동기의 출토양상 (허선영, 2019, 표 10 인용)

유적명	분묘 총수	자기출토		동기출토	
		분묘	수량	분묘	수량
		전체(%)		전체(%)	
평택 궁리	60	5(8)	7	4(6)	4
청원 만수리	16	7(44)	13	4(25)	7
산청 평촌리	89	38(43)	66	7(8)	9
진안 수천리	88	17(19)	42	10(11)	20
합계	253	67(26)	128	25(10)	40

이러한 추측은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비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銅’이라는 금속재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실생활에 사용된 동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분묘’라는 폐쇄된 공간에 영구히 매납되는 동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와 자기의 출토

25 『高麗史』卷80 志 34 食貨 3

26 정의도, 2017, 『통일신라 전통의 고려 초기 순가락 연구』, 『한국중세고고학』 2호, 한국중세고고학회; 한혜선, 2007,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의 運營時期』, 『역사와 담론』 48, 湖西史學會; 김현아, 2008, 『고려시대 瓷器盤口長頸瓶의 소비성격과 조형변천』, 『美術史學』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7 허선영, 2019, 『고려 전기 분묘 출토 청동용기의 등장과 전개』, 『한국중세고고학』 5호, 한국중세고고학회.

28 구자경, 2011, 『고려후기-조선전기 영남지역 분묘 출토 청동완의 연구』, 『문물』 창간호, 한국문물연구원,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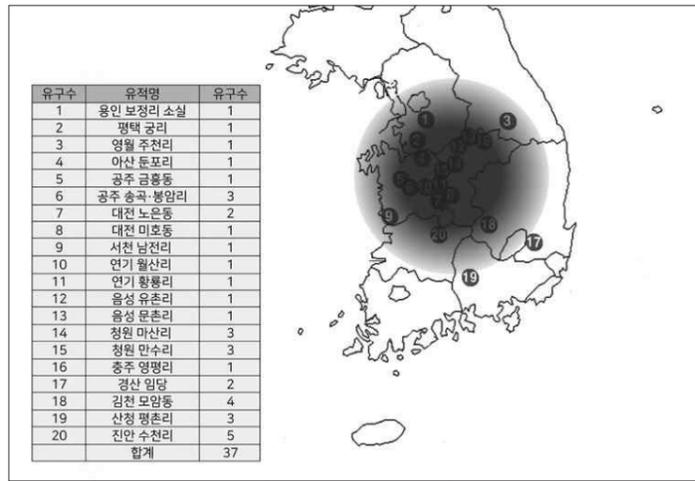
29 『宋史』卷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民家器皿, 悉銅為之.”

30 『宣和奉使高麗圖經』卷22 雜俗 鄉飲. “… 今麗人於榻上, 復加小俎, 器皿用銅, 鱸膾魚菜, 雖雜然前進. …”

31 임태경, 2014, 『고려로 유입된 중국 동전의 기능과 용도-원재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44~45.

32 허선영, 2019, 『고려 전기 분묘 출토 청동용기의 등장과 전개』, 『한국중세고고학』 5호, 한국중세고고학회.

비율은 동기의 희소성과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기존의 고려시대 전기의 주된 용기의 재질이 '구리'였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동기의 출토지역은 중앙(개성)과 가깝거나 혹은 중국과의 교류에 유리한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중앙과 거리가 먼 경상도와 강원도, 전라남도에서는 동기의 부장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한다(도 12) 또한, 기본적으로 동기를 누



〈도 12〉 고려전기 동기가 부장된 고려분묘 분포도

구나 많이 쓰던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고려시대 동기를 제작하던 공방 등의 제작지 역시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리고 동은 생산량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품으로 구리와 주석의 채취가 쉽지 않고, 복잡한 제련·주조·단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따른다.³³ 조선시대의 기록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1인당 하루 동 생산량은 적게는 1.5g, 많게는 4.75g정도 생산할 수 있었고 한다.³⁴

1인당 생산량을 그 평균정도인 3g라고 보면 무게를 알 수 있는 평택 궁리 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동기대부발은 약 261g으로 한사람이 87일을 생산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된다.

또한, 13세기 중반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고려가 제주에서 6품에 이르는 고관들에게 뇌쇠를 거두어 충당하였다는 데서 당시 뇌쇠가 고급제품으로서 지배층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특히, 청주 용암동에서 확인되는 고려 분묘는 동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묘군으로 많은 동기를 포함한, 동경, 철제가위 등 많은 금속기가 출토되었는데, 토광묘의 주인으로 청주 재지세력인 청주김씨를 지목하고 있는 연구가 주목된다. 청주 김씨는 개경을 중심으로 활동한 재계세력의 토대가 되면서 중앙의 문화를 흡수하게 됨과 동시에 국가적인 편제에 일찍부터 들어간 세력들이다.³⁶

따라서 이러한 고고학적 상황을 검토해보았을 때, 동기를 모든 민가에서 흔히 썼을 것이라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누구나 사용한 그릇된 그릇이 아니라, 한정된 계층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주영민,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 57, 역사교육학회, p.186.

34 이정신, 2006, 「고려시대 동기의 사용 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p.173

35 『高麗史』卷25 世家 卷第25 元宗 3年 9月 庚午 蒙古遣脫脫委徹兒, 禮部侍郎劉憲, 接伴使康和尚等來, 索鶴子及好銅. 我國以好銅, 疑是赤銅, 問於憲, 答曰, "好銅者, 鑰銘也" 於是, 令宰樞至六品, 收鑰銘有差. (몽고에서 안탈릉철이(按脫委徹兒, 안타르)와 예부시랑(禮部侍郎) 유현(劉憲), 접반사(接伴使) 강화상(康和尚) 등을 파견하여 새매(鶴子)와 양질의 구리(好銅)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구리란 것이 붉은 구리(赤銅)인가 생각하여 유현에게 물었더니, 유현이 대답하기를 "양질의 구리란 뇌쇠(鑰銘)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제주(宰樞)에서부터 6품(品)까지의 관원에게서 차등 있게 뇌쇠를 거두었다.)

36 도문선, 2009, 「청주지역 고려시대 토광묘 수용배경과 造營勢力」, 『중앙고고학연구』 제5호, 중앙문화재연구원, pp.12-13.

2. 14세기 동기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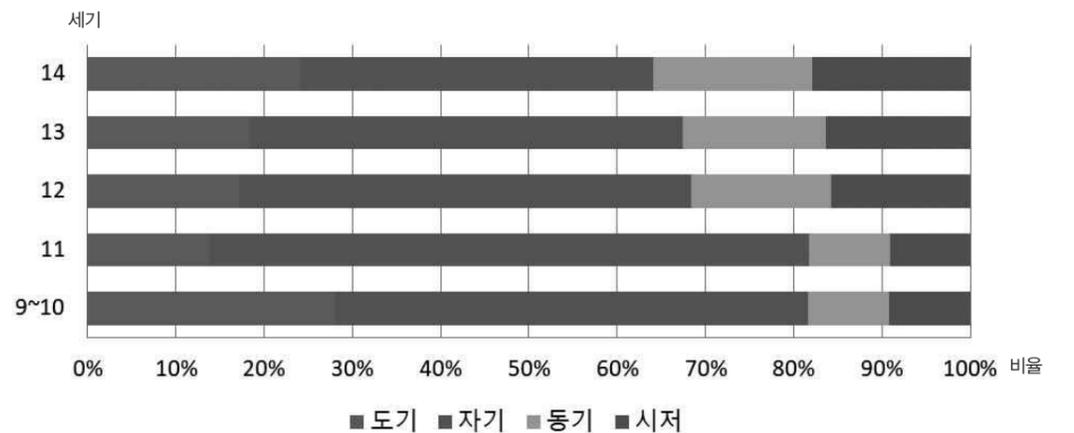
두 번째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료의 해석은 14세기 동기와 같은 금속기의 부족으로 동기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공양왕 3년(1391) 3월 방사량의 상소이다. 방사량은 鑰銅는 本土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니 이제부터 銅鐵로 만든 그릇을 금하고 오로지 瓷器와 木器를 써서 습속을 고치도록 바라는 상소를 올렸다.³⁷ 이로 인해 고려 후기 대부분의 민가에서 쓰이던 鑰銅器를 대신할 대체품으로 자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³⁸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고려 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출토상황을 보았을 때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

〈표 5〉 고려 전·중·후기 분묘 출토 용기류의 개수(주영민, 2013, 표 20 수정후 인용)³⁹

유물	도기								자기								동기				시저					
	병	호	주자	보시기	수반	발	완	종지	대접	완	접시	종지	잔	잔탁	주자	보시기	병	호	합	발	완	접시	병	수반	시	저
9C	5	2	0	4	0	1	2	1	5	0	4	1	0	0	0	0	9	0	0	1	1	2	0	0	2	0
10C	45	1	0	0	0	3	0	0	44	11	16	5	1	0	0	0	24	2	2	10	1	4	0	0	13	1
11C	33	2	0	0	0	0	0	0	79	11	36	0	4	1	10	0	30	0	6	14	1	2	0	0	52	3
12C	56	13	1	3	0	0	0	0	84	5	57	6	11	2	2	1	47	2	3	35	1	23	4	1	63	19
13C	43	8	0	1	0	0	0	0	58	2	41	3	5	2	1	0	25	1	4	42	0	0	0	0	54	14
14C	56	49	0	4	1	0	0	0	66	4	74	2	6	0	0	1	21	9	18	63	0	0	1	0	130	19



〈표 5〉를 검토해 보면 오히려 고려 분묘에서 14세기대 동기의 부장량이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단적인 예로 -비록 수량에 있어 균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고려전기~후기에 해당하는 분묘가 확인된 단양 현곡리 고려 분묘군을 살펴보면,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1기의 분묘에서는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19기의 분묘에서는 자기가 17기, 동기는 4기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8기의 분묘 중

37 「고려사」 권85, 형법 금령 공양왕 3년.

38 이종민, 1994,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 『미술사학연구』 201, 한국미술사학회, p.10.

박경자, 2002, 「14세기 강진 자가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p.7.

39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에서 자기는 8기 모두에서 출토되었으며 동기는 6기에서 출토되어 고려후기 동기는 오히려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표 6)

또 다른 예로 청도 대전리 고려 분묘군⁴⁰ 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 유적은 유물을 통해 총101기를 고려분묘로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1기를 제외하고는 13세기 후반~14세기 말에 해당되는 분묘이다. 청자와 동기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100기의 고려후기 분묘 중 46기의 분묘에서 청자 66점이, 동기는 36기의 분묘에서 86점이 확인되었다. 비록 동기를 부장하는 분묘가 자기를 부장한 분묘보다 유구의 수는 적지만 유물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분묘 안에서 많은 동기가 매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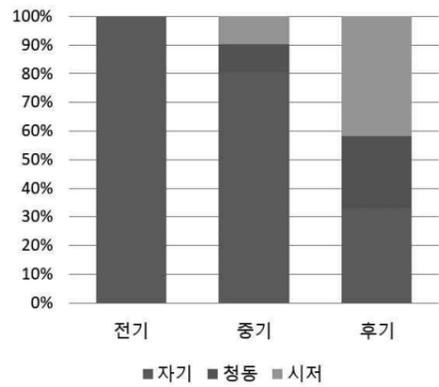
따라서,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부장량을 검토해보았을 때 고려후기에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동기가 유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헌기록은 동기의 사용 증가, 혹은 유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⁴¹

먼저, 충렬왕 22년(1296) 홍자번이 올린 개혁상소를 보면 “근래에 鑪銅匠들이 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州縣의 관리 및 어명을 받고 파견나간 관원들이 백성들로부터 鑪銅을 다투어 거두어들여 그릇을 만들고 있어 민가의 그릇이 날로 줄어들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⁴² 홍자번은 지방관들이 백성의 유동을 거두어 들어 민가의 그릇이 줄어들고 관리들의 그릇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동기의 사용지역이 전기의 중앙(개경)을 중심으로 집중되던 것에서 지방으로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민가에서 동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그것을 관리들이 빼앗아 새로 그릇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지방에 있는 유동장을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건의하였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銅器의 폭넓은 사용의 사례는 충목왕대에도 확인된다. 충목왕이 즉위(1344)하자 장문의 개혁상소를 올리면서 이제현은 “금은과 비단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 공경들도 흰 포복과 명주만 써서 옷을 지어 입었고 그릇은 유동과 자기와 질그릇만 썼습니다”라고 했다.⁴³ 이제현의 상소에 따르면 당시 유동과 자기와 질그릇은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표6〉 단양 현곡리 분묘 자기와 동기, 시저의 출토양상

시기	분묘 수	자기출토		동기출토		시저출토	
		분묘	수량	분묘	수량	분묘	수량
		전체(%)		전체(%)		전체(%)	
전기	1	1(100)	3	0	0	0	0
중기	19	17(89)	33	4(21)	4	4(21)	4
후기	8	6(75)	8	6(75)	6	7(87)	10



또한, 공민왕 6년(1357) 司天少監 于必興은 “모든 산에 소나무를 뺏뺏하게 심고 모든 기물은 鑪銅과 瓦器로 만들어 土風에 순응하게 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공민왕은 그 의견에 따랐다.⁴⁴ 우흥필은 동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말 銅器의 감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헌기록으로 房士良의 상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양왕 3년(1391) 3월 방사량은 “鑪銅는 本土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니 이제부터 銅鐵로 만든 그릇을 금하고 오로지 瓷器와 木器를 써서 습속을 고치도록 바라는”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방사량이 공양왕 3년 3월에 올린 11조의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상소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사량은 상소는 크게 ‘근검절약과 근면할 것’, ‘사치를 금지하여 귀천을 구분할 것’, ‘혼례에 비단 요와 이불의 사용을 금지하고 오직 면포만 사용할 것’, ‘商稅를 징수할 것’, ‘자기와 목기를 사용할 것’, ‘추포를 화폐로 사용하지 말고 楮幣를 사용하고 錢을 주조할 것’, ‘서북면의 군관은 양부와 6조에서 천거한 인물로 충당할 것’, ‘국경을 넘어 소와 말을 매매하는 자를 단속할 것’, ‘기인제도의 폐단을 개혁할 것’, ‘무덤에서 나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안우와 이방실 등을 추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방사량이 자기와 목기의 사용을 장려하자고 주장한 것은 귀천에 따라 의복이나 장식을 금지하여 사치를 방지하자는 맥락과 같은 의도이거나 아니면 당시 화폐로 이용되던 추포의 사용을 금지하고 楮幣와 錢 즉, 銅錢을 주조하자는 주장이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14세기 동기부족의 근거가 된 이 기록만으로는 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천민들까지 동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의였거나 동전 주조를 위한 동의 확보 차원에서 자기와 목기의 사용을 건의했다고 보아야 한다.⁴⁶

이상의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비율과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려후기에 동기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오히려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銅의 활용 증대는 靑銅匙箸의 출토 양상에서도 확인된

⁴⁴ 『高麗史』卷39 世家 恭愍王 6年 閏9月 戊申. 司天少監于必興, 上書言, 玉龍記云, 我國始於白頭, 終於智異, 其勢, 水根木幹之地, 以黑爲父母, 以青爲身, 若風俗順土則昌, 逆土則災, 風俗者, 君臣衣服冠蓋樂調禮器是也, 自今文武百官, 黑衣青笠, 僧服黑巾大冠, 女服黑羅, 又於諸山, 栽松茂密, 凡器用鑪銅瓦器, 以順土風, 從之.

⁴⁵ 『高麗史節要』卷35 恭讓王 3年 3月. 中郎將房士良上時務十一事, 一曰, 書云, ‘慎乃儉德, 惟懷永圖.’ 昔, 漢文帝惜百金於露臺, 以基四百年之業, 元季, 爲萬壽幽宮之樂, 以潰百年培植之基, 勤儉奢怠之間, 吉凶興亡判焉, 吁, 可畏也, 伏惟, 崇儉素, 斥浮華, 益勤無怠, 二曰, 書云, ‘不貴異物賤用物, 民乃足.’ 我朝只用土宜袖苧麻布, 而能多歷年所, 上下饒足, 今也, 無貴無賤, 爭貿異土之物, 奢僭無節, 願自今士庶工商賤隸, 一禁紗羅綾段之服金銀珠玉之飾, 以弛奢風, 以嚴貴賤, 三曰, 人家子孫, 或家貧無錢, 以綾錦棉衾之未辦, 淹延歲月, 婚姻失時, 甚至父母亡, 而或托族屬, 或依奴婢, 因此失禮, 幾敗人倫者, 往往有之, 願自今婚姻之家專用綿布, 一禁異土之物, 如有仍行舊弊者, 以違制論, 四曰, 司馬遷曰, ‘用貪求富, 農不如工, 工不如商, 刺繡文, 不如依市門.’ 臣亦以謂四民之中農最苦, 工次之, 商則遊手成群, 不蠶而衣帛, 至賤而玉食, 富傾公室, 僭擬王侯, 誠理世之罪人也, 竊觀本朝, 農則履畝而稅, 工則勞於公室, 商則既無力役, 又無稅錢, 願自今其紗羅綾段綉子綿布等, 皆用官印, 隨其輕重長短, 逐一收稅, 潛行賣買者, 竝坐違制, 五曰, 鑪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禁銅鐵器, 專用盜木, 以革習俗, 六曰, 天下之間, 雖方殊而俗異, 其土農工商, 各以其業資其生, 以有易無, 彼此通用者錢也, 自禹鑄塗山用設九府以來至于今通行者, 無他, 其質堅貞, 其用輕便, 火不燒, 水不濕, 質遷而益光, 致遠而無咎, 鼠不能耗, 刃不能傷, 一鑄之成, 萬世可傳, 故天下寶之, 本朝鑪布之法出於東京等處若干州郡, 且此布之弊, 用無十年之久, ‘乍遭煙濕, 便爲災朽, 縱盈公廩, 未免鼠漏之傷, 願立官鑄錢, 兼造楮幣爲貨, 一禁鑪布之行, 七曰, 民性邦本, 本固邦寧, 古今之至論也, 今, 西北一路乃國家之要害, 強兵之所在也, 頃者, 姦雄用事, 萬戶千戶之屬不是姻婭附己, 則必出於賄賂苞苴之中, 乃以頑暴貪利者舉而加諸衆人之首, 彼焉有爲王敵愾之忠效死勿去之義耶, 願自今西北面管軍千戶之屬, 許用兩府以下臺省六曹之薦, 八曰, 書云, ‘令出惟行.’ 若令出而不行, 則國非其國矣, 今也, 令非不嚴也, 征商之徒伍伍成群, 牽牛帶馬, 懷金挾銀, 日趨異域, 驢騾駑鈍之物遍於國中, 願自今潛行越江賣牛馬者, 及將官印之馬賣彼不還者, 以違制加刑, 九曰, 其人之制世無史傳, 惠廟至元之間五道州郡抄得三百人, 分屬版圖司造成都監, 各一百五十人爲常額, 自庚寅倭寇以來, 州郡蕩然失所, 邑無子遺, 而官有定額, 主家雇人代立, 借貸利, 布日微一匹, 歲月如流, 且不能支, 又侵擾本貴人物, 劫以官威, 據奪奴婢, 輪次立役, 當次者, 亦盡賣財產以就役, 其弊甚鉅, 伏惟, 殿下毋循舊弊, 一切罷之, 十曰, 西伯爲池, 掘得死人之骨, 西伯曰, ‘葬之.’ 吏曰, ‘此無主之骨, 何必葬爲.’ 西伯曰, ‘有天下者, 天下之主, 有一國者, 一國之主, 寡人固其主矣.’ 更以衣槨葬之, 天下聞之曰, ‘西伯澤及枯骨, 況於人乎.’ 是知八百年帝周之籙, 實源於文王一念之仁, 豈不美哉, 今, 都城之外一國臣民先人之塚存焉, 藹者暴之, 獵者火之, 或逼爲田圃, 孝子仁人得不睹此而泚其頰乎, 願自今凡墳塚所在, 禁其樵採, 使之蕃茂, 十一曰, 勳烈之臣萬世社稷之柱石也, 願自今凡功在王室忠在社稷不幸而陷刑戮致隕命者, 如安祐李芳實金得培朴尙表等, 追加褒贈, 特賜小牢, 以慰貞魂, 王深納之, 尋, 拜士良爲刑曹正郎.

⁴⁶ 신은제 · 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의 유행과 그 의미-고려시대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석당논총』51호, 석당학술원, pp.34-35.

⁴⁰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청도 대전리 고려 · 조선묘군』 I · II · III.

⁴¹ 신은제 · 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의 유행과 그 의미-고려시대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석당논총』51호, 석당학술원, pp.33-38.

⁴² 『高麗史』卷84 志 卷第38 刑法1 職制 忠烈王 22年 5月. 近有鑪銅匠, 多居外方, 凡州縣官吏及使命人員, 爭斂鑪銅, 以爲器皿, 故民戶之器, 日以耗損, 宜令工匠, 立限還京.

⁴³ 『高麗史』卷11 列傳 卷第23 諸臣 李齊賢 金銀 · 錦繡, 不產我國, 前輩公卿, 被服只用素段子 · 若袖布, 器皿只用鑪銅 · 甕瓦, 德陵作一衣, 間直則重, 輟而不爲, 毅陵嘗責前王, 鑿金之衣, 挿羽之笠, 非吾祖舊法, 有以見國家四百餘年, 能保社稷, 徒以儉德也, 近來風俗, 窮極奢侈, 民生困而國用匱, 職此而已, 請宰相今後不以錦繡爲服, 金玉爲器, 又不使祿服乘馬者擁其後, 各務儉約, 諷上而化下, 風俗可以歸厚也.

다. 고려 분묘에서 출토된 시저를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고려에서 시저는 13세기 후반부터 그 사용이 증대하여 14세기에는 그 출토빈도가 늘어난다고 연구된 바 있다.⁴⁷ 그렇다면 이러한 동기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았다.

〈표 4〉를 살펴보면 동기의 실질적으로 출토량이 증가되는 것은 12세기부터이고, 시기를 지날수록 그 출토량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2세기 중엽 이후 많은 宋錢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주목하였다.⁴⁸ 『송사』를 살펴보면 경원(慶元) 연간에 상인들이 고려에 동전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列傳과 本紀에 각각 실려 있으며, 蘇東坡(1037~1101)는 고려와의 교섭을 끊을 것을 주장하면서 다량의 동전이 고려로 유출됨으로 인하여 송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⁹ 이러한 기사를 통해 보면 고려로 송전이 상당히 유입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熙寧 8년(1075) 기록에는 “小錢으로써 器物을 만들면 이익이 10배에 이른다”라고 하였고⁵⁰ 熙寧10년(1077)에는 “10錢을 녹이면 精銅 1兩을 얻을 수 있고 器用을 제작하면 5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⁵¹ 이처럼 동전으로 그릇을 만들어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송전의 유입은 신안해저에서 인양된 동전을 통해서도 14세기대에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신안선은 일본과 원의 교역을 보여주지만 이를 통해 고려와 원의 교역 양상도 추론할 수 있다. 신안선에서는 新國王莽(天鳳元年, 14)대에 제작된 貨泉에서 元宗(至大 3년, 1310)시기에 만들어진 至大通寶까지 1300년에 달하는 다양한 시기의 동전이 인양되었다. 唐에서 만들어진 開元通寶(621), 南唐의 開元通寶(943), 宋의 宋元通寶(968), 南宋의 紹興元寶는(1131) 元의 大元通寶(1310) 등 여러 시대의 것이 출수되었다.⁵²

인양된 동전은 각 시대별 또는 화폐단위별 등으로 분류하여 포장 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뭉치별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점과 아울러, 함께 인양되었던 주석정(朱錫錠)은 상자에 포장하여 선적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화폐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원료로서 원광과 동시에 무역의 대상재료로 선적된 교역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⁵³

47 정의도는 고려 후기 청동시저 사용의 증대를 북방 음식문화의 유입과 관련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정의도, 2007, 『한국고대 청동시저 연구-고려시대』, 『석당논총』38, 석당학술원.)

48 고려에 송전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사정에서 볼 때 남송중기에 해당하는 12세기 중엽 이후이며, 宋錢의 국외 유출은 남송대의 紙幣사용으로 인한 동전의 지불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지자 주변국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제, 2004, 『10-13세기 송전과 동아시아의 화폐경제-특히 송전의 고려유입을 중심으로-』, 『중국사학보』 28호, 중국사학회, pp.90-93.)

49 申採湜, 1987, 『宋代官人的高麗觀』, 『古代中韓關係研究』에 송대관인들의 고려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어 있다.(임태경, 2009, 『고려시대 중국동전의 수입과 활용-청동불교구 제작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주64 참조)

50 『宋史』卷180, 志 133 食貨 下 2 錢幣 (熙寧八年) 張方平嘗極諫曰 (중략) 自熙寧七年 頒行新勅 刪去舊條 削除錢禁 以此邊關重車而出 海船飽載而回 聞沿邊州軍錢出外界 但每貫收稅錢而已 錢本中國實貨今乃與四夷共用 又自廢罷 銅禁 民間銷毀無復可辨 銷錢十錢得精銅一兩 造作器用獲利五倍(후략)

51 『續資治通鑑長編』卷283 熙寧10年 銷錢以爲器者, 利至於十倍, 則錢之在者, 幾何基不爲器也.

52 김병근, 2003, 『수중 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신안해저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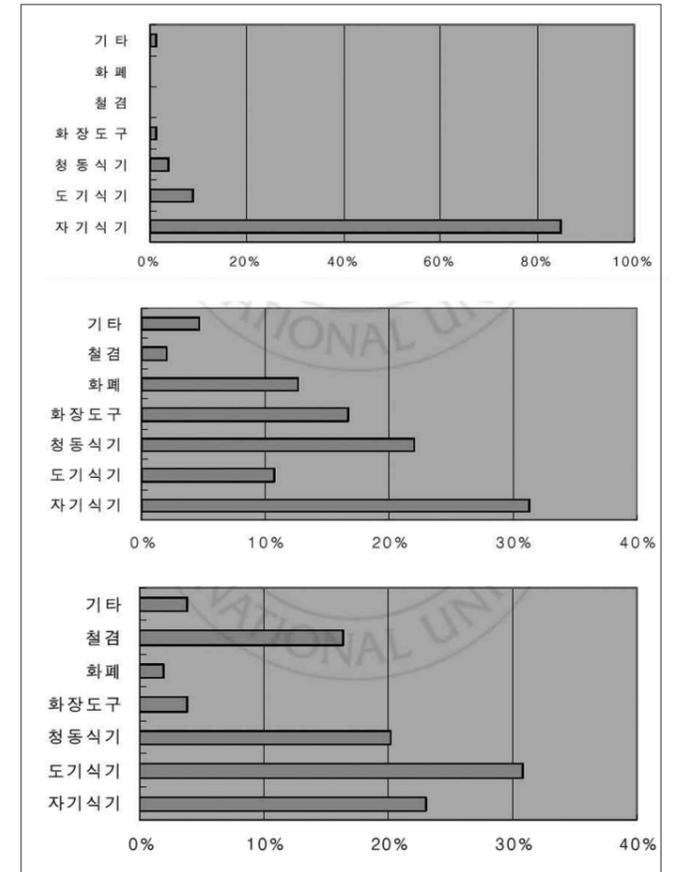
53 이호관, 1988, 『金屬類(銅錢포함)』, 『新安海底遺物』綜合篇, 文化財管理局, p. 234.

54 청동식기는 그릇으로 사용된 銅器 이외에도, 匙箸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47-53.

또한, 宋錢이 기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써 청동불교구의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된 바 있으며⁵⁵ 일본의 경우 가마쿠라 시기의 불상의 분석결과와 동전을 녹여서 불상을 제작하였다고 한다.⁵⁶

위의 사료와 유물의 출토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宋錢은 고려 12세기대부터 14세기 말까지 유입되었고, 고려 중기에는 분묘의 부장품으로 혹은 동기로 재사용되다가 후기가 되면 분묘에 매납되기 보다 동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표 7) 이러한 결과는 14세기대의 동기의 유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살펴보면, 송전의 동기의 제작 재료로의 전환은 12세기대부터 시작되다가 고려후기로 갈수록 그 양상이 심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동기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7〉 고려 분묘 출토유물 양상 (박미옥, 2006, 표12·14·16 인용)⁵⁴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분묘에서 출토된 동기의 출토상태와 위치, 그리고 등장시기의 상환을 살펴보았으며 고려 전중기 동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14세기대 동기의 사용이 감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기의 출토 상황과 비율 등을 통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입된 동전이 그릇의 주조에 사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매납량의 변화를 통해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동기의 사용이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전을 녹여 그릇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확실한 물증은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고려전기보다는 중기, 중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동기의 매납이 증가하고 있고, 문헌기록을 통해 기명과 불상은 동전으로, 반대로 동전은 다시 불상과 그릇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본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의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는,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宋錢과 銅器의 성분이 동일하다 던지 혹은, 당시 구리 공방에서 화폐를 녹여서 재료로 활용하였다는 결과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차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55 임태경, 2014, 『고려로 유입된 중국 동전의 기능과 용도-원재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6 김병근, 2003, 『수중 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신안해저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06.

한편, 필자는 앞서 고려전기의 출토상황을 통해 동기는 한정된 계층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고려 후기 동기를 사용하는 계층이 확대 된 것인지, 아니면 동기를 살 수 있는 계층의 구매력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로서는 당시의 경제 상황까지 밝힐 수 없기에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차후 과제로 남겨놓자 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고려 분묘에서 출토되는 동기의 출토상황을 통해 고려시대 생활에 일부나마 접근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사료

『高麗史節要』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續資治通鑑長編』

논문 및 단행본

- 구자경, 2011, 「고려 후기~조선 전기 영남지역 분묘 출토 청동완의 연구」, 『문물』 창간호, 한국문물연구원.
- 김병근, 2003, 「수증 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신안해저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영제, 2004, 「10~13세기 송전과 동아시아의 화폐경제-특히 송전의 고려유입을 중심으로-」, 『중국사학보』 28호, 중국사학회.
- 김은경, 2008,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재홍, 2017, 「충주 호암동 복합유적 고려시대 분묘 연구」, 『한국중세고고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중세고고학회.
- 김현아, 2008, 「고려시대 瓷器盤口長頸瓶의 소비성격과 조형변천」, 『美術史學』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 도문선, 2009, 「청주지역 고려시대 토광묘 수용배경과 造營勢力」, 『중앙고고학연구』, 제5호,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박경자, 2002, 「14세기 강진 자가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은제·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의 유행과 그 의미-고려시대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석당논총』51호, 석당학술원.
- 이상용, 2011,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청동완·시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주영민,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 57, 역사교육학회.
- 맹세환, 2018, 「고려~조선 전기 분묘 출토 청동발의 특징과 편년」,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정신, 2006, 「고려시대 銅의 사용 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이종민, 1994,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 『미술사학연구』201,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 연구-소비방식의 관점에서」, 『역사와 담론』46집, 호서고고학회.
- _____, 2017, 「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博築窯와 出土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창간호, 한국중세고고학회.
- 이호관, 1988, 「金屬類(銅錢포함)」, 『新安海底遺物』綜合篇, 文化財管理局.
- 이회인, 2003, 「충부지방 고려시대 고분 연구-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나말여초 분묘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창간호, 한국중세고고학회.
- 임태경, 2014, 「고려로 유입된 중국 동전의 기능과 용도-원재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정의도, 2007, 「한국고대 청동시지 연구-고려시대」, 『석당논총』38, 석당학술원.
- _____, 2014, 『한국 고대 순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 _____, 2017, 「통일신라 전통의 고려 초기 순가락 연구」, 『한국중세고고학』 2호, 한국중세고고학회.
-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해안.
- _____, 2015, 「고려 분묘 출토 청동식기 고찰」, 『역사교육논집』 57, 역사교육학회.
- 한혜선, 2007,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의 運營時期」, 『역사와 담론』 48, 湖西史學會.
- _____, 2012, 「고려시대 도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 「고려시대 器皿의 조형 공유 양상과 상호관계-병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고려시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물』제5호, 한국문물연구원.
- _____, 2019, 「고려 전기 분묘 출토 청동용기의 등장과 전개」, 『한국중세고고학』5호 한국중세고고학회.
-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 출토 청자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토론문

-
- 0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에 대한 토론문
박진훈 명지대학교
 - 02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상준 문화재청
 - 0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희인 인천시립박물관
 - 0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성기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05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맹세환 고흥분청사기문화관
-

01 「고려시대의 장법(葬法)과 능묘(陵墓)제도」에 대한 토론문

박진훈 명지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영의 선생님의 글에 대해 약정 토론을 맡은 명지대 사학과와 박진훈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시는 홍영의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홍영의 선생님은 고려시대 연구자 중에서 누구보다 먼저 문헌중심의 역사학 연구와 중세 고고학의 성과를 결합시켜 새로운 시각에서 고려시대사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글에 대해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약정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글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점이 있으면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례 기간의 문제에 대해 “장례 기간도 고려는 조선과 달리 일반적으로 1백일이었으나 삼일장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의 말미에 “고려시대에는 장례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례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짧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장례 기간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짧은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고려시대 법제인 100일상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최재석 선생이 지적하셨듯이, 묘지명의 장례 기간을 분석하면 고려시대 장례 기간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며 또한 거의 500년 가까운 고려 왕조에서 꾸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이 고려시대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시대 장법에 대해 “고려시대의 장법은 시체를 바로펴묻기[伸展葬], 화장(火葬), 풍장(風葬) 등이 기록에 나타난다. 그 중 일반적인 것이 신전장과 화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전 다음 구절과 연계시켜 풍장은 일부 서민층과 하층민이 사용한 일반적이지 않은 장법이고, 신전장과 화장이 일반적인 장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 이해가 옳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풍장, 화장과 더불어 고려시대 장법을 분류한다면 埋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伸展葬은 매장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매장 대신에 ‘伸展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장의 대부분이 伸展葬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장 전체가 伸展葬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유지하였고, 왕족부터 노비까지 다양한 신분층이 존재하였으며, 지역마저 다양성과 커다란 편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장을 신전장으로 단정하기에는 부담이 듭니다. 고대에 많이 보이던 屈葬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매장을 伸展葬

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이유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태조의 유언에 근거하여, 고려 왕실의 초기 상장례와 능묘제도는 사치스런 한의 능묘제도를 배제하고 위나라의 제도를 따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송과 요의 제도를 참작했을 가능성과 통일신라와 고구려의 遺制를 따랐을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조의 유언의 취지는 능 제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검약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故事에 의해 검약을 따르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조의 말에 의해 위나라의 제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조는 위 문제만이 아니라 한 문제의 예를 같이 들고 있으므로, 한의 제도를 배제하고 위의 제도를 따라 시행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생님의 말씀대로 고려 왕실의 능묘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한 문제나 위 문제의 능묘제도는 고려 초기 왕실이 참작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통칭 ‘고분’, ‘분묘’란 글자 그대로 ‘옛 무덤’, ‘무덤’을 뜻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에서는 개념적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특정 시기의 무덤 양식을 지칭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이 언 듯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무덤 양식인지 보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준 문화재청

발표자께서는 일찍이 북한문화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권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2008년과 2013년 연이어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고려왕릉』를 발간하였을 때 받은 신선한 충격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책들을 통해 토론자가 발굴하였던 강화 고려왕릉을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고려왕릉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점에 대하여는 줄고의 말에 고마움을 추기한 기억이 있다.

이 발표문은 고려왕릉의 외부적(능역) 모습을 중심으로 능제와 석물의 양식을 미술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고려왕릉은 신라, 발해의 능제를 계승하면서도 고려만의 독자성을 완성하여, 이를 조선왕릉에 전승시켰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봉분 주위에 배치된 석수가 석사자에서 석호로, 석인상이 쓰고 있는 모자가 진현관에서 양관, 복두로, 그리고 문인석의 형태와 무인석의 등장 등을 근거로 3개의 분기를 설정하였다. 토론자는 미술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토론을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우선 진제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왕릉의 능역에 배치된 석물들이 왕릉 조영 당시의 것이 그대로 유존되었을까? 라는 의문이다. 수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략에 의해 몽진, 천도, 환도를 거친 고려는 그만큼 선대 왕릉의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고려사에 기록된 많은 도굴기사가 이를 증명한다. 예컨대 명종 지릉은 몽골군에 의해 파헤쳐졌고, 태조 현릉의 재궁은 몇 차례나 옮겨지는 수난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릉 외부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994년 태조 현릉이 현재의 모습으로 개건되기 이전 석물(사진)은 발표문에 적시된 1기적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는 후대 개수 과정에서 새로이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경종 때 태조현릉의 의물이 모자란 것을 개수하였다고 한다. 출토된 청자 또한 943년 왕릉 조영 당시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12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국화문 잔이 출토되었다. 이는 복장이 이루어지면서 별도의 제례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때 제작된 청자가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제25대 충렬왕의 비인 제국대장공주 고릉의 석인상은 그 크기가 다른 왕릉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리고 석인상의 모자 형태가 복두가 아닌 양관으로 판단된다. 이전 23대 고종 홍릉, 24대 전원종 소릉의 석인상은 복두

를 착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종의 며느리인 제국대장공주 고릉의 석인상도 복두를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정된 왕릉이 고릉이 아닐 가능성은 없다. 왕릉 내부에서 출토된 석간에서 大行安平이란 글씨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제국대장공주=안평공주).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셋째, “고려는 外王內帝의 체제를 추구하였고, 황제국에 준하는 제도와 문물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자주성과 황제국으로서의 자긍심은 고려 국왕의 사후 황제에게만 올리는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를 갖추어 올린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제후국을 자칭하였던 조선의 왕들은 왜 묘호와 능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묘호와 능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조 현릉 개수 이전의 석물 모습

03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 희 인 인천시립박물관

주영민 선생님은 고려 분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고려시대 묘제 전문가입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연구를 보강한 것으로 고려~조선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발굴 유적과 현존 무덤 그리고 문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고려 분묘에는 곡장이나 호석, 묘역 전면 석단 등 이전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설이 등장합니다. 발굴 유적에서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지만 고려 말 또는 고려 묘제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조선 초 관인 층 무덤에서 묘역 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고려시대 분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고려 분묘 연구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묘역시설에 대해 주목한 본 발표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묘역시설 분묘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의문점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요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곡장과 장방형 호석, 참배단 등의 시설은 고려시대 분묘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분묘 봉분 주위에 원형으로 호석을 두르는 사례는 있으나 이는 고려시대 무덤의 묘역시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묘역시설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분묘에 설치된 배경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 발표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굴된 분묘 가운데 묘역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40기입니다. 이중 경기도가 28기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근기지역인 경기지역에서 묘역시설이 집중 조영되다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지방으로 확산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역시설의 조성된 분묘의 개체 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경기도에서 조사된 묘역시설 분묘의 절반이 특정 유적(대부도 육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묘역시설 분묘의 개체수 차이를 통해 고려시대 근기지역에서 지방으로 묘역시설 분묘가 점차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3. 발표자께서는 묘역시설 분묘는 관인이나 지방 향리층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주서곡리벽화묘나 밀양고법리벽화묘 등의 예로 볼 때 고려시대 상위 묘제(판석재석곽묘)에 묘역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은 분명

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산대부도 육곡고분군이나 고양 더부골 고분군 등에서는 소형 석곽이나 토광 앞에 석단을 놓는 것처럼 약식화한 묘역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상위 묘제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판석재석곽묘와 석곽 또는 토광으로 조성된 분묘(그 안에서도 위계 차이 존재 가능)는 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4. 고려사 경종 원년의 묘지 규모를 품계별로 제한한 기사는 주지하듯이 송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봉분의 높이는 낮춘 것입니다. 이는 신분에 따라 묘지의 면적, 봉분 규모, 석물 설치 종류와 숫자 등을 제한하고 묘지의 확장 방지와 영토의 효율 도모, 위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허유전묘나 파주서곡리벽화묘 등 피장자의 신분이 알려진 분묘의 규모를 경종 원년의 묘지 제한 규모와 비교하여 이를 준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묘역은 후대에 변형될 여지가 있고, 특히 묘역은 발표문에 언급하였듯이 묘와 묘전을 포함한 것이라 했을 때 현재로서 조성 당시의 묘역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발표자는 묘역시설 중 곡장을 구릉에 자리한 봉분이 상부의 토사 등에 의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파악하였습니다. 곡장은 고려 왕릉에서도 확인되는 시설이지만 왕릉에 따라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분묘에서도 경사가 없는 지형에 곡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사가 있지만 곡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곡장은 분묘를 보호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능·묘제에 등장하는 독특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인 곡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에 대한 토론문

성기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이 논고는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를 전기(918~11c 후반), 중기(11세기말~13세기중반), 후기(13세기 후반~14세기후반)로 나누어 기종, 형태, 문양 등의 특징을 고찰해보고, 출토된 도자기의 기종과 조합을 통해 지역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특징에서는 고려 전기에 중심으로 출토되는 해무리굽완과 함께 공반된 유물을 살펴보고, 중기에는 12~13세기 유적 출토품(강진 용운리 10호-II층, 강화고려왕릉, 해안유적)을, 후기에는 14세기에 해당하는 간지명 청자와 정릉 출토 청자를 중심으로 고려 고분 출토 도자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도자를 통해 고려분묘의 구조를 시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고려분묘에 부장된 부장품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를 통해 그 배경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도자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표자께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고려 전기 분묘유적으로 김천 모암동 출토 도자기를, 중기 분묘유적으로 칠곡 낙산리 출토 도자기를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유적의 출토품은 매우 유사하지만 칠곡 낙산리 출토 장신호의 건부가 전기 출토품에 비해 더 곡면을 이룬다는 변화를 언급하셨고, 이를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보셨습니다. 토론자도 장신호 형태 변화에 대해 일부 동의하나 공반된 화형발, 병의 형태, 음각의 연판문이 전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시기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말한 유적을 전기와 중기로 편년한 근거가 장신호의 형태 변화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 병 등 타 기종에도 과도기적인 변화양상이 있다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병 구연의 형태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유적 출토품과 시기별 특징적인 가마 출토품을 보면, 고려 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도기병의 구연형태가 반구형과 나팔형이 혼합적으로 확인되며, 중기에는 반구형이, 후기에는 나팔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유병, 매병 등 병이라고 칭하는 기형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발표자께서도 고려 후기에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병의 구연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병의 구연형태가 변화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고려분묘 출토 도자기의 지역적 특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현재 행정구역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와 경상도 권역의 도기 부장양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후기 분묘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경우 병의 수는 줄고 편호나 장신호의 수가 급증하고, 경상도는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 도기반구병과 옥호춘병의 부장량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후기에는 병의 구연이 나팔형태로 다수 제작되는 경향을 보이며, 반구형태는 중기의 특징으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경상도는 후기에 들어서도 중기의 영향이 강하게 남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단순히 지역적 선호도와 전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후기양상을 보이는 청자와 달리 도기의 양상만 중기인 점은 의문입니다. 이에 생각하신 견해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께서는 여러 지역의 고려고분에서 출토된 도자를 시기별로 고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자기 시기에 따라 고려고분의 묘역시설, 내부의 매장시설 등의 변화양상이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자사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고려 고분을 공부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문제라 고견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05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맹 세 환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묘는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물이다. 이러한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전통이 확립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분묘의 내부에는 시신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부장품이 매장된다. 부장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식기류, 무기류, 장식구류 등 다양한 기물이 매장되었다. 식기류는 토기, 도기, 자기, 금속 등 다양한 재질로 기물을 제작하였다.

발표자는 고려시대 분묘에 부장품으로 사용된 금속용기(金屬用器) 중 오래기간 동안 부장품의 한 축을 이룬 동기(銅器)에 집중하여 매장위치에 따른 특징과 등장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문헌에 등장한 동기에 관한 사료해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발표 요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 동안 궁금하였던 내용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高麗史』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단순히 銅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유동기(鑪銅器)라 쓰이기도 한다. 또한 鑪와 銅을 다루는 장인을 별도로 두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를 단순히 모두 동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가, 아니면 동기란 유기와는 다른 개념의 그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동기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시기변화에 따른 동기의 제작기법과 변화양상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III장에서 1기와 2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동기의 특징을 설명하셨다. 먼저 1기에는 신부와 대각을 한 번에 제작한 주조기법을 사용하였으며, 2기에는 단조기법으로 신부와 대각을 따로 제작하고 리벳기법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동기를 단조로 제작하고 리벳기법을 사용하여 신부와 대각을 결합한다면, 1기보다 제작공정이 늘어남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기에 보이는 주조기법은 성형 틀 내에 주조용액을 빈 공간 없이 주입하여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단조공정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고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버리고 공정의 번거로움이 있는 단조기법으로 제작기법이 변한 요인과 제작기법에 따른 동기의 기형적 변화 이외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리벳기법을 이용한 단조 제작방식의 동기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법이라 하셨다.

동기 이외에 용기(用器) 중 자기는 중국에서 생산기술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1기에 보이는 동기도 자기와 같이 중국의 수입용기인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료를 살펴보신 발표자께서도 파악하셨듯이 동기는 실생활에서 사용된 기물일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또한 사료에서는 민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물로 기술되어 있지만, 출토양상으로 보았을 때 한정된 계층에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 이는 사료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 볼 때 동(銅)의 속성에 따라 백동(白銅)과 적동(赤銅), 놋쇠(鎳鉛)등으로 구분하여 같은 재질 내에서도 기물의 위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료의 내용이 맞다면 민가에서 보편적으로 구하기 쉬운 동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만 고려분묘에 동기의 매장유무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료의 내용에 따라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다는 동기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를 확인하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303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42번길 5

T. 032-930-0000 F. 032-932-9407

<https://www.nrich.go.kr/ganghwa>

제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16호

T. 02-2285-4132 F. 02-2266-9821

<http://www.designgb.co.kr>

인쇄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9년 11월 29일

발행일 2019년 12월 2일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9 by Ganghw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struction and Culture of Goryeo Tombs

